

시로 읽는 성보순례
내 마음을 가져가요
국보 제27호 불국사금동아미타여래좌상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3월 28일) · 주간

제 884 호 2012년 4월 18일 수요일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며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본생경〉

"물질에 오염된 승단 사회보다 청렴해야"

원로의원 월탄 스님, 통합종단50주년 기념 법어

"부모 · 형제 버리고 중생 해탈코자 출가한 스님들이 물질 · 금전주의에 오염돼 있다. 이는 반드시 척결해야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4월 10일 조계사에서 통합종단 출범5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원로의원 월탄 스님은 1960년 11월 24일 '대법원 6비구 할복사건' 을 비롯해 통합종단 50년사를 법어로 대신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당시 총무원장 · 본사주지 등을 하라면 스님들은 서로 사양하고 고사했다. 보살적 삶을 살던 과거와 달리 요즘 참 부끄러운 일이 많다"며 "선거 등 종단의 일들은 사회보다 깨끗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탄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원스님부터 깨끗한 선거 문화에 앞장서기 위해 제13대 종정스님 추대와 관련해 청렴히 치루겠다는 각서를 쓰고 진행했다"며 "각서를 통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전화 · 방문 등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종정을 모실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한뿌리 생명이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몸이로다. 동체대비심으로 살면, 사바세계가 극락정토가 되리라(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同體 行心同體大悲 娑婆變化淨土)"라며 "하늘과 땅, 나는 모두 하나다. 지구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며, 내 잘못은 이웃도 잘못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는 당부로 법어를 마쳤다.

월탄 스님은 쓴소리에 앞서, 자신이 6비구로 할복까지 해야했던 정화운동사를 법문의 대부분으로 할애했다. 그러면서 비구-대처간 합의했던 '승려자격 8대 원칙' 을 거듭 강조했다.

정화 당시 '8대원칙' 강조
승려 본연 모습 찾길 당부
자승 스님 "선대원력 경의"
자성 · 쇄신 결사 실천 다짐

승려자격 8대원칙은 ▷독신 출가승 ▷삭발염의 ▷수도 ▷20세 이상 ▷불주초육 ▷불범사바이(불상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비불구자 ▷3년 이상 승단생활자이다.

월탄 스님은 "1000여 명 남짓한 비구승들이 7000여 명의 대처승들을 물리치고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었던 까닭은 죽음을 각오하고 호법(護法)에 뛰어든 수행자들의 순수한 마음 때문이다. 오늘날 스님들도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자성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종단을 태동시킨 불교정화운동 원동력이 위법망구(爲法忘軀) 정신이며 출가자라면 그 정신대로 살아야 한다는 당부이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조계종의 지난 50년 역사의 거울 앞에 자성과 쇄신이라는 실천적 결단으로 서있다. 이는 국민의 종교로 거듭나고, 뭇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현대적으로 실천하자는 종단의 의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끊임없이 사회와 소통하며 희망찬 미래를 열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반세기를 기념하는 의미일 것"이라며 "5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불교이념과 모든 존재의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진력을 다한 선대의 원력에 경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월탄 스님은 이날 법회 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논산 호국연무사 건립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출가자라면 위법망구해야"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사진 오른쪽)은 4월 10일 조계사에서 열린 통합종단 출범50주년 기념법회에서 법문했다. 이날 스님은 1960년 11월 24일 '대법원 6비구 할복사건' 을 비롯해 통합종단 50년사를 법어로 대신하며, 출가자의 본분을 거듭 당부했다. 스님은 "옛날에는 총무원장 · 본사주지 등을 하라면 스님들이 서로 사양하고 고사했다. 보살적 삶을 살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범어사 · 법주사 주지 선거에서의 돈봉투 파문 등 참 부끄러운 일이 많다"며 "선거 등 종단의 일들은 사회보다 깨끗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무형문화재 연등회 이제 세계화만 남았다

문화재청 6일 지정 고시… 인류유산 등재 신청도

영산재와 더불어 한국불교 대표 무형 문화유산 연등회가 국가 공인 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지난 6일 관보에 조계종 연등회 보존회를 보존단체로 연등회를 중요 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했다고 고시했다. 이로써 연등회는 4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인정받게 됐다.

불교계 환영, 5월 11일 학술대회

연등회 무형문화재 지정에 불교계는 축제의 분위기다. 조계종총무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대변인 환영 논평을 통해 "연등회의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은 한국 전통문화유산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태종도 논평을 내고 "연등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에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조계종은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학술대회와 축하연을 오는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보유단체로 인정된 연등회 보존회도 확대 운영된다. 조계종은 청사 지하에 연등회 보존회를 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다.

매월 지원금, 행사 보조 혜택

연등회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면서 얻는 가장 큰 혜택은 연등회 보존, 육성을 위해 공식적인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은 지원 기준에 따라 매월 6백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연등회 보존회에 지급하게 된다. 또한 매년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도 행사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와 보유자는 매년 1회 씩 공개 행사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며 "연등회의 경우 확정되지 않았지만 1천~1천 5백만 원 정도의 행사 지원금이 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30일 유네스코 등재 신청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연등회의 화두는 이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넘어갔다. 문화재청은 3월 30일 외교통상부를 통해 연등회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했다.

영문으로 작성된 신청서에서는 연등회의 역사와 가치, 향후 계획 등을 기술했으며, 영상과 사진 역시 이를 증명할 수 있게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결과는 내년 11월 열릴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세계 자비 축제로 발돋움 '숙제'

이와 함께 연등회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공양 정신을 되살려 세계가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

이에 대해 김용덕 한양대 교수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연등회가 단순 불교 의례를 넘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자비 축제로 가꾸는 것"이라며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교유의 연등회 전통을 전승할 수 있도록 연등회 보존회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칼럼 31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884호 CONTENTS

종단 2
19대 국회의원 불자 40명

시방세계 5
2012 포교결집대회



〈새연재〉

기획시리즈 9
조계종 50년
내일을 위한 핵심과제 7

절이 있는 둘레길 12
쌍계사 십리 벚꽃길

문화 21
기부 펼치는 대안카페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불기 2556년 봉축 포스터 공개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가 봉축포스터(사진)를 일반에 공개됐다.

포스터는 참선을 하고 있는 동자승이 두 손으로 연등을 받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검은색과 노란색 바탕 2종류로 구성됐다. 동자승 위에는 올해 봉축표어로 선정된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이란 문구도 새겨 넣었다.

이번에 발표된 포스터는 연등회 홈페이지(www.llf.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올해 봉축 현수막 시안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봉축위원회는 연등회의 홍보를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8개 언어로 된 소책자도 만들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외국인스님, 한국불교 역할 모색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은 5월 11일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조계종 외국인스님들을 위한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국내외에서 활동중인 외국인스님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외국인스님들에게 해외교구 및 본 · 말사, 템플스테이 사찰 등 국내외 종단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와 주요 사업내용을 안내하는 등 스님들이 국내외에서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유식불교의 이해

목경찬 지음 / 264면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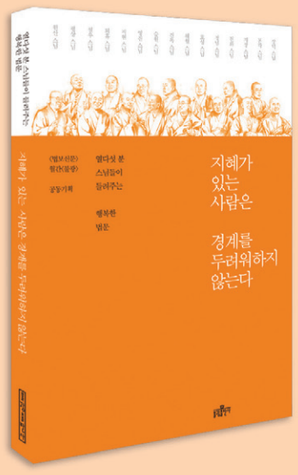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 오직 식뿐임을 밝히는
유식불교의 참뜻은 무엇인가?

유식불교의 사상적 체계를 수립한 세친의 『유식삼십송』에
대한 주석을 편집·정리한 『성유식론』에 의거하여 〈유식무경(唯識無境)〉,
즉 오직 마음만 있고 대상은 없다는 이치를 독자의 눈높이에서
오늘의 언어로 상세하게 설명

강의 일정 불광사 5월 3일 (목) 개강 문의전화 02.417.2551
조계사 3월·6월·9월·12월 개강 문의전화 02.720.1390

원산 스님 평상 스님 설우 스님 퇴휴 스님 지현 스님 영진 스님 승원 스님 진옥 스님 혜월 스님 호성 스님 정념 스님 진화 스님 지장 스님 본각 스님 상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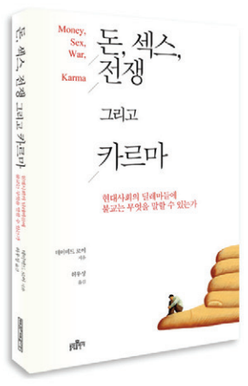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가장 사랑받았고 감동적이었던
열다섯 분 스님들의 법문을
가려 엮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산 스님 외 14명
176면 / 11,000원

불광출판사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Money, Sex, War, Karma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

데이비드 로이 지음
허우성 옮김
240면 / 15,000원

Money, Sex, War, Karma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 교양 강의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 왜 늘 돈이 부족한 걸까?
왜 항상 시간에 쫓기는 걸까?
사람들은 왜 섹스에 매달릴까?
그리고 왜 세계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 걸까?

이 모든 질문들에 불교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27호 불국사금동아미타여래좌상



내 마음을 가져가요

홍영철

불생불멸의 피안은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도 마음이 아니던가요
내 속에 그것이 있을 거라면
그래, 내 마음을 꺼내 가요
내 몸을 파헤치고
다 가져가도 괜ㅊ날아요
몸이란 마음을 담는 그릇이 아니던가요
어서 와요
여기 와서 내 마음을 꺼내 가요
그래 안의 상처가 플리어
아픔도 슬픔도 벗어질 수 있다면
여기 와서 내 마음을 다 가져가요
어서 와요
그때까지 나는
여기 이대로 앉아 있겠어요
천년을 그랬던 것처럼
결코 일어서지 않을 거에요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홍영철 시인은… 대구 출생. 1978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와 〈문학사상〉으로 등단. 시집 〈작아지는 너에게〉 등.

19대 국회의원 불자 '40명' 당선

새누리 32명, 민주 7명, 통합진보 1명… 18대보다 16명 줄어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졌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자 지역구 당선자는 37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비례 대표에는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불자의원이 56명이었던 지난 18대 국회보다 무려 16명이 줄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통합당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자유선진당, 무소속에서 불자 의원은 한 명도 배출돼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통합진보당에서는 비례대표 당선자 1명만이 불자였다. 이에 따라 전체 의석 3백석 중 불자 의원 비율은 13.3%를 채우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주요 불자 당선자는 강남을에 출마해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을 꺾은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김을동(서울 송파병),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안홍준(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김태호(경남 김해시을) 등이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서울 광진을에서 당선한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제주갑), 최재천(서울 성동갑),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이 주요 불자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비례대표에는 새누리당에 김장실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과 통합진보당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이 불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란히 3선의원이 된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과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정치권과 불교계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재선의원이 된 주호영 의원 역시 불교종립 능인고등학교를 졸업한 불교 인재로, 선거 사무소 개원식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종단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등 불교계와 끈끈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도 동국대 정각원에서 '불교와 현대정치'를 주제로 초청 강연회를 진행할 정도로 독실한 불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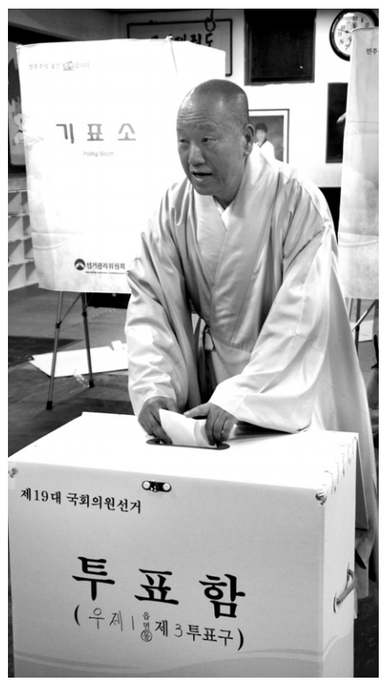
19대 총선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 중 하나가 군소정당들의 난립이었다. 대표 보수 논객이자 불자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올해 2월 국민생각당을 창당하고 자신도 서초을에 출마했으나, 3등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불교문화 발전 '정각회' 활동 기대
불교연합, 기독당 등 종교정당 '無'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장주스님이 창당한 불교정도화합 통일연합당은 지역구(서울 종로) 1명, 비례대표에 4명의 후보를 냈지만 모두 참패했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정당들 역시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해 한국 사회에서 종교 정당은 아직 이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 정각회 인원은 40명 선으로 18대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등 굵직한 사안들을 처리했던 만큼 불교와 전통문화 발전에 불자의원들이 응집력을 가져주길 기대하고 있다. 불교계 역시 불자 오피니언 리더 양성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때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종정 스님도 소중한 한 표의 권리 행사"

진제 스님 19대 총선 투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대거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했다.

진제 스님은 4월 11일 오전 6시 40분 부산 해운정사 인근 해동체육관 2층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진제 스님과 함께 부산 해운정사 소임 스님들과 선방 수좌 스님 등 11명도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부산 범어사 신임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해 부산 지역 불자들의 투표도 이어졌다. 수불 스님은 부산 안국선원 인근 투표장인 해맑은어린이집에서 투표를 마쳤다. 수불 스님은 투표 직후 범어사에서 취임 이후 첫 종무회의를 열고 국장직 임명 등 업무를 시작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당 명	불자 국회의원 당선자
새누리당	김종훈(서울 강남을), 김을동(서울 송파병), 이헌승(부산 진구을), 이진복(부산 동래구), 김정훈(부산 남구갑), 김도읍(부산 강서구을), 서병수(부산 기장군갑), 유승민(대구 동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정갑윤(울산 중구), 강길부(울산 울주군), 이재영(경기 평택을), 이우현(경기 용인갑), 이이재(강원 동해삼척), 정문헌(강원 속초고성양양),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김동완(충남 당진), 정수성(경북 경주), 김태환(경북 구미을), 장윤석(경북 영주), 정희수(경북 영천),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 박성호(경남 창원의창), 안홍준(경남 창원마산회원), 김재경(경남 진주을), 여상규(경남 사천), 김태호(경남 김해을), 김장실(비례), 송영근(비례) 총 32명
민주통합당	추미애(서울 광진을),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강창일(제주시갑), 김우남(제주시을), 최재천(서울 성동갑),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총 7명
통합진보당	정진후(비례) 총 1명



조계종 비구·비구니 292명 배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4월 3일 김천 직지사 금강계단에서 제32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번 수계산림에서는 사미 184명, 식차마나니 108명 등 292명이 새로 구족계를 받았다. 스님들은 회향식에 앞서 2일에는 보살계 수계, 3000배 철야정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이제 이 자리의 수계제자들은 삼계의 도사이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의 길을 함께 가는 청정 비구·비구니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라며 "수계제자들은 한국불교가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의 문명사적인 위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역할에 항상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타당성 논한다

조계종, 4·5월 공론의 장 마련

환경위원들의 사퇴로까지 불거졌던 구례군 케이블카 시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혜경)는 4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4월과 5월에 걸쳐 정부, 자치단체, 전문가, 종단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가 진행하는 '사회적 공론의 장'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에 대한 찬반 의견 청취와 결론 도출을 위한 공청회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최소한 3차례 이상 열릴 예정이다. 여기서 논의된 결과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종단의 입장으로 정리돼 환경부에 전달된다.

하지만,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종단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화엄사 토지 수용 조건부 승인에 반발해 사퇴한 상황이어서 공론의 장 참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사회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있어 왔다"며 "모두가 동의 가능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떠나 관련 당사자 모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김연아나무 마가목





숙취해소

❖ 백세팔팔 : 국내특허 10-07071300(마가목 차음료)
상표출원번호 : 40-2012-0015906
❖ 청 명 천 : 국제특허 PCT/KR2004/003474(숙취해소)
국내특허 10-0663952(숙취해소)
❖ 갓바위 생식 : 식사 대용식
❖ 오채 단이슬 : 국내특허 10-0663948(야채 미용음료)
❖ 오과 단이슬 : 국내특허 10-0663947(과일 미용음료)

회 원 모 집
갓 바 위 자 비 회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476번지
☎053)311-2675 (대구사무실)

Jawoon FOOD
www.jawoonfood.co.kr
불자를 위한 불자의 기업
주식회사 자 운 www.jawoonfood.co.kr
전국총판 / 대리점 모집 TEL 053)311-2626~7

“지난 50년 통해 미래 50년 준비”

조계종 통합종단 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집행위원장 영담 스님

4월 11일 조계종이 통합종단출범 50주년을 맞았다.

‘통합종단출범5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영담 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인 올해는 새로운 50년,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다짐하는 해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위원장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대신해 통합종단출범 5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영담 스님은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두고 명칭부터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안다. 명칭을 통일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취지로 보자”고 말했다.

스님은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이 자칫하면 1700년 한국불교의 정맥을 잇고 있는 조계종의 정체성을 50년의 단기 역사로 곡해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 50주년에 집중하면 정화로 표현되는 비구·대처 다툼을 조명케 돼 원융화합의 분위기를 해칠까하는 염려도 했다.

“종단의 지난 50년 반세기는 반목·대립의 기간이었습니다. 새 50년에는 한국불교가 사회의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단계입니다.”

조계종은 통합종단 출범5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그 시작이 4월 4~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50년 기록과 대화하라’를 주제로 열린 기록물 전시전이다. 전시회를 위해 조계종 중앙기록관(관장 영담)은 지난해부터 육필원고 편지 일기 안거증 포상증 사진 녹음테이프 등 불교역사자료 모으기 운동을 펼쳐왔다.

4월 세미나·10월 결집대회 통해 1700년 정맥잇는 역할 모색

11일 총선일로 인해 하루 앞당겨 10일 치러진 기념법회에서는 원로의원 월탄 스님 법어를 통해 출가자 본분을 돌아보고 위법망구의 자세를 되새기자는 결의도 다졌다.

25일 오후 2시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50년의 성찰과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28일 오후 1시에는 동국대 종학연구소 주최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한국불교와 조계종’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10월 중 개최 예정인 결집대회는 종단



역량을 하나로 모아 미래를 대비하자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담 스님은 “결집대회를 통해 종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자종단에 걸맞는 역할을 모색하고 다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0~11월경에는 한국불교1번지 조계사 경내에 조계종 법통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육조혜능 대사의 좌상이 봉안된다. 이 좌상은 육조혜능 대사의 삭발본사인 중국 광효사가 한중불교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조계사에 기증한 것이다.

영담 스님은 “최근 조계사를 찾는 외국인 가운데 70%가 중국인이다. 육조혜능 대사 좌상을 봉안은 문화자원으로서 민간교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수행문화의 세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질적으로 갖출 만큼 갖춘 서구인들에게 불교의 장점인 정신문화가 매력적이며, 한국불교는 불교수행 전통을 잘 살려왔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영담 스님은 “서양인들은 자연을 개발 대상으로만 여겨왔다. 환경 등이 주목받는 요즘 불교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소개해 자연이 정복의 대상이 아닌 보존과 상생의 동반자임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담 스님은 “종단의 과거 50년은 정화 후유증으로 암울했던 시기였다. 조계종에 희망이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에는 희망이 있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조계종은 정화·개혁 등으로 인한 다툼 속에서도 유구한 전통을 지켜온 저력이 있다. 종도를 비롯한 불자들 모두 한국불교의 희망과 저력을 믿고 새로운 50년을 기대하고 준비해 주기 바란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불교가 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호국연무사 건립 위한 정성 답지

오등선원·익명 독지가 등 아름다운동행에 기부

호국연무사 건립을 위한 불자들의 정성이 이어지고 있다.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조실 대원)과 미국에 거주하는 익명의 노보살은 4월 9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군포교 건립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과 5000달러를 전달했다.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을 대신해 학림사 주지 서봉 스님이 참석했다.

美 노보살의 기금은 법보신문에 전달된 6000달러 가운데 일부이다. 노보살은 6000달러 가운데 5000달러는 호국연무사 건립기금으로, 1000달러는 로터스월드가 주관하는 캄보디아 둡기에 지정 기탁했다.

10일에는 성철스님문도회에서 2000만원을, 경허선사열반100주년기념사업회에서 1000만원을 논산 군법당 기금으로 써 달라며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조동섭 기자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10일 논산군법당 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출가제도 개선 공청회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출가자 현황과 출가제도 문제점을 살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6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출가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사에서는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이 기조발제 ‘현행 출가자의 현황과 출가 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현대사회와 출가 승려의 길과 출가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종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성문 스님(대구 동화사)은 주제발표 ‘현행 출가제도의 개선방안 및 출가자 활성화 방안’에서 교구출가·은사도제 정원제 등 도입과 출가체험 프로그램 신설 등을 제안한다.

정범 스님(중앙종회의원)은 ‘선교육 후득도 출가 제도’에서 동국대 불교대학을 예비출가자 교육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한다. 가섭 스님(교육원 교육국장)은 ‘단기출가(환계제도)를 활용한 출가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단기출가제 도입을 통한 청년 출가 기회 확대를 제안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BBS “김혜옥의 아름다운 초대” 공개 방송

4월 23일, 3층 대법당서

BBS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은 4월 23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김혜옥의 아름다운 초대〉 특집 ‘행복한 봄나들이’ 공개방송을 개최한다.

이번 공개방송은 새 봄을 맞아 중년의 건강과 행복을 주제로 사찰음식 대가 선재 스님, 〈생긴 대로 병이 온다〉 저자 조성태 한의학 박사가 게스트로 초대돼 건강관리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초대공연으로는 ‘잊혀진계절’의 이용, ‘포플러나무아래’의 이예린, ‘나같은건 없는건가요’의 추가열,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의 김형섭이 감미로운 선율을 들려준다. (02)705-5250

노덕현 기자

태허 스님 제43주기 추모재

4월 12일 서울 현충원서 봉행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4월 12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민족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태허 스님)의 제4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사진 아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태허 스님은 부처님 정법에 의지해 ‘자유롭고 행복한 새 나라 건설을 위해 분투하자’는 신념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과 자주독립, 한국적 민주주의 정착,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위해 용맹정진한 불교선각자이다”고 말했다.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스님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 광복 이후에는 반독재운동을 벌인 태허 스님의 생애가 오늘 추모재를 발판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열린선원 법현 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윤두섭 서울남부보훈지청장, 함세웅 회장(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김원웅 회장(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남양주 광동고 학생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운암 김성숙 선생은 1919년 3·1운동 당시 봉선사 승려 신분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해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뤘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의용대 유학한국혁명청년회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민족전선연맹 등에서 활동하며 임시정부 국무의원을 지내는 등 항일 투쟁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헌신한 독립운동가이다.

조동섭 기자

금강대, 교육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

총 143개교 경합…5억 7천만원 지원

학생 1인당 145만원 혜택

금강대(총장 정병조)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5년 연속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143개 대학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평가지표에 따라 9개 유형별로 나눠 순위를 정하고 최종 97개교를 선정했다. 선정대학은 국공립대 24개, 교원양성대 11개, 수도권 사립대 28개, 지방 사립대 34개 등이다.

이에 따라 금강대는 5억7400만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1인당 145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9개 유형별로는 △국공립 (재학생)1만명 이상 9개교 △국공립 1만명 미만 15개교 △교원양성대학 11개교 △사립 수도권 1만명 이상 16개교 △사립 수도권 5000~1만명 미만 8개교 △사립 수도권 5000명 미만 4개교 △사립 지방 1만명 이상 12개교 △사립 지방 5000~1만명 미만 13개교 △사립 지방 5000명 미만 9개교가 선정됐다. 금강대는 5000명 미만 9개교에 해당한다.

평가는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20%) △전임교원 확보율(10%)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20%) △장학금 지급률(10%) △학생교육투자비율(10%)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10%) 등 각 대학의 교육역량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로 구성된 ‘교육지표 포뮬러 반영비율’에 따라 이뤄졌다.

금강대 관계자는 “총 금액은 작지만 학생 1인당 지원 혜택은 가장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 취업역량과 전문성 강화, 장학사업 등 교육역량을 높이는데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대모집
집중 5일 완성
저자 : 법화 종헌 (정흥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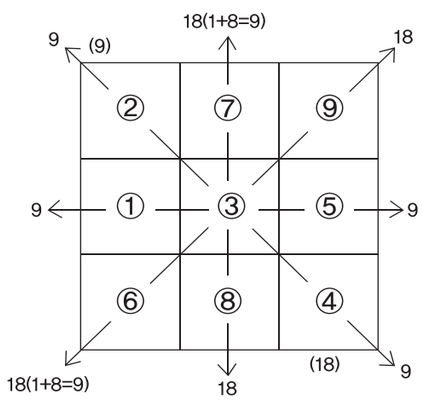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연화사 불교대학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창시자

저자전화
010-7415-0803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서울 경기 전국 학인 대모집
최고수로 가는길!

만세력 없이도 일생을 꿰뚫어 보는 비술



[구단구궁 원리도]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표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대전광역시 소재 연 화 사

강 의 일정표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 중심 (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신문, 인터넷, TV, 유·무선 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불교전법도량 연 화 사 불교대학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382번지 교무접수처 ☎ 042)477-0703 / 011-9911-1277

일 주 문



관음종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4월 4일 창녕 법성사에서 관음종 개산조 태허 조사 탄신 108주년 기념 국제보살계 수계법회를 했다.



불교상담개발원, 창립 12주년 법회

불교상담개발원 이사장 지원 스님은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12주년 기념법회를 연다.



생명나눔본부 장기기증 제휴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4월 11일 이수건설 사회봉사동우회 브라운스톤야구단(회장 이광섭)과 장기기증 업무 제휴 협약식을 체결했다.



고운사 삼사 성지순례 개최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4월 30일 부여 고란사, 논산 관촉사·쌍계사로 삼사 성지순례를 거행한다. (054)833-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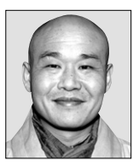
봉은사 보살계 수계살림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4월 29일 오전 10시 대웅전 앞 임시법당에서 2012년 윤달 삼사칠증 보살계 수계산림을 개최한다. (02)3218-4800



심곡사 제1회 떡목음악회

익산 심곡사 주지 화평 스님은 4월 21일 정정렬 명창 득음 및 떡목공연장 건립기념 제1회 심곡사 떡목음악회를 개최한다. (063)855-2001



문빈정사, 강정마을 다큐 영화제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은 4월 6인 문빈정사 대웅전에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의 실상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개최했다.



남원 103연대 미륵십선계 수계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주지 일원 스님은 4월 9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남원 103연대 장병을 대상으로 미륵십선계를 수계했다.



한국불교홍익범패단 창단

김해대 불교학과 교수 지효 스님은 3월 27일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강당에서 제1회 한국불교홍익범패단을 창단했다.



명상리더십센터, 수련회 열어

황수경 명상리더십센터 센터장은 4월 20~21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6층에서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수련회'를 개최한다. (02)722-2101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에 매진"

조계종 장애인전법단장 도륜 스님



부처님 제자 중에는 시각장애인으로 천안통을 얻은 아나율과 지적장애인으로 먼지를 털며 깨달음을 얻은 주리반특이 있다. 이처럼 깨달음을 얻는 일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남의 일 대하듯 무심하거나 혹은 불편해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계종 포교원 장애인전법단이 주최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바로 4월 14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린 '장애인, 부처님 품안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이다. 장애인전법단장 도륜 스님(영주장애인복지관장·고운사 영주포교당 주지)을 통해 행사의 의미는 물론 불교계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미래를 짚어봤다.

장애인전법단은 이날 행사에서 ▷시각장애인 이해 및 안마시연 ▷청각장애인 이해 및 기초수화 배우기 ▷장애인 생산품 판매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예절 ▷휠체어 체험 등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도륜 스님은 "불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사들이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장애인 포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심정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며 취지를 설명한다.

장애인전법단은 지난해 5월 창립된 이래 포교사각지대인 장애인 포교 활성화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 왔다. 지난 1년 동안 조직정비 강화에 힘써 왔고 제주 약천사 템플스테이, 사찰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홍보, 장애인 신행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밖에도 장애인 포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장애인 정보화 증진,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등을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스님은 "현재 전국적으로 30여 개의 불교계 장애인 시설이 있고 원심회, 보리수아래, 혜광원, 대광맹인불자회, 혜광맹인불자회 등의 단체가 있다. 이들은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활동을 펼치며 불법 홍포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런 힘을 모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불교계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전한다.

스님은 앞으로 점자 경전 발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템플스테이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그는 "타종교에 비해 불교계가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스님과 불자들 모두가 장애인들의 활동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심으로 찍은 사진…필름만 24km

조계종 30년 기록 60만장 종단에 기증 배영수 작가



조계종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월 4~10일 개최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록물 전시회'는 현광(玄光) 배영수 작가(76)가 있어 가능했다.

배영수 작가는 전시회를 위해 조계종 주요행사 사진을 조계종에 흔쾌히 기증했다. 배 작가의 사진은 4cm 필름 60만장, 이를 늘어놓으면 24km, 서울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닿을 거리만큼 된다. 1994년 종단개혁 때는 경찰과의 충돌로 카메라가 전손되는 사건을 겪으면서도 놓치지 않고 모아온 순간들이다.

"기록물 관리는 종단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엄두가 안났으니까요. 제가 욕심내서 갖고 있다면 종단의 소중한 역사가 사장될 것 아니겠어요?"

배 작가는 "불자의 한 사람으로 지난 30년간 조계종의 역사를 필름에 담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예로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배영수 작가가 조계종 행사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은 1982년이다. 배 작가는 당시 포교원 산하 중앙법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사회부장이던 故 법장스님(前 총무원장) 추천으로 총무원일을 시작했다.

당시 총무원장이던 황진경 스님으로부터 사령장을 전달 받으며 "열심히 잘해보라는 말"에 배 작가는 30년을 조계종을 위해 헌신해 왔다.

조계종은 배영수 작가의 이런 공로를 인정해 4일 전시회 개막식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미약한 힘이지만 조계종 역사기록에 보탬이 돼 영광입니다. 조계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우리사회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불자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동서양 흐름 알면 미래 사회 보여"

불광아카데미 '붓다와…' 연 이도흠 교수



"불교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사상과 만나서입니다. 우리가 동양에 살고 있지만 지구 반대쪽에서는 서구문명을 꽃 피어 왔죠. 정신분석, 뇌과학 등 수많은 임상실험 과학적 실험을 통해 이루어 온 서구의 과학과 철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결합할 수 있다면 새로운 불교로 나아갈 수 있고 서양문명의 한계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불광아카데미 특강 붓다와 서양철학자의 대화 첫강좌가 4월 11일 송파구 석촌동 불광교육원에서 열렸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동양과 서양, 생각의 차이'라는 주제를 통해 동서양 철학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교수는 서양이 주체 중심의 사회라면 동양은 관계 중심의 사회라 말한다. "미국의 한 학자가 유학생들에게 어항의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서양의 학생들이 어항과 물고기만 그려내는 반면, 동양의 학생들은 어항 안의 수풀도 그리고 어항이 놓여진 탁자도 그리며 주변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현상에 대해 서구가 이데아 혹은 주체중심 실체 중심주의의 사고를 해온데 비해 동양은 주변 사람을 통해 자신을 규정 짓는 관계중심의 문화에서 살아온 결과라고 설명한다.

"서양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누군가에게 너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는 우주의 실체 이데아 중심의 사유를 해온 서양인들의 특징을 대변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동양 사람들은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스승은 누구냐, 친구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차이는 서양이 주체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라면 동양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데서 오는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서양의 문화를 중세 현대 탈현대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신 중심주의 시대가 중세라면 현대는 인간중심주의, 탈현대는 생태론적 패러다임이 지배한다고 전한다. "신 중심의 사고를 깨고 인간 중심주의를 주창한 서구사회는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시하며 과학과 산업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중심적 사고는 이성이 도구화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환경파괴는 인간중심주의 사고가 낳은 병폐 중 하나로 우리의 현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깨닫고 탈현대 사회에서는 생태론적 패러다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회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 교수는 설명한다. "중세시대에는 기도하는 여자의 그림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누드화가 인기를 끕니다.

현실직시 불교사상은 인류 위기 극복 대안

탈현대 사회에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hybridity(혼성성)의 사회가 되었죠. 탈현대 사회는 이미지를 사유하는 시대로 영화가 현실을 만드는 등 인간이 미디어를 모방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과 허상을 뚫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는 불교 사상은 인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말로 이 교수는 강의를 마무리했다. "18세기 서양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여론은 불교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서양의 총괄적 흐름을 숙지하면 현대 문병 사회의 여러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불광연구원은 이 교수의 강의를 시작으로 7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김형효 前한국중앙연구원 교수, 김석 건국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등의 강사를 초빙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결합한 다양한 강좌를 펼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빙의의 시대 증상을 바로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빙의의 시대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의 시대 2

〈빙의의 시대〉를 출간한 뒤 수많은 독자와 빙의 환자, 또 그들의 보호자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1권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귀신에 접신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조기퇴치의 방법,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 책구입은 인터넷 서점이나 우리출판사(02-313-5047)로 신청하세요.

귀신 [빙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정신질환·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무당 생활이 싫으신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좌골신경통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시는 분
- 다른 곳에서 귀신(빙의) 처리를 못하신 분
- 귀신(빙의) 처리를 못할 경우 돈을 받지 않습니다.(환불해드립니다)
- 말기 간암환자

상록정사 빙의의 시대 저자 일광도인 ☎ 02) 743-7679 H·P 010-5040-7679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번지 롯데캐슬Ⓐ 지동 309호

※직접 상담요망, 전화상담은 사절합니다.



4월 7일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왼쪽 세번째)과 포교부장 송묵 스님(왼쪽 끝), 엄홍길 조계종 산악회장(왼쪽 두번째)을 선두로 포교결집대회에 동참한 포교사들이 힘차게 계룡산 등반을 하고 있다.



동학사 특설법단에서 열린 조계종 '2012포교결집대회 · 국태민안기원 계룡산 등반대회'.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엄홍길 초대회장이 조계종 산악회 창립을 상징하는 깃발을 힘차게 휘두르고 있다.

1만 불자 '웃음꽃 등반' 전법 다짐

조계종 포교원 2012포교결집대회 계룡산 등반

"피어나는 봄꽃을 보니 포교전법의 힘이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4월 7일 따스한 햇볕이 비추는 오후 1시, 공주 계룡산 자락의 동학사 옆 등산로로 1만 명의 포교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을 올랐다.

엄홍길 조계종 산악회 회장을 선두로 산행에 참가한 포교사들은 얼굴로 흐르는 땀을 서로 닦아주며, 또 시원한 감로수를 권해가며 환하게 웃었다.

스님, 신도들 함께 산 오르며 "힘내서 불법 펼치자"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동학사 제2주차장 특설법단에서 마련한 '2012포교결집대회-국태민안 기원 계룡산 등반대법회'에 참여한 1만여 불자들은 봄마중을 나온듯 표정들이 밝았다.

2012포교결집대회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과 108산사 순례단 등 지역 사찰 스님들과 포교사단, 신행단체와 지역전법단의 1만 대중이 운집했다.

법회는 불교의식과 포교원장 지원 스님의 법문, 자비의쌀전달식, 대전충남전법단 창립, 조계종산악회 창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원 스님은 "포교는 사람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고,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으로 결집된 대중의 힘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불자들이 각 사찰과 종단의 다양한 신도 조직에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며 생명을 살리는 불사를 진작시키는데 포교원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포교결집대회에서 창립된 조계종 산악회(산악회장 엄홍길)의 주도 아래 동학사를 거쳐 상원암 남매탑, 금잔디고개를 넘어 갑사까지 올랐다.

"건강에 좋다고 해 2년 전부터 매주 주말이면 전국명산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조계종에서 산악회를 구성해 불자들이 함께 산을 오르니 없던 힘도 불끈 솟습니다. 보이는 등산객들 모두가 불자가 됐으면 하는 욕심도 생기네요!" 경기인천지역 포교사단에서 참가한 자인 최원진 포교사는 "등산을 통해 포교 원력을 더욱 키우겠다"며 힘차게 말했다.

"산은 집 인근에 위치한 곳 외에는 처음와 봐요. 디지털불교대학 총동문회 차원에서 참가했는데 인터넷에서 주로 만나던 도반들을 등산을 통해 만나 교류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조계종 디지털 불교대학 총동문회 소속 이순연 씨(울산경남지역 포교사단)는 평소 만나지 못했던 수강생들을 함께 만날 수 있어 즐겁다며 밝게 웃었다. 앞서 가던 디지털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원 10여명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뒤를 돌아보며 플래카드를 흔들었다.

이날 산행은 계룡산 등반 팀, 동학사와 갑사 등 3개 사찰 순례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계룡산 등산로 입구를 출발한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엄홍길 산악회장, 포교사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한 시간 여를 걸어 등산코스가 시작되는 동학사로 향했다. 각 지역에서 모인 이들은 출 · 재가의 울타리를 벗어나 함께 땀 흘리며 평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서로 건넸다.

대한불교조계종 산악회 창립 '자비와 생명살림'을 등산 문화로

평소 등산에 관심이 많던 포교사들은 선두에 선 엄홍길 산악회장을 찾아 등산 요령들을 묻기도 했다.

본격적인 등산로가 펼쳐지자 가픈 숨이 차올랐다. 가파른 산길에 거동이 힘든 노보살들은 쉬며 관음정근 등을 하기도 했다. 상원암 남매탑에 도착한 불자들은 한걸음 한걸음 남매탑을 돌며 전법 의지를 다졌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주5일제 도입, 여가문화 발달에 따른 새로운 신행단체 창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1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산인구에 대한 포교전문단체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흔적없는 등산' 등 자연보호와 생태살림에 대한 등산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에 대한 불교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다.

이날 등산에 참여한 불자들이 단순히 산을 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불자들은 산을 오르며 주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보존운동도 함께 펼쳤다. 이에 앞서 출발지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 마련, 지역특산물 구매에도 십시일반 동참했다.

계룡산 산행에 함께 참가한 이기흥 대한체육인불자회 회장(런던올림픽선수단 단장)은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걷기인데 특히 산을 오르는 것은 심폐운동과 중년 이후 건강에 직결되는 체력 단련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계가 국민여가생활과 운동에 불교의 생명살림과 나눔 정신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4시간 가량의 산행 끝에 갑사 앞마당에 모인 불자들은 환희심에 가쁜 숨조차 보이지 않았다. 계룡산에 지는 노을과 함께 아쉬움을 남기고 불자들은 버스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계룡산=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산에서 '한걸음의 위대함' 배우세요"

엄홍길 조계종산악회 초대회장



"불자님들이 산행을 통해 신심을 더욱 다지고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우리 사회에 자비정신을 발현하시길 바랍니다."

이날 창립된 조계종 산악회 엄홍길 초대회장(사진)은 "희말라야 8000m 16좌를 등반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응원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조계종 산악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홍길 회장은 야외무대에서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공양을 함께 하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엄 회장은 "절에 간다는 마음, 부처님을 뵈러 간다는 마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산을 탄다면 다치는 일도, 힘든 일도 없을 것"이라며 불자들이 등산에 앞서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을 타며 느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자기 성찰의 힘일까. 엄 회장은 '엄홍길휴먼재단'을 세워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다. 함께 산에 오르며 목숨을 잃었던 동료, 셰르파들에게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2009년부터는 네팔 히말라야의 오지마을에 초등학교 16개를 건립하고 있다. 이날 산행에 앞서 열린 포교결집대회에서는 히말라야를 등반하다 유명을 달리한 박영석 대장 등 산악인들의 영가를 위로하는 위령의식도 진행됐다. 엄 회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는 故박영석 대장의 미망인 등 가족들도 동참해 눈시울을 붉혔다.

"기상악화로 등반이 멈춰질 때면 여러 책을 봅니다. 법정 스님은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티베트에서 중국의 침략을 피해 맨몸으로 히말라야를 넘어온 80세 노스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스님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스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다'고 답합니다. 저도 매번 산을 오를 때 마다 한걸음의 위대함을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저도 한 걸음씩 내디딜 생각입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 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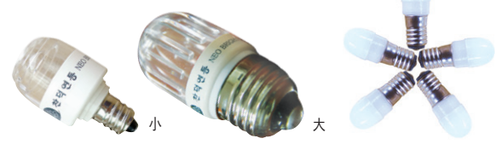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외국인도, 미녀가수도 템플스테이 '강추'

외국인 만족도 91%, 내국인 81%로 높은편

한국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내국인-공익사업, 외국인-브랜드 강화

캐나다 여행업체 직원 크리스티나 윙 씨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선운사에서 진행된 구미주 언론, 여행업체 종사자 템플스테이 팸투어에 참가했다. 그는 한국 사찰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스님의 검소한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며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본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가수 이효리 씨도 템플스테이를 '강력 추천' 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템플스테이를 다녀왔다. 먹은 밥그릇까지 물로 씻어 그 물까지 마시는 발우공양을 하니,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았다"며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데 템플스테이를 추천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는 템플스테이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이 최근 발간한 '템플스테이 성과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 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에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 91.2%가 템플스테이를 타인에게도 추천해 주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 내국인 역시 81.0%가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해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만족도 지수도 높았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종합적인 만족도 지수는 10점 만점의 8.33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외국인의 경우 다도(9.01점)가 높았으며, 내국인의 경우 스님과의 대화(8.45점)를 가장 선호했다.

참가동기에 대한 조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참가자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내국인 중 22%는 '휴식과 일상의 재충전' 을 참가 이유로 꼽은 반면, 외국인들은 한국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관심이 템플스테이 참가의 주된 이유였다.

이는 내국인들은 내적인 갈등 해소와 행복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생각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템플스테이가 다르게 개발돼야 한다는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서는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는 현재 인식돼 있는 '한국 대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이라는 브랜딩을 강화돼야 한다"며 "내국인 대상 템플스테이는 단도박, 금연 · 금주, 폭력치유 등 사회 통합을 주도하는 공익사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월 5~6일 진행된 선운사 템플스테이 팸투어에서 참가 외국인들이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운영 프로그램도 치유, 테마, 문화체험, 휴식, 수행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으며, 사찰별 고유 특성을 살린 스토리텔링도 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질적 문제점 중 하나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관리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조사 연구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지현스님은 "템플스테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공익사업으로서의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과정을 통해 제시된 템플스테이의 발전 방향을 적극 수용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데 앞장 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참가자 만족도 조사는 내국인 7천여 명, 외국인 8백여 명을 대상으로 29개에 대한 사찰 모니터링 평가, 심층면접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종교사회복지協, 서울시와 MOU 체결

종교 시설 활용해 도서관 등 건립

사회 복지공동체 회복을 위해 서울시와 종교계 사회복지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사)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수근, 이하 한종사협)과 서울시(시장 박원순)은 4월 10일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복지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회원 종단 소속 지역 종교시설의 저소득 아동 1천 명에게 장학금 3억원과 학용품 지원을 비롯해 △종교시설 공간 활용한 데이케어 센터 설치 △종교계 나눔활동 연계와 각종 결연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종교 복지계는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복지 네트워크가 구축,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전국 사찰 최초 평생교육원 생긴다

조계사, 평생교육원 수탁 … 6월경 개원 예정
마인드 케어 지도사 등 마음 전문가 양성 초점

대학, 시민단체, 언론기관에서 설치된 평생교육원을 사찰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토진)는 3월 평생교육원 수탁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개원 준비에 들어갔다.

전국 사찰로서는 최초로 개원하는 이번 조계사 평생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기관으로 취업 교육 뿐만 아니라 학점,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정식 교육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같은 교육기관 개원은 지역주민들의 교육 욕구 충족과 더불어 포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탁을 추진한 조계사 부주지 의연스님은 "평생교육원 설립으로 불자와 지역민들의 인성, 사회, 재취업 교육을 사찰에서도 담당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주민에게도 교육이 확대된 만큼 이에 따른 포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인 만큼 운영 교육과정들도 '마음 치유' 에 방점을 뒀다. 조계사 평생교육원이 중점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 역시 마인드 케어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스트레스 관리사 등 교육 지도사 양성 과정이다.

특히 이들 교육 지도사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학생 상담 등 심리 치료와 관련한 교육 지도사로도 취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청소년, 가족, 부부, 노인 등 계층 간 행복 캠프도 개설해 명상과 수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평생교육원 운영이 본격화 되면 향후 노숙인 인문학 강좌, 도시 마을 공동체 활동가, 바리스타 등 특별 교육 강좌로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의연스님은 "불교적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 양성은 현대인의 심리 치유와 포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교대학 운영이 가능한 사찰이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평생교육원 수탁 운영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소식

"우정국로 안전 우리가 지켜요"

조계종자원봉사단, '우정국로 안전 지킴이' 운영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생명존중 실천을 위해 교통안전 지킴이로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자원봉사단은 4월 6일부터 불자,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조계사와 우정국로 일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사진아래〉

캠페인에 참가한 송경옥 자원봉사자는 "생각보다 조계사 일대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놀랐다"며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우정국로 안전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 안전의식과 생명 존중사상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 지킴이 캠페인은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보행자들은 점멸신호에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되며, 운전자들도 대기신호가 끝날 때까지 보행자들의 횡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자와 시민들의 교통 안전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군포교 활성화 위한 수련회 열려

불교여성개발원, 20~21일

군포교 지원 현황과 포교 콘텐츠 개발을 위한 수련회가 열린다.

불교여성개발원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황수경)은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우리함께 빌딩에서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수련회' 를 개최한다. 군종특별교구 군법사단, 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군포교지원단 등 군불교 단체들이 참가하는 이번 수련회에는 군법당 지원 상황과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유선재 군포교지원단장, 정진희 포교사, 김영숙 포교사 등 일선 포교사들의 경험담과 군포교 콘텐츠 개발에 대한 특강도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희망자는 불교상담개발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02)722-2101~2 신중일 기자

불교환경연대, 숲 해설가 양성 과정

4월 23일 초급 개강 … 환경철학 등 교육 진행

숲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숲 해설가 양성 교육 과정이 마련된다.

불교환경연대(대표 보선)은 '숲 해설가 양성 초급 과정' 을 모집하고 4월 23일 첫 강의를 진행한다.

10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교육과정은 매주 월, 목요일 이론 교육과 토요일 실습 교육으로 나눠 진행되며, 환경철학, 집단지도론, 생태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법 등을 중점 교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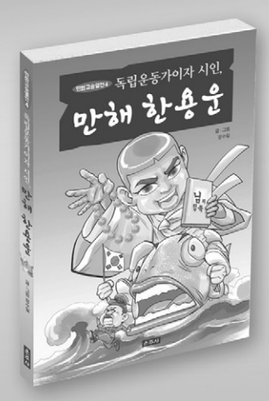
수강인원은 35명이며, 참가희망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다운로드 받아 접수하면 된다. (02)734-1915 신중일 기자

금강경,
문수보살이 묻고 부처님이 답하시다
불설대승금강경론佛說大乘金剛經論
불교의 참된 이치와 인과의 도리, 반야경의 진제眞諦를 구체적인 수행차제로 드러내는 간결하고 명쾌한 문답!
38가지 주제에 대한 문답을 통해 드러나는 금강경의 진수!

이수덕/A5변형양장/124쪽/9,000원

중국선종의 역사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저술!
중국선종사

중국선의 탄생과 전개 과정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추적한 세계적인 명저!
이론과 선 체험이 결합된 대선지식의 독창적인 안목과 치밀한 분석!
인순 저, 이부키 아츠시 일역, 유진 한역/A5양장/850쪽/50,000원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만해 한용운

만화로 만나는 만해 한용운의 생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준 독립운동가, 불교의 근대화를 이끈 불교사상가이자 위대한 근대 시인!
한용운의 삶과 사상을 만화적으로 재미있게 재구성!
글 · 그림 정수일 /B5컬러/198쪽/12,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화엄종찰 위상 지키려 당시 트렌드 거부

이주민 연구원, 영주 부석사 조사자료서 밝혀

영주 부석사는 의상 대사가 676년 창건한 고찰이다. 이 곳 무량수전에 봉안된 영주 부석사 소조여래좌상(국보 제45호)은 높이 278cm로 국내 현존하는 소조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기록에서 전란으로 소실돼 복원됐다고 전하는 부석사 본존불의 원형과 변화상을 고찰한 논문이 故 황수영 박사 이후 35년 만에 발표됐다.

이주민 미술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영주시청과 한경문화재보존이 펴낸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보존 실시용역〉에 기고논문 '부석사 소조아미타불좌상과 그 대좌에 관한 소고'을 게재했다.

이 연구원은 논문에서 부석사 본존불의 방형대좌와 수미단 등을 분석해 본존불의 원형을 추정했다.

부석사 본존불이 봉안된 수미단 안에는 불상의 하중을 받치고 있는 방형대좌(2.6*2.3m)가 있다. 그 바깥쪽으로 내측 수미단(3.6m*3.2m)가 있고 다시 0.8m 가량의 공간을 두고 현재 확인 가능한 외측 수미단(4.8m*4.3m)이 위치해 있다.

방형대좌는 소나무로 네 기둥을 삼고 안쪽에는 돌을 쌓은 후 나머지 공간은 기와 파편과 진흙을 사용해 공간이 메워져 있다. 표면은 호분이나 백토와 같은 백색 안료를 전체에 바른 다음 금을 덧칠했다. 대좌의 향 우측 모서리는 쌓여 있던 충전재가 무너져 내려 훼손 정도가 크다. 금니를 이용했던 채색도 박락이 심한 상태이다.

이주민 연구원은 옷칠을 한 외측 수미단 안쪽 바닥에서 발견된 2종의 녹유전에 주목했다. 녹유전은 통일신라시대 황실사찰 규모의 절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부석사 본존불이 7세기 조성됐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라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주민 연구원은 "크기와 성격이 다른 두 녹유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두차례 이상의 불사가 진행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간행된 〈조선고적도보〉의 자료를 보면 부석사 무량수전 법당에는 녹유전이 깔려 있었다.

故 황수영 박사 이후 첫 논문 발표
국내 최대 소조불 부석사 여래좌상
"비로자나불 아닌 아미타불 봉안은 화엄종찰로서의 자부심 지킨 것"

이 연구원은 "현재 목재로 마루를 놓은 것과는 상이한 모습이지만, 〈조선고적도보〉를 통해 본 20세기 초 부석사 본존불의 모습은 개금보수를 했던 외에 수미단 모습이나 불상의 배치 등 봉안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 연구원은 부석사 불전의 바닥을 석조 · 전 · 목조마루의 3가지로 분류했다.

이 연구원은 "석재로 바닥을 이룬 석굴암, 감은사 금당 등의 유구를 제외하고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전과 마루바닥은 한국건축 바닥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고구려 시기 것으로 출토된 문채전(文彩塼)이나 백제시기 문양전(文樣塼) 등이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 전바닥으로 계승돼 부석사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 바닥으로 계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보 제45호 영주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소조불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이다.







부석사 무량수전에 봉안된 소조여래좌상의 (왼쪽부터) 삼단방형대좌와 내측 수미단, 외측 수미단. 이주민 연구원은 대좌의 모습과 수미단의 훼손정도 · 조성시기 등에 주목해 부석사 본존불의 원형을 추적했다.

전바닥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무위사 극락전,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내측 수미단 하대 부재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밤나무가 사용됐고, 그 외 부재는 소나무가 사용됐다.

이주민 연구원은 "내측 수미단 훼손 시기는 불분명하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파손이 돼 하대와 중대 일부만을 남기게 됐다. 상대를 뜯어낸 후에 외측 수미단을 만들 당시 내측 수미단을 임시로 이어 붙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측 수미단은 조사 결과, 불상의 하중을 받치고 있던 방형대좌 한쪽 모서리가 무너져 내려 대좌 안에 있던 충전재가 노출돼 있다.

이 연구원은 "1358년 부석사 본존불이 적병에게 화를 당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그 전화가 방형대좌 훼손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민 연구원은 "1358년 왜구의 병화 이후 진각국사 원융(1307~1382)에 의해 무량수전과 조사당 중건 등 대대적인 불사가 있었다. 본존불의 보수도 이 때 이뤄졌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외측수미단을 구성하는 보단 · 보탁 · 홍살 등은 17세기 이후 수미단 상부가리개 였다"며 "본존불 조성 당시 외측수미단은 없었다. 보수 등을 하는 과정에서 17세기 외측수미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주민 연구원은 "부석사 본존불은 소나무판 위에서 소조불을 만들어 소나무판 채로 대좌 위에 봉안하고, 후대에 그 판을 외측 수미단과 연결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헌학적 고찰과 과학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부석사 본존불의 원형은 확연히 밝혀지지 못했다.

이주민 연구원은 "현재 남아있는 방형대좌는 채색도 많이 박락됐고 파손이 심해 본래 모습과는 많이 달라 원형을 추정하기 힘들다. 다만 뚝섬출토 금동불좌상, 간송미술관 소장 금동삼존불감 등과의 비교를 통해 대체적인 윤곽만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석사 본존불은 턱에 살이 많고 전체적으로 풍만한 얼굴을 하고 있고 이마가 좁은 편이다. 두상을 촘촘히 메운 나발 가운데 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발들이 이마와 두피의 경계에 배열돼 있다.

이 연구원은 "경기도 춘궁리 소조불상 나발에서 불두에 고정시키기 위해 심을 박은 것과 접착제를 바른 것 등 두 종류의 나발이 발견됐다"며 "부석사 소조불상도 두 가지의 나발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본존불의 왼쪽 귓구멍과 달리 오른쪽 귓구멍이 막힌 것은 개금할 당시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주민 연구원은 "부석사 본존불은 얼굴과 턱에 살이 많은 편이다. 이는 부석사가 위치한 영주 근방의 북지리 마애불이나 가흥리 본존불 상호에서 보이는 모습과 유사하다"며 "이는 부석사 무량수전 본존불이 제작됐던 7세기 당시의 원형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부석사 본존불과 석굴암 본존불을 비교 고찰 했다. 부석사 본존불의 인상을 좌우하는 붉은 입술과 강한 눈썹선을 없애고 석굴암 본존불과 비교했을 때, 약간 눈꼬리가 올라간 눈, 도톰한 입술, 좁은 콧날, 전체적으로 엄숙한 인상 등이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이주민 연구원은 "부석사 본존불이 7세기 조성됐다면 석굴암보다 선행하는 불상의 범본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부석사 본존불은 석굴암 본존불과 함께 중요한 불상의 모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부석사 본존불은 화엄종찰이라는 부석사의 위상 때문에 석굴암 본존불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인근 지역 사찰의 불상 조성에 범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연구원은 "신라하대 9세기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의 선풍적인 유행에도 불구하고 부석사에서는 일승의 아미타여래만을 봉안했다. 이는 새로운 조류를 따르지 않았던 화엄종찰로서의 부석사의 정통성과 보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부석사가 의상의 종지를 받드는데 있어 충실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통합종단50주년 출범 기념 학술행사

불교사회硏 · 동국대 종학硏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학술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4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50년의 성찰과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조계종단 차원에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 중인 기념사업의 일환이다.

행사에서는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역사와 통합종단 출범의 의의'를, 법안 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이 '조계종 종헌종법의 형성과 변천'을, 영담 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이 '조계종의 교구제도와 사찰관리체계'를 각각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허정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김상겸 · 심익섭 교수(동국대)가 참여한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각각의 발제를 통해 17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가 근대 이후 조선불교조계종을 거쳐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이름의 통합종단으로 출범한 취지와 의의를 밝히고, 조계종 종헌종법 및 교구제도와 사찰관리체계의 현황과 나아갈 바에 대해 4부 대중 모두가 참여하는 고민과 모색의 장을 펼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7월에도 또 한 차례의 기념세미나 자리를 열고 대한불교조계종 50년의 활동과 역할을 조망하고, 21세기 한국과 세계 속 조계종의 과제와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종호)는 28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와 조계종'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황인규 교수(동국대)가 '전근대기의 조계종'(신라~조선후기)를, 김광식 동국대 연구초빙교수가 '근대기의 조계종'(1941~1962년)을, 법진 스님(前 해인사 승가대학장)이 '조계종의 이념, 그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한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통합종단 50년의 조계종1'을 통해 포교, 역경, 도제 양성 등 종단의 물량적 변화에 대해 조명한다.

김경집 위덕대 교수는 '통합종단 50년의 조계종2'를 통해 민중불교운동, 개혁운동, 1994년 종단개혁에 대한 긍정 · 부정적인 면을 고찰한다.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조계종의 이념, 그 내용과 특성'에서 조계종 종헌에 나타난 이념을 학술적으로 분석한다.

조동섭 기자

불교음악의 발전 방안 모색

계간 '불교평론' 4월 열린논단

불교음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할 때 대중이 그것을 합송(Samgati)하면서 생긴 율조가 그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오락적 성격에 대한 계율적 규제로 인해 불교음악은 대중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전법교화의 수단으로서 음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용성스님 등 선각적 고승에 의해 현대적 찬불가 제작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불교음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린다.

계간 불교평론(주간 홍사성)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4월 19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토론광장 〈열린논단〉 4월 모임을 개최한다.

'현대불교음악의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윤소희 박사(동국대 예술문화대학원 외래교수)가 발제한다.

윤 박사는 발제를 통해 ▷찬불이라는 신앙적 측면의 불교음악 ▷치유와 명상적 측면의 불교음악 ▷대중음악으로서의 불교음악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02)739-5781

조동섭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4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5월 1일(화요일)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21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크신 분을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21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공모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시 상 내 용	인원	상금
학술상	**불교와 불교학 발전에 뛰어난 학술연구저서(역주 포함)를 출간하신 분** 심사대상 : 2011년 7월 ~ 2012년 6월까지 최근1년내 출간된 학술연구저서	2명	각 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서화 부문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심사대상 : 최근 2년이내의 실적물		

2. 시 상 일
2012년 9월 24일 월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1부
이 력 서(명함판사진 2매) 1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 1부

4. 접수처 및 접수 방법
①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 사무국 (우 137-877)
② 접수 마감 : 2012년 6월 30일
③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 E-mail 접수 : runner333kr@naver.com

5. 수상자 발표
2012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 02)586-6521~2, fax 02)521-994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법정 스님 무소유 실천 공간 문 열어

맑고향기롭게, 광주에 공양나눔의집 개소…1000원 밥상 자비행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는 공양나눔 공간이 광주에서 문을 열었다.

맑고 향기롭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현)는 4월 8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인근 지산동에 공양나눔센터를 건립하고 매일 독거어르신과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나선다. 이 공양간은 법정 스님이 쓴 책 등의 수익금으로 마련한 공간이다.

공양나눔센터는 5, 6월경부터 주말을 제외한 매일 점심 소외계층 100명에게 '1000원의 밥상' 을 제공할 예정이다. '1000원의 밥상' 은 1식 3찬으로 구성돼 있으며 먹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1000원을 기부하면 된다.

공양나눔센터는 법정 스님이 사람들에게 받은 것을 다시 베푸는 나눔의 일환이다. 공양나눔센터 전세금 5000만 원과 탁자·의자 등 시설비 14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 등 7400만 원은 〈무소유〉 등의 인세 수익금에서 지원됐다.

이금지 운영위원장(광주지부)은 "법정 스님께서 '시주은혜 빚을 꼭 갚아야 한다' 는 말씀을 실천하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백반 값 1000원은 법정 스님이 생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더라도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 는 말을 강조하셨던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공양나눔센터는 지하 1층 264m²(약 80평) 공간으로 주방과 사무실, 식탁을 마련해 5~6월 경 개원식 겸 작은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양나눔센터는 맑고 향기롭게 전국 6개 지부 중 처음으로 설립됐다. 광주·전남지부가 1997년부터 15년간 독거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80명에게 매일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는 등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새벽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 1일 4명 씩, 총 20여명의 도시락 봉사회원이 각 복지관을 돌며 광주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동안 점심 도시락 제공은 회원 250명의 후원금과 자원봉사자 20명의 손길로도 가능했지만 공양나눔센터 사업을 펼치려면 연간 운영비 5000만원과 자원봉사자 50명이 확보 등이 절실하다.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김용덕 씨는 "얼마 전 돌아가신 지원 대상 어르신이 남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갑니다' 는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며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매일 배우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 스님의 저작 수익금은 고등학생 31명 1년 학비 6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년째 장학 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양나눔센터 봉사자들이 밥을 푸며 웃고 있다.

천태종 대구 동대사 개원 4주년

대성사 주지 유정 스님 주지 겸해

천태종 대구 동대사(주지 유정)는 4월 10일 개원 4주년 기념법회 및 주지 이·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2대 동대사 주지에는 대성사 주지 유정 스님이 취임했다. 유정 스님은 대구 대성사와 동대사 주지를 겸임한다.

동대사 전 주지 도산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대구 대성사 주지를 맡아 2007년 7월 개원부터 대구 대중·생활불교 복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동대사가 위치한 '비내리는 고모령' 이 이제는 '햇볕내리는 고모령' 이 되었다고 자평한다"며 "신도님들이 초심 그대로 일심청청으로 부처님법 따라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임주지 유정 스님은 도산 스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동대사가 부처님의 정법이 넘치는 생활도량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한다"고 발원했다.

이어 유정 스님은 "무엇 하나 티끌 붙지 않은 공(公)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의 눈을 크게 뜨기 위해서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욱 끝없는 노력과 수행이 필요하다"며 "동대사 신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선각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파라미타 2012년 발대식 개최

부산 파리마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는 4월 8일 부산 초읍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부산파라미타 부총재 심산 스님(흥법사 주지), 김석조 부산시의회 수석부의장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 신입회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파라미타 고등부회장에는 가야고등학교 2학년 이승헌 씨. 중등부회장에는 금정중학교 3학년 이재성 씨가 각각 임명됐으며 지도교사도 선임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부산 여성불자회 장학금 전달식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연자)는 4월 11일 부산불교연합회 법당에서 백명숙 부산파리미타 협회장을 비롯한 학생 30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여성불자회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왕연자 부산여성불자회 회장은 "18년간 장학금 후원에 동참해준 회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향후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여는 등 부산여성불자회가 번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

서울 법성종 대성사(주지 덕암, 법성종 종정)는 4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대성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주지 덕암 스님은 "불암산에 위치한 수도사 일운 스님이 1988년 7월 인도에서 가져와 보관하던 진신사리"라며 "인연되는 불자들과 이웃들이 동참해 부처님 사리를 친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62-2459 **노덕현 기자**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문화역사기행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 가람순례단은 4월 7일 진주 청곡사와 진해 대광사에서 전통문화역사기행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40여 다문화가족들은 주지 회일 스님으로부터 한국불교 특성과 사찰예절을 배우고 진해벚꽃축제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회일 스님은 "다문화가정이 100만을 넘은 현실에서 서로의 문화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호혜적 관점의 교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등산 풍경소리 100회 맞아

4대종교 성직자들이 모여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음악회' 를 만들어가고 있는 무등산풍경소리 음악회가 100회를 맞이했다.

사단법인 무등산풍경소리(공동대표 연광. 증심사 주지)는 4월 14일 100회 공연을 맞아 6~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우리가 부른 노래들-무등산풍경소리 100회 기념 기록전시' 를 개최했다.

2002년 7월 첫 회를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씩 증심사 특설무대와 성당, 원불교, 교회에서 열린 풍경소리 음악회는 김두수, 한승원, 열반하신 일철 스님(전 증심사 주지)을 첫 손님으로 시작해 700여명의 노래손님과 이야기손님이 출연한 문화행사이다.

특히 촛불집회. 4대강반대집회와 같은 사회현실의 현장에 시민들과 종교가 공감하는 음악무대를 만들었다.

6일부터 시작된 이날 전시회는 1회 공연 사진부터 무등산 풍경소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파노라마 사진으로 담은 전시회로 마련됐다.

기념 공연으로는 수묵화 '참새'로 유명한 문인화가 박태후의 퍼포먼스와 소프라노 박계 조선대 교수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김현옥의 연주가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동종 종조 양개 스님 다례제 봉행

승정원장 심월 스님 취임식도 함께 진행

대한불교조동종은 3월 29일 서울 노원구 도선사에서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한 200여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조동종 종조 동산 양개 스님 다례제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제에서는 승정원장으로 임명된 심월 스님의 취임식도 함께 봉행됐다.

다례제는 부종정 덕룡 스님의 사회로 동산 양개 스님의 행적 소개가 진행됐으며 종회의장 혜륜 스님의 발원문 낭독이 이어졌다.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이 이 산사에도 전해져 〈화엄경〉의 산하 대지에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을 깊이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승정원장에 취임하는 심월 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스님, 신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토구현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불교 최초 호스피스 자제병원 상량

10월 지하1층 지상3층규모 완공

정토사 관자재회(이사장 능행)는 4월 1일 울산 정토마을에서 불교 최초로 완화의료 전문 병원인 자제병원 상량식을 개최했다.

정토사 관자재회는 말기암 및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위해 2000년 충북 청원군에 불교계 최초의 호스피스 시설인 정토마을을 개원한 이후로 2005년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에 완화의료 전문 자제병원 건축부지를 마련하여 불사를 시작했다. 현재 50%의 공정으로 10월 완공되며 2013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이 날 상량식에는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부산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 강길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법문했다.

이사장 능행 스님은 "15년 전 수행과 돌봄이 하나 된 행복공동체가 나만의 꿈인 줄 알았는데 오늘보니 여러분들과 함께한 꿈이었다"며 "그 뜻을 소중히 생각해 현실로 만들겠다"고 인사했다.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은 "세계 최초 완화의료 호스피스 자제병원은 울산의 자랑"이라며 "전인적 돌봄으로 중증환자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축원에서 "통도사에서도 자제병원의 심오한 큰 뜻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드라 스님과 함께하는 '나도 가수다' 등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4월 1일 열린 불교최초 호스피스 전문병원 울주 자제병원 상량식

불교와 도문에는 외롭고 가난한 자만이 성불 득도 하여 최고 도인 신선되는 마음찾아 운명과 수명연장하는 육경신수행 대용맹정진 및 부처님 불상 미간 백호에 진법의 자성문현관 찾는 천지공사 명부공사 진법전수

지구촌 천지개벽으로 동방의 빛이 지구촌을 비추니 대한민국 운이 전세계를 비추어 만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하늘이 내리신 대자연의 이비법은 도를 따라오는 자만이 사는 시대가 오는 것이며 즉, 피라미트의 천지공사인 것이다.

◆중생들은 과거에 업장과 지은 공덕이 부족 수명이 짧고 병마로 고생하며 비구 비구니 중생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업연으로 성불 득도가 없으며 염불 목탁 화두 정진 수행으로는 자성을 볼수 없기에 무여 열반 뒤에 제도한다하셨고 방편 불교 후 후 500세 지계 수복자에 의하여 진법 사구계인 수육 보 영 사계와 진종도 민족업, 봉천명, 9자인 사구계로 유불선이 하나 되는 중생들을 제도 세계 평화 불국 정토로 광신 유포하는 천하 제일의 대 비밀장인 것이며 부처님의 초능력으로 천지공사 및 명부공사하여 생명의 문인 현관찾아 득도하는 것이다.

천지 공사란

천은 평생해도 안되는 성불의 심종자 태양 입법계 자성문인 마음이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지**는 부모님에게 육신을 받은 공덕과 진빚을 갚으려고 육신의 법당에 들어가는 현관에 주인 만나는 문을 두드려야 유아독존 나를 찾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공사는 찾고 있는 내부처가 현관은 만났으나 폐쇄되어 각종 파충류와 귀신 마귀들이 침범 못하도록 하는 공사이며 염불, 독경, 화두, 정진 등 수행으로는 고행인 것이며 출입문은 오직 현관뿐인 것이다.

명부 공사란

자신의 명을 지키는 명부 운명을 관장하는 삼신은 무간번뇌 죽엄 마구니와 견직 노은 저승 사자들에게 미리 빽을써서 생에에 관제 삼제 팔난고통 악연을 미리막는 명부에 공사하여 출세 급제 통솔 건강 도통 생명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은 살은 나무를 봄에 심듯이 금년 윤달은 60년 만에 임진년 윤달 3월 2일(양력 4월 22일)과 29일 양일간 자시와 오시에 입제하오니 평생에 한번 만나는 법회에 동참하시어 종교 종파 교주를 초월 성불 득도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생에에 최고 스승되어 세계 평화와 행복은 오직 천지공사 해인도법인 잣대는 삼마구니와 삼사자를 제도하는 비법은 오직 진태인 인것이다. 특히 임진년 용띠생 회갑을 동참으로 명부 공사 하오니 회갑이란 다시 자손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며 세월이 지나 못한 분들은 양력 4월 22일 일요일 (윤3월2일) 정오에 잔치 동참금 15만원으로 49일동안 법당과 셋 마구니와 셋 사자들에게 제물과 촛불을 밝히며 회갑기념으로 진법연화경 책보시도 접수함.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성불득도 천지공사입제일 4월 22일 윤 3월 2일 일요일 오시
■경신 천이통
입제일 – 2012년 4월 28일 윤 3월 8일 토요일 해시
회향일 – 2012년 4월 29일 윤 3월 9일 일요일 해시
■동참비 : 천지 명부공사 합 150만원 49제는 성불득도 및 생명연장법 전수
■부부 및 개인 33만원 49재 7.7재 살아있는 생전예수재 기도비.
※본 도량은 석가세존상 만불을 모신 기도소원성취도량 입니다.

농협 029-01-167866 곽한영(태일) / 팩스번호 02)821-7768
상담전화 : 02)821-6622, 010-3239-3110
천지공사 응조 미륵 달마 경신 도통회 010-9781-5113(총무)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종 총본산 환성 태일대종사 합장
서울 부산 동시법회 : 사단법인 대한불교 달마조계종 교육원 경문사
상담전화 : 051)635-3110, 010-8533-1601 보현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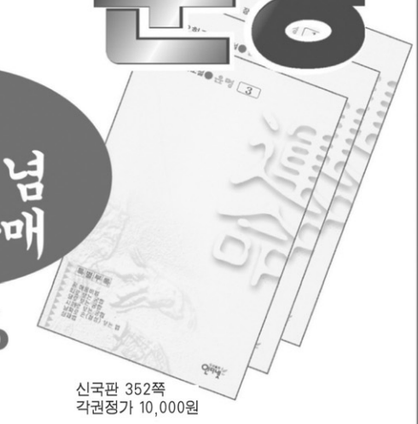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운大吉運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吳 熙 奎
· 백암 철학원 원장
· 전남 도민신문 이주일의운세 담당자
· 월간 직업뉴스 이달의 운세 담당자
· 월간 호남인 이달의 운세 담당자
· 월간 웨딩센스 이달의 운세 담당자
· 월간 작은소리 이달의 운세 담당자
· 월간 예향 생활철학 이야기 연재
· 전남 매일신문 오늘의 운세 담당자
계간 "행복채널" 발행인
2005 미스코리아 광주, 전남 선발대회 심사의원
2005 엘리트모델 광주, 전남북 선발대회 심사의원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내림이야기
주벽이야기
의처증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우리음식 궁합이야기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운명의 대부분은 욕심의 반대쪽으로 휜다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2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 374-2번지

※ 책을 구입하신 분께는 가시오가피 1박스(1만원)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조계종 통합 종단 50년 내일을 위한 핵심과제 7

〈1〉포교

경전읽기·미디어·계층포교·인재불사 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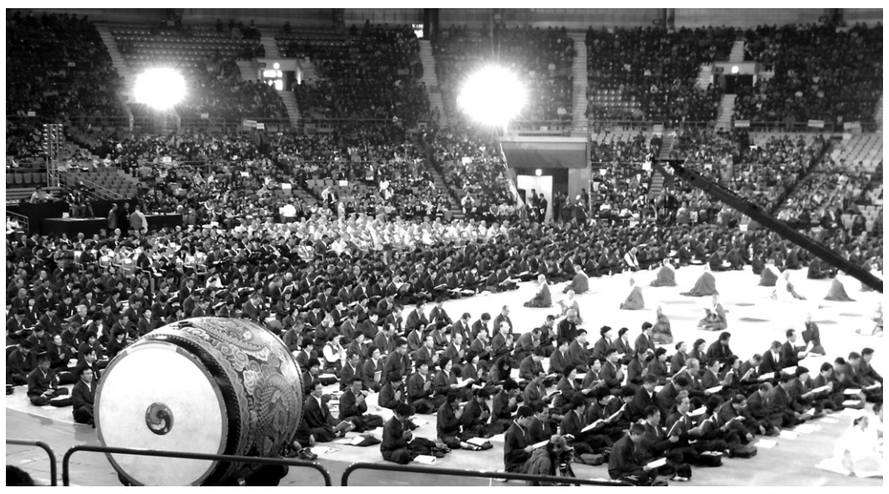
포교는 3대지표 중 첫번째
사부대중 한마음으로 전법 나서야
뉴미디어 활용 네트워크 형성 중요



2010년 11월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조계종 5대결사의 하나인 나눔결사의 일환으로 사랑의 연탄나누기가 진행중이다.


2011년 9월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총무원장 자승 스님(오른쪽 끝)

한국불교 장자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통합종단으로 출범한 지 출범50주년을 맞았다.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계승해 1962년 출범한 이래 포교·역경·도제양성을 3대 지표로 삼아 발전을 거듭해 왔다.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조계종 3대 지표인 포교, 역경, 도제양성을 비롯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7가지 핵심과제를 교계인사와 전문가 제언으로 점검해 본다.


2009년 11월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포교결집대회에는 1만여 사부대중이 모여 전법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그 처음으로 '포교' 부문을 살펴본다.

조계종은 3대 지표 선포 당시 포교사업 추진계획으로 ▷교도단체 지도체제 확립 ▷순회포교 및 선전 ▷종군포교 ▷포교사 재교육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계획의 실천에는 1962년과 1963년 잇따라 제정된 '포교법'과 '신도단체법', '신도법'이 기반이 됐다.

제도적 지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종단 예산은 종단의 포교종책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포교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94만원. 포교원의 2012년도 예산 27억여 원과는 비교가 안되는 금액이지만 당시 종단 총수입이 1000여 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3대 사업을 위해 책정한 금액이 300만원이었다는 것은 3대 사업에 대한 종단의 기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부대중은 포교에 힘을 모았다. 교법수호전국신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룸비니회 삼보학회 등은 포교 최일선에서 전법에 앞장섰다.

포교를 위해서는 불교의 대중화가 절실하다는 의식은 학인스님들도 나서게 했다. 동국대 석림회는 1973년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해 전국 순회설법을 펼쳤다. 중앙상임포교사들도 전국 각지를 다니며 불교사상강연회를 열어 불교의 대중화를 도모했다.

1970년대 활성화되기 시작한 불교교양대학도 포교에 큰 보탬 됐다. 불교교양대학은 1972년 서울신도회가 불자의 자질 향상과 교양 확충을 위해 개설한 이래 오늘날까지 '불교대학'으로 이어지며 불교인재 양성 요람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1971년 순천 송광사에서 시작된 사찰여름수련회는 한국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의 단초가 됐다.

포교활동이 대중화되면서 산중불교는 도심불교로 탈바꿈하게 된다. 1982년 창건한 불광사가 그 예이다. 불광사 창건에 즈음해 시작된 현대식 도심포교활동은 수도권 일대의 잇단 도심포교당 개설로 이어지며 포교의 현대화를 도모하게 됐다.

조계종의 포교는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1966년 숭산 스님이 일본에 설립한 홍법원은 조계종 해외포교의 시발이었다. 스님의 원력은 해외포교에 원력을 둔 후학들에게로 이어져 지금도 간화선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을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추진중이다.

1995년 포교원 별원은 조계종이 3대 교시의 구현을 위해 역량을 재결집한 사례로 기록된다. 포교원 별원으로 조계종은 보다 전문적인 포교종책을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포교원 별원화 이후 포교를 위한 제도 개선이 다양하게 시도됐다. 또, 사회조류에 부응하는 포교방편 연구 및 개발, 신행단체 등 포교주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효율을 꾀하고 있다.

조계종 통합종단 50주년을 맞아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 계간 〈불교평론〉 홍사성 주간,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에게 포교를 위한 제언을 들었다.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라"


송묵 스님


홍사성 주간


김응철 교수

문서포교

전문가들은 문서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여러 포교기법 가운데에서도 문서포교는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사성 주간은 "경전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준거이다. 불교 이해의 준거는 큰스님 법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주간은 "불교를 말할 때 경전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법(私法)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교를 멋대로 해석하게 되고, 결국 정법과 멀어져 자기만의 불교를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통합종단 출범 이후 50년 동안 문서포교의 양은 획기적으로 늘었지만, 콘텐츠의 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홍사성 주간은 "1960~1970년대 불교학개론서가 10여 종이 못됐던 것과 비교해 지금은 읽을 책이 넘쳐난다. 지금은 수많은 책 가운데 옥석을 가릴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응철 교수는 법회에서의 설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회가 의례로 전락하다보니 대중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없었고 이것이 결국 사찰을 멀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홍 주간도 "공양 등 재시를 받으면 반드시 설법 등 법시로 돌려줘야 하는데 이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 결국 문서포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교계 언론이 사찰 매매, 역학 등 광고를 싣는 등 정법과 멀어지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교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미디어포교

전문가들은 포교가 성공하려면 기다리는 포교가 아니라, 찾아가는 포교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찰의 산중 편중 등 불교계의 빈약한 포교 인프라를 극복하는 데에는 SNS 등 뉴미디어 포교만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응철 교수는 "불교는 이웃종교와 비교했을 때 신문, TV,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에서 뒤쳐져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이 SNS에 있다"고 말했다.

송묵 스님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에 주목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과 함께 1배씩 하다보면 108배가 대중화될 것이라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송묵 스님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등을 통해 불교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불도 놀이 등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린이포교 등 계층포교

불교계의 문제는 출가자, 신도 등 구성원의 고령화이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이웃종교에 비해 열악하다. 군포교 역시 문제가 많다.

김응철 교수는 "신세대에게 접근하려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어린이법회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어린이법회를 이끌고 있는 사찰이 있다. 김 교수는 "스님이 쉴 새 없이 문자를 보내고, 콘텐츠를 전하는 곳은 어린이법회가 잘 운영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응철 교수는 "단순히 소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라포(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콘텐츠의 맞춤 제공도 필요하다.

송묵 스님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더라도 어린이·청소년·성인용 등으로 타켓을 정해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강 등 계층별 이슈를 해소해주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스님은 노인 포교를 위해서는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해외포교

한국불교의 세계화로 대변되는 해외포교는 세 가지로 나뉜다.

김응철 교수는 "①해외교민 포교 ②해외현지인 포교 ③국내이주민 포교로 나눌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불교는 해외교민 포교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지 출가자 등 해외포교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거점 사찰 등을 지정해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재불사가 해법

전문가들은 "포교에 여러 주제가 있어도 결국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홍사성 주간은 포교활동을 하는 대상 이전에, 포교를 통해 길러지는 인재에 주목했다. 홍 주간은 "지혜를 갖추고 자비를 실천하는 인간을 길러냄을 포교의 목적이라고 할 때 이런 사람을 얼마나 만들어 냈는지는 돌아볼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김응철 교수는 "SNS가 포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대포교는 콘텐츠의 싸움인데, 콘텐츠를 생산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콘텐츠 개발 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해서는 신세대 불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묵 스님은 "포교원은 발심품계법회 등을 통해 획일화됐던 신도교육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며 "신도 등록을 통한 혜택 현실화, 원찰갖기 운동 등을 통해 등록신도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조계종 주요 포교연혁

1962년 4월 11일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 개원
1962년 12월 14일 조계종 불교단체 등록
1962년 12월 28일 제2회 중앙종회 개회(교육법·포교법 제정 공포)
1963년 9월 13일 조계종 신도회, 불교단체 등록
1966년 11월 제8차 세계불교도대회 참가(태국 방콕)
1967년 1월 25일 조계종 군승추진위원회 발족
1967년 4월 15일 전국신도회 전국 24개 교구단위 신도회 조직완료
1970년 7월 7일 제1회 불교미술대전 개최
1970년 10월 10~15일 서울에서 세계불교지도자대회 개최
1971년 4월 교화제도연구위원회 발족
1971년 12월 1일 조계종 흥콩 홍법원 개원
1972년 7월 29일 조계종 전국신도회, 서울 신도회 창립
1972년 10월 22일 미국 노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시에 재미홍법원 설치
1973년 8월 26일 제2차 세계불교청년지도자 대회 개최
1975년 1월 14일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1975년 7월 17일 제1회 불교예술 경연대회
1975년 8월 1일 조계종 호국승군단 헌장, 종령 공포
1975년 12월 17일 조계종, 호국승군단 발단
1977년 3월 6일 포교원 개원 및 초대포교원장 석주 스님 취임
1978년 10월 1~15일 제12차 세계불교도대회 참가
1981년 3월 19일 포교원 설립
1982년 3월 12~14일 제1회 포교사 연수회 개최(도선사)
1983년 4월 한일불교교류협의회, 한일불교대회 개최
1983년 10월 3~6일 한국불교문화교류협의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개최
1986년 3월 28일 총무원, 경승제 실시 촉구
1987년 1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경승단 발대식
1988년 1월 27일 제1회 포교대상 시상식
1988년 4월 21일 제1차 포교사 재교육 실시
1990년 10월 2일 제1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
1990년 11월 3일 제1회 불교문학상 시상
1991년 2월 7일 군종창설 40주년 기념식
1991년 3월 16일 전국교법사단 창단
1993년 6월 5일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단법인 설립인가
1995년 1월 20일 포교원 개원
1995년 5월 21일 제1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개최
1995년 10월 29일 제1회 포교사고시 실시
1996년 3월 12일 제1회 불교교양대학 대표자 회의
1996년 5월 12일 파라미타 발대식(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1996년 9월 14일 전국방송인불자연합회 창립
1996년 10월 6일 청와대 불자회 창립법회
1997년 2월 24일 포교원 '전법의해' 선포식 및 10대 사업계획 발표
1997년 3월 15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법회
1998년 4월 11일 전법의 해 조직위원회, 전법도량 현판식 및 순회법회 봉행
2000년 9월 27일 신도교육위원회 발족
2000년 11월 27일 포교원,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001년 5월 14일 포교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2001년 10월 21일 전국 경찰 불교회 창립식
2001년 11월 13일 신도기본교육 캠페인 발대식
2001년 11월 30일 대전 계룡대에서 군불교위원회 출범
2002년 5월 11일 김천 직지사에서 첫 템플스테이 실시
2002년 5월 20일 템플스테이 사무국 개설
2002년 6월 20일 신도전문교육 고불식 봉행
2002년 8월 20일 군법당 종단 등록제 시행
2002년 12월 1일 제1회 자비의 선물 보내기
2003년 6월 18일 신행정보센터 개소
2003년 9월 1일 해외입양인 템플스테이
2003년 12월 26일 제1회 청소년등공모전
2004년 5월 26일 제1회 불자대상 시상
2005년 1월 26일 포교원, 포교비전 발표
2005년 7월 25일 군종특별교구 출범(교구장 일면 스님)
2006년 1월 7일 포교원, 포교전진대회
2006년 3월 28일 제1차 포교종책연찬회
2006년 11월 11일 어린이 포교 전진대회
2007년 1월 1일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팀 신설
2007년 2월 1일 어린이포교 콘텐츠 개발
2007년 2월 25일 제1회 불교어린이지도자 고시
2007년 6월 1일 전국교육경영직불자연합회 '푸루나' 창립법회
2007년 10월 20일 선으로 만나는 사찰음식 체험전 개최
2008년 1월 2일 어린이포교 사이트 오픈
2008년 1월 12일 어린이불교영어 암송대회 개최
2008년 1월 20일 제1회 불교상담심리사 자격고시 시행
2008년 9월 30일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창립식
2008년 12월 5일 제5회 불교출판문화상
2009년 3월 10일 어린이청소년 포교중심도량제도 시행
2009년 4월 1일 포교원, 새신도증발급
2009년 4월 8일 조계종 전법회관 개관식
2009년 4월 21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개관식
2009년 6월 10일 어린이청소년 포교중심도량 62곳 선정
2009년 7월 11일 어린이청소년 포교전진대회
2009년 7월 12일 제1회 포교원장배 축구대회
2009년 9월 26일 제1회 청소년지도사 고시
2010년 2월 6일 어린이영어법회 교재 개발
2010년 6월 10일 자비나눔 캠페인 '만행' 선포식
2010년 8월 15일 직할교구 신도회 창립
2010년 10월 25일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2010년 11월 5일 나눔결사 길천(홍제3동 개미마을)
2010년 11월 15일 국제선센터 개원
2011년 4월 29일 조계종 전법단 출범 1주년 기념식
2011년 8월 31일 신도멤버십센터 개소
2011년 9월 25일 제1회 템플스테이 논문공모전 시상
2011년 11월 22일 종단 최초 앱북 템플스테이 출시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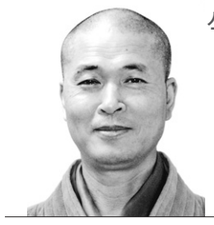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나무와 산은 움직임이 없다

조주 스님은 문하 대중에게 설법했다.

"조금이라도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하는 분별심이 일어나면 곧 본마음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응할 말이 있는가?"

어떤 스님이 나오더니 사미승을 손바닥으로 한대 치고는 그냥 나가버렸다. 스님은 곧 방장실로 돌아갔다. 다음날이 되어서 시자에게 물었다.

"어제 그 스님은 어디에 있는가?"

시자가 말했다.

"그때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30년이나 말을 탔는데 당나귀에 내동댕이질 당하다니."

師示衆云 纔有是非紛然失心 還有答話分也無 有僧出將沙彌打一掌 便出去 師便歸方丈 至來日問侍者 昨日者師僧在什麽處 侍者云 當時便去也 師云 三十年弄馬騎 被驢子撲

30년 동안 말을 탔다고 말한 것은 80세 이후 조주 동쪽 관음원에서 교화를 편지 30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본 문답이 이루어진 시기가 110세 임을 알게 해준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고 따지는 사람은 진실을 모르는 자이다. 평생 시비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죽을 때가 다돼도 도에 대해 조금의 이해도 못하는 것이다. 진실을 아는 자라면 절대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모든 붓다들도 다 그랬다. 여기에 대해 그 누가 감히 대응할 수 있단 말인가?

조주 문하에는 이에 대응한 걸출한 인재가 있었다. 그 인재는 조주 스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사미를 한 대 치고 그냥 산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잎 따고 가지 치는 소졸한 심량이 아니다. 가히 임제 스님과 같은 기상이 있다. 부처와 조사를 한 구덩이에 몰아넣고 덮어버릴 기개이다. 그는 하늘 아래 '유아독존(唯我獨尊)'이다. 이름하여 '참 부처'이다. 아무도 그를 가사와 발우로 속박하지 못할 대자유인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걸출한 인재는 있는가? 조주 스님과 천하종사를 내동댕이칠 기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말해보라. 그대 자신은 무엇인가?

학승이 물었다.

"이처럼 찾아온 사람을 노스님께서 교화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교화한다."

학승이 말했다.

"이처럼 찾아오지 않는 자도 노스님은 교화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교화한다."

학승이 말했다.

"이처럼 찾아오는 자는 노스님의 교화에 맡깁니다만,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 자를 노스님께서 어떻게 교화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만둬, 그만둬! 말할 필요가 없어. 나의 법은 불가사의해."

問 與麽來底人 師還接也無 師云接 云不與麽來底人師還接也無 師云接 云與麽來從師接 不與麽來師如何接 師云 止止不須說 我法妙難思

기차를 타고 여행 해보면 틀림없이 주변의 나무들과 산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기차가 중지하면 나무들과 산은 본래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나무와 산은 움직임이 없다. 이처럼 세상은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 이미 구원되어있다. 이미 완전하다. 모든 사람은 다 붓다이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 탐진치(貪嗔癡) 삼독으로 움직임을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만약 움직이는 마음만 쉰다면 본래 아무 문제없는 세상의 진실이 나타난다.

조주 선사는 깨달은 붓다이다. 찾아온 사람은 당연히 교화한다. 깨달은 자가 있는 이상 찾아오지 않아도 그를 교화한다. 그래서 선사의 법은 불가사의하다. 그러면 찾아간 자가 이미 부처인데, 다시 또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내방자의 질문이 문제라고 하겠다. 궁금증은 고요한 호수에 파문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수행자에게 궁금증은 가장 큰 장애이다. 그러나 이 장애를 통하여 도(道)를 이룬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10〉

팔정도-②정사유(正思惟)

욕심 · 분노 벗어나 바르게 판단하는 수행

흔히 현대사회를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신문, 텔레비전, 잡지, 인터넷 등에서 끊임없이 정보가 흘러넘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의 유입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정보를 쫓아가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른 채, 오늘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다. 판단력은 흐려지고, 거짓 정보에 일희일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바른 판단에 관련된 불교 수행법이 바로 팔정도의 정사유(正思惟)이다. 정견(正見)에 이어 두 번째 실천덕목인 정사유는 바른 사유, 즉 바르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한국어에서 '사유(思惟)'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으로, 개념 · 구성 · 판단 등을 하는 인간의 지적 작용을 말한다. 이에 비해 불교에서 사유는 '분별(分別)'을 가리킨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량분별(思量分別)'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대상을 나누고 쪼개어 식별한 후 그것에 대해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을 의미한다. 즉 대상을 주관적으로 분석한 뒤에 좋은 것과 나쁜 것 등을 나누는 판단 작용이다.

이 판단 작용, 즉 분별심(分別心)은 눈에 보이는 물체를 대상으로도 일어나지만 진리, 신(神) 등과 같은 추상적인 것을 대상으로도 일어난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사유'와 현대 한국어의 사전적 의미의 '사유'는 크게 다른 말이 아니다. 다만 불교에서는 무명에 싸여 탐(貪) · 진(瞋) · 치(癡) 삼독(三毒)에 빠진 중생들이 사유하게 되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왜곡해서 보게 되고, 그로 인해 항상 번뇌를 일으키게 되므로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명 속에 있는 '중생의 사유'에 한해서일 뿐이다. 그래서 사유는 바르게 해야 하며, 바른 사유를 통해야만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사유'의 큰 틀에서의 첫 번째 의미이다.

정견(正見)에 의해 사성제를 바로 알고,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향해 있다면 매순간마다 생각하는 방법도 바르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욕망, 분노 등에서 벗어나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즉 정사유는 정견을 얻은 뒤에 그것을 깊게 사고하고 음미하며 되새기는 노력을 가리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견'한 후, 그 가르침이 정사유를 통해 내면적으로 깊이 성찰돼야만 다음의 팔정도 정어(正語) · 정업(正業) 등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학습한 이론을 몸으로 체득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도 같다. 정견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이치를 바르게 보았다면 다음에는 본 그대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 올바른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주석경(註釋經)〉에는 탐욕이 없는 생각, 분노가 없는 생각, 살아있는 것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생각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하고 있다. 즉 욕심, 분노, 해치려는 마음이 없는 생각이 정사유인 것이다.

이것은 삼화(三火)라고도 불리는 삼독을 다스리는 마음과도 같다. 정사유는 삼독의 탐진치(貪瞋癡)를 다스리는 마음 수행도 되는 것이다.

〈법구경(法句經)〉에도 '탐욕과 같은 불길이 없고, 노여움과 같은 죄도 없으며, 미망에 비할 그물[속박]도 없다'고 설하고 있는 것처럼 삼독심은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독소이다.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인 삼독을 정사유를 통해 다스리게 되면 다른 생명에 해를 끼치는 마음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자비심도 솟아나게 된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생각을 버리고, 악한 마음이 생겨날 싹조차 사라진 바른 사유가 정사유이며, 늘 자비심에 머무는 것이 정사유인 것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그림 · 박구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⑮



여래는 사치스럽게 살지도 않았고, 정진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맛지마 니까야 26〉

그들의 칼은 언제나 급소를 향해서 찔러 들어간다. 여기에는 인정사정 봐줄 일은 없다. 정으로 서로의 처지를 공유한다는 것은 친구 사이에나 있을 수 있는 법. 한때 수행을 같이했던 길벗들에게, 이제 부처님은 '스승'으로서의 입장을 세워가려 한다. 그러니 어떻게 인정사정으로 봐달라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는 '스승'이 될 수 없다.

다섯 수행자들 역시 서슬이 퍼렇다. 격론과 격론의 진검승부 속에서, 이기는 자는 스승이되고 지는 자는 제자가 된다. 당시 인도종교계의 분위기가 그러하였다. 먼저 공격을 한 것은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은 부처님이었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는 불사의 경지를 성취하였다. 나는 가르치리라. 그대들에게 담마를 가르치겠다."(일아 역편,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그러나 저들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이내 날카로운 칼로 급소를 찔러온다. 부처님이 얻었다고 자임하는 불사의 경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뼈를 깎는 듯한 고행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탈을 얻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들의 반론은 그러한 취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 중에 뼈를 건드리는 말이 있다.

"그대는 지금 사치스럽게 살고 정진을 포기하고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도 이 말은 시급히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였던 것같다.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한 반론보다도 먼저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래는 사치스럽게 살지도 않았고, 정진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거의 항변(抗辯)으로 들린다.

정말 부처님이 얻었다고 하는 '불사의 경지'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쉽게 검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올라본 분이 아니라면 뭐라 말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다섯 수행자들이 불사의 경지나 담마(法) 자체에 대해서, 그 정당성 여부를 심판하겠노라고 나서지 못했음도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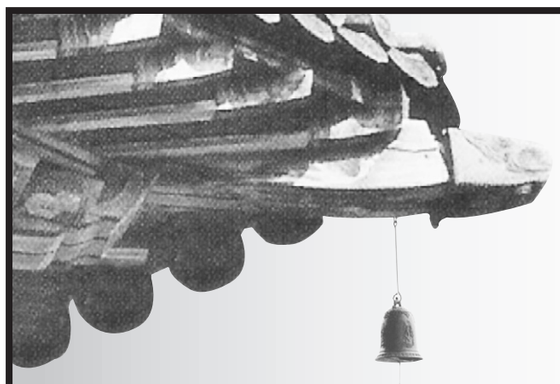
그보다는 쉽지만 안전한 길을 택한다. 수비를 하면서 공격이 가능한 방식이다. 당신은 이미 고행을 버렸다. 그러므로 사치스럽게 살았지 않는가? 정진을 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또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불사의 경지를 얻고 담마를 알게 되었다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논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착안해야 한다. 해탈 여부는 안에 있어서 쉽사리 보이지 않지만, 생활은 밖에 드러나 있어서 다 보인다는 것을. 생활의 문제, 사치를 했느냐, 생활이 풍요로운가 하는 문제는 누구나 쉽게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만큼 세속적인 것이다.

가난하게 산다고 도가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사치와 풍요로운 생활로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야 어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어떠한 이야기도 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을 부처님께서는 익히 알고 계신다. 그렇기에 먼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여래는 사치스럽게 살지도 않았고, 정진을 포기하지도 않았으며,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시대는 많이 흘렀다. 아무리 출가하신 스님이라 하더라도, 옛날 부처님이 살듯이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세속사람들로부터 사치를 하는 것으로,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부터 "나는 사치스럽게 살지도 않았고, 정진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사찰만치 물 좋은 곳 어디 있을까

샘과 수각(상)

우리나라 사찰만치 물이 좋은 곳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물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안목이 높은 옛 스님들이 물색한 터에 좋은 물이 없었을 리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수와 스님들이 즐겨 마신 찻물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찰의 터잡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석간수(石間水)가 나오는 곳이 많았다. 석간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돌 틈으로 솟아오르는 물이다. 화강암으로 구성된 지질구조를 가진 곳이 많은 우리나라는 돌 틈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석간수 형태의 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석간수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약수 중의 약수였다.

약수로 유명했던 사찰은 의외로 많았다. 약수로 유명세를 탔던 사찰로는 경주 석굴암, 장흥 보림사, 고성 옥천사, 경주 기림사, 하동 쌍계사, 고성 건봉사, 구례 천은사, 강화 정수사, 동두천 자재암 등이 있다.

좋은 물은 사찰터잡기 중요 요건
돌 틈서 나오는 석간수가 약수
석굴암, 옥천사, 건봉사 등 유명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수도 경주 동악(東岳: 토함산)에 있었던 요내정(遙乃井)에 대한 기사가 전해진다. 불교미술학자 故 장충식은 이 요내정이 석굴암의 자리를 잡는데 중요한 원인제공을 했고, 요내정 위에 석굴암을 건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샘물이 석굴암 내부의 습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사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입증된 바 있다. 실제로 1970년대만 하더라도 석굴암 안에 있던 요내정의 물을 바가지로 떠 마셨던 기억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찰에 있었던 샘물에 대한 기록은 이 요내정이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장흥 보림사 약수는 한국의 명수로 지정받은 약수 중의 약수이다. 샘물여행가인 최성민은 보림사 약수의 물맛을 감촉이 매끄러우면서도 깊이 음미하면 달착지근한 맛이 나는 유천(乳泉)이라고 평했다. 보림사 마당 한가운데 이 약수가 나는 샘이 있는데, 마당보다 낮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 샘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이나 그것의 구조와 형식은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다.

고성 옥천사에도 이름난 샘물이 있다. 옥천사라는 이름도 경내에 있는 옥천(玉泉)이라는 샘에서 유래된 것이다. 옥천사 옥천은 사시사철 샘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나오는데, 이 물로 차를 우려내면 그 맛이 일품이어서 특히 절집의 스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옥천사 스님들은 수각을 지어 샘의 수질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수질만큼은 예전처럼 유지되고 있다.

경주 기림사에는 오종수(五種水)라고 불리는 약수가 있었다. 오종수는 장군수, 오탁수, 명안수, 화정수, 감로수라고 부르는 다섯 종류의 샘물을 말하는 것이다. 대적광전 삼층석탑 옆에 있었던 장군수(將軍水)를 마시면 기개가 커지고 힘이 세어져 장군이 될 수 있고, 천왕문 안쪽의 오탁수(烏琢水)는 물맛이 좋아 까마귀들도 와서 쪼아 먹었으며, 천왕문 밖 명안수(明眼水)를 마시면 눈이 맑아지고, 후원인 화정당 옆 마당의 화정수(和靜水)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북암인 감로암 뒤뜰에 있는 감로수는 물맛이 달아 찻물로는 일품이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약수 중의 약수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기림사 오종수는 감로수 말고는 이미 자취조차도 없어지거나 샘의 형식이 변형되어 예전의 모습을 살피기 어렵다.

하동 쌍계사 금당영역에 있는 옥천(玉泉)은 물빛이 더욱 분명하게 암수색깔을 드러낸다. 왼쪽에 있는 암샘은 약간 흐린 듯 젖빛이 나며 물맛은 젖과 같이 부드럽고 달다. 오른쪽의 숫샘은 물빛이 투명하며, 차게 보이는데, 물맛을 보면 약간 떫은 느낌이 난다. 쌍계사의 본래 이름을 옥천사라고 지었던 것은 이 샘의 이름 때문이었던 것이다. 쌍계사 옥천 역시 원래의 형식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어 과거의 모습을 살피기 어렵다.

고성 건봉사는 봉황이 깃들어 사는 곳이다. 〈강희자전〉을 보면, "봉(鳳)은 솟아나는 단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非醴泉不食)"고 했는데, 그런 연유인지 건봉사에는 예천(醴泉)이라 불리는 샘물이 있다.

천은사(泉隱寺)는 샘이 숨어있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절이다. 창건 당시 천은사 앞뜰에는 물맛이 뛰어난 샘이 솟았는데, 이 물을 마시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여 창건 초엔 절 이름을 감로사로 불렀다. 이 절이 임진왜란의 병화를 극복하고 조선 숙종 4년(1678)에 중건되는데, 이때 절 이름을 천은사라고 바꿨다. 절 이름을 바꾼 사유를 보면, 중건할 당시의 어느 날 갑자기 샘물이 솟기를 멈췄는데, 알고 보니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수맥을 막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 구렁이를 잡아 죽였는데 그 뒤로는 샘이 솟질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샘이 숨어버렸다는 뜻을 가진 천은사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 샘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구례 화엄사에도 예의 약수가 나오는 샘이 있다. 이 샘은 범종각 북서쪽 산자락의 울창한 동백숲 아래에 있다. 샘의 이름은 옥천이다. 스님들의 말에 따르면 이 샘이 바로 화엄사 차 맛의 전통을 지켜온 샘물이라는 것이다. 화엄사 스님들은 요즘도 차를 우려낼 때 이 물을 쓴다고 한다.

경기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소요산 자재암 역시 원효대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으로, 나한전이 자리 잡은 동굴에 원효샘이라는 시원한 맛을 지닌 석간수가 솟아오른다. 차를 즐겼던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는 이곳을 지나다 자재암 석간수 물맛을 보고는 감탄하여 '원효가 찾아드니 돌 틈으로 단물이 솟고' 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그밖에도 우리나라 사찰에는 수많은 약수가 있고 그 약수를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샘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샘들 역시 우리나라 사찰의 경관적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경관요소가 아닐 수 없다.



청평사 샘물은 화강암 지반의 돌 틈으로 솟아나는 물이다.



기림사 오종수 가운데 하나였던 오탁수 샘의 변형된 모습



무량사 샘물. 공양수와 스님들의 찻물로 사용돼 왔다.



장흥 보림사 샘물은 한국의 명수로 지정 받은 약수중의 약수이다.



쌍계사 금당영역에 남아있는 암수쌍샘

봉행

부처님 진신사리·십대제자 사리친견법회 및 대원사 육화당(교육관) 낙성식

천년와불이 계신 청정 영험도량인 대원사에서는 육화당 낙성식을 4월 29일(윤 3, 9) 봉행합니다.

특히 이번 법회는 국운번창과 평화번영을 기원하는 부처님진신사리 및 십대제자 사리 친견법회 49일기도 입재를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사리친견법회는 국제지도자 협회 회장스님이신 목탁 혜은 큰스님께서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과 오랜 인연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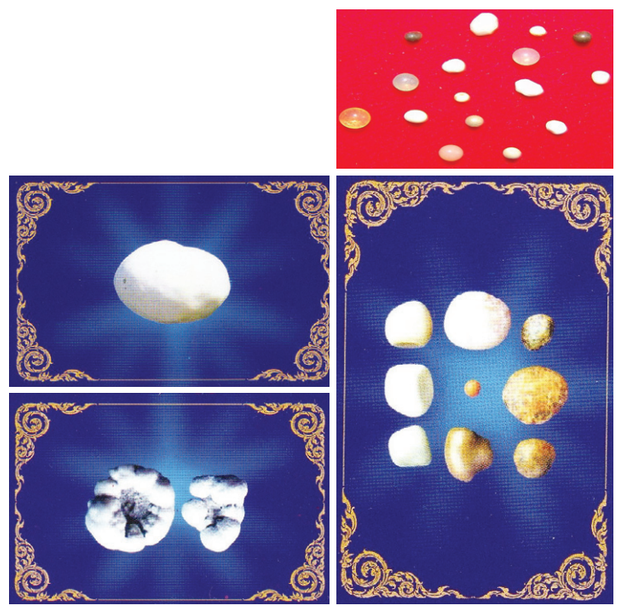
또한 사리친견법회 회향일인 6월 16일(음 4월 27)에는 생가마정수기 및 왕생극락발원영가 마정수기를 봉행 하오니 불자님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대원사의 오랜 숙원불사인 육화당 낙성식 및 진신사리 친견법회에 불자님의 가족은 물론 인연있는 친지, 이웃이 함께 무루 동참하시어 무진 겁 내로 지어온 업장의 굴레에서 벗어나 무량한 복락과 지혜를 얻어시길 발원합니다.

- 사리친견 및 낙성식 : 2012년 4월 29일 11시
- 친견법회 회향 및 마정수기 : 2012년 6월 16일 10시
- 마정수기 동참금 : 1인, 영가 1위, 삼만원
- 온라인 접수 : 농협 825021-51-062356 (대원사)
- 문 의 : 종무소 055)632-1028, 010-6369-119

육화당 낙성식 및 사리친견 법회

- 1부 낙성식 및 큰스님 초청법회
- 2부 축하공연

(출연 : 관무용단, 김태곤가수, 도현스님 하유스님, 전통예술단 등 다수출연)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포록산 대원사 주지 자 원 합장

① 벚꽃길 십리 그리고 쌍계사, 국사암, 불일암

언제부턴가 우리는 걷지 않기 시작했다. 문명의 이기가 걷기를 줄이고 세상과 세상을 좁혔다. 알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이 많아졌고 걷지 않는 만큼 삶의 속도가 빨라졌다. 그 빠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사색의 시간이 점점 줄고 있다. 주어진 세상의 속도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속도를 잠시 늦춰보는 일도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천천히 걷는 일을 생각해 본다. 잃었던 예전의 속도를 되찾고, 늦춰진 속도로 보아야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기 위해 길을 찾아본다. 이미 제주도의 올레길이 '걷기'와 '길'을 일으켰다. 절이 있는 둘레길과 절과 절을 잇는 길을 찾아 '걷기'와 '길'을 함께 시작한다. 첫 번째로 경남 하동 쌍계사 십리 벚꽃길을 찾았다. 그 길에는 쌍계사와 국사암, 불일암이 있었다.


화개장터에서 쌍개사까지 이어지는 십리 벚꽃길에 벚꽃이 만개했다. 벚꽃길 5㎞를 포함해 불일암까지는 약 12㎞이고, 3~4시간이 소요된다.


육조 혜능의 정상이 모셔져 있는 쌍계사 금당


진감국사가 머물다 입적한 국사암


쌍계사로 오르는 길

꽃 잎 날리는 봄날 걸음을 늦춰보자

온통 꽃 세상이다.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 이어지는 약 5km의 2차선 도로를 따라 벚꽃이 만개해 있다. '쌍계사 십리 벚꽃길'이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위치한 십리 벚꽃길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 100선'의 최우수에 선정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꽃길이다. 마침 하동군에서 개최하는 벚꽃 축제가 열렸다. 꽃길을 보러 온 사람들로 길은 발 디딜 틈이 없다. 꽃이 반, 사람이 반이다.

4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렸는데 축제의 마지막 날에 만개한 벚꽃길에 당도했다. 하동군은 매년 개화시기에 맞춰 화개장터 일대에서 벚꽃 축제를 개최했다. 벚꽃 음악회와 벚꽃 가수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화려한 꽃길의 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축제다.

대전서 왔다는 최귀섭(47)씨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보여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왔는데 아이들이 자연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아이들과 손을 잡고 꽃길을 걸었다. 쌍계사는 축제기간 중에 벚꽃길 걷기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가족 단위로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꽃으로 시작해서 꽃으로 끝나는 십리 길을 걷고 나면 쌍계사가 나온다. 지금부터의 길은 코스를 달리 할 수 있다. 쌍계사로 들어가서 국사암으로, 국사암에서 쌍계사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쌍계사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국사암으로 가서 국사암에서 쌍계사로 내려오는 길이 있다. 또 하나는 국사암에서 불일암과 불일폭포로 갔다가 쌍계사로 오는 길이 있다. 풀코스로 걸을 생각이 아니라면 쌍계사 대형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다녀오는 것도 방법이다. 위에 열거한 코스를 모두 걷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가 약 5km이고, 쌍계사에서 국사암까지는 약 0.5km인데 길이 쉽지만은 않다. 산길이고 곳곳에 경사도 있다. 국사암에서 불일암까지는 약 2km인데 이 길 역시 쉽지만은 않다. 불일암은 쌍계사 뒤 4km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보조국사의 시호를 단 불일암은 신라의 원효와 의상, 고려의 보보국사가 머물렀다고 한다. 벚꽃길에서 시작하는 길 전체는 약 12km이고, 모두 걷는다면 3~4시간이 소요된다.

찬란한 벚꽃길 십리 끝에 쌍계사
고단한 발길 받아주는 절마당
禪·茶·音의 성지 지나 다시 꽃길로

쌍계사다. 월요일인데도 관람객과 참배객이 많다. 마애불에 동전을 붙이며 기도하는 사람. 엄마 팔에 매달려 천왕문을 겨우 지나가는 아이들. 도량도 시끌시끌하다. 봄인가보다. 말랐던 계곡에 물이 들어차듯이 겨우내 비었던 풍경의 곳곳을 꽃들이 채우고, 고즈넉했던 도량엔 사람들로 넘친다. 쌍계사는 723년(성덕왕 23)에 삼법화상과 대비화상이 창건했다. 두 스님은 당나라에서 육조 혜능의 정상(頂相, 머리)을 모시고 왔다. 금당안의 탑 안에 모셔져 있다. 840년(문성왕 2)에 진감국사가 퇴락한 삼법 스님의 절터에 옥천사(玉泉寺)라는 대가람을 중창했다. 진감국사는 육조 혜능의 남종선을 신라에 최초로 전했으며 우리나라 불교사상 처음으로 범패(梵唄)를 전했다. 또한 옥천사를 중창하고 절 주위에 당에서 가져온 차나무 씨앗을 심었다. 쌍계사는 남종 돈오선의 도량이자 차의 발상지이며 해동범패의 연원이다. 하여 쌍계사는 선(禪), 다(茶), 음(音)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혜능의 정상이 모셔져 있는 금당으로 오르다보면 국사암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 국사암으로 향했다.

"혜능의 정상을 모신 게 정말인가요?"

"혜능의 '정신'을 가져왔다는 상징적 표현을 그렇게 적어놓은 건 아닐까 싶어요."

국사암에서 만난 만적 스님은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답했다. 우문 현답이다. 이어서 스님은 "문헌에는 분명 그렇게 적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다. 국사암은 혜능의 맥을 이은 진감국사가 입적한 곳이다. 시끌벅적한 쌍계사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다. 햇살이 반 쯤 들어와 앉은 작은 방 안에서 몇 안 되는 대중이 점심 공양을 하고 있다. 국사의 마지막 거처는 그리 크지 않았다. 작은 마당엔 돌담을 따라 의자 몇 개가 놓여있다. 어쩌다 쌍계사나 불일암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빈 의자를 잠시 채웠다 갔고, 어쩌다 우는 산새들이 날아와 그 빈 의자를 채웠다. 국사의 마지막 거처에서 듣는 새소리는 범패의 한 소절 같고, 만적 스님의 현답은 분명 그 곳이 혜능의 언저리임을 느끼게 했다. 아직 피지 못한 꽃들이 많다. 앞으로 더 많은 꽃과 녹음이 숲을 채우고 길은 더 짙어질 것이다. 숲길에 들어서는 것이 밟고만 있던 삶의 가속 페달에서 잠시 발을 내려놓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절이 있는 둘레길은 고단한 발길을 받아주는 산사의 마당을 지날 수 있고, 그 마당에서 배운 넉넉함으로 다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좋다. 다시 벚꽃길이 보인다. 나무가 꽃잎을 달고 있을 날이 얼마나 될까. 그래도 몇 날 안 되는 그 날들 때문에 나무는 거기 그렇게 있을 수 있다. 짧은 순간의 사색일지라도 그 순간이 있기에 이 급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꽃잎 날리는 봄날이다.

하동=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가는 길

대중교통

하동읍 하동터미널이나 구례읍 구례터미널에 도착한 후 군내버스를 이용 화개터미널까지 간다. 서울에서는 화개터미널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다. 서울남부터미널 07:30~19:30(7회 운행) 화개터미널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 화개장터다.

승용차

88고속도로 남원IC로 나와 인월 방면, 구례, 순천 방면 19번 국도, 남도대교 앞에서 좌회전한다.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055)364-4849 ☎ 010-2840-820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사서실장 : 박연화연) (사무총장 : 석능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부회 장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원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종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보명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비구니원
원로의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총무부장 석도현 교무부장 석능현
재무부장 석종률 문화부장 석법륜
포교부장 석해안 감사부장 석수진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중앙교육위원장 김기두(동선)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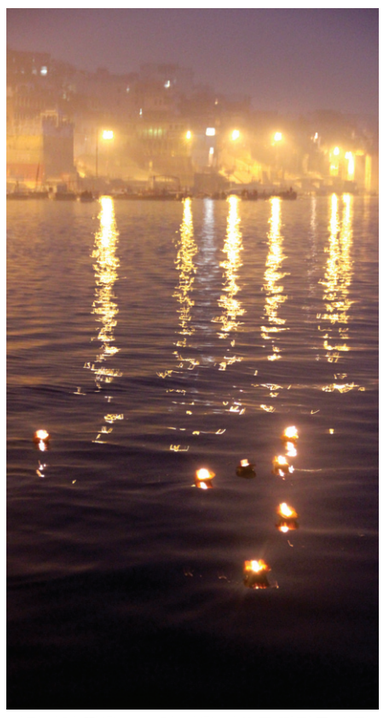
범패, 육효, 학인모집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함.
문의 전화 : 055)364-47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5)

부처님 설법 흐르는 강가강을 가다



강가강에 띄운 꽃등이 밝은 빛으로 떠가고 있다.



강가강의 일출과 나룻배.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가강에 비유하는 설법으로 바라문 사회의 옳지 못한 관습을 일깨웠다.

답사일행이 탈 열차는 부바네스와르역에서 바라나시 부근에 있는 무갈샤라이역까지 달리는 밤열차다. 인도의 특급열차는 장거리용 라즈다니와 12시간 미만을 운행하는 샤따브디가 있는데, 우리가 탈 열차는 침대가 있고 출발과 도착시각이 정확한 라즈다니다. 열차는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하여 무갈사라이역에는 새벽 1시 40분에 도착할 예정이니 14시간 10분 동안 열차 안에서 보내야 한다.

역사 안은 장바닥 같다. 역사 안까지 들어온 소가 사람들 사이를 어슬렁거린다. 비루먹은 개는 한 쪽에서 졸고 있다. 인도 승객들은 큰 눈을 무심하게 희번덕거리고 있다. 쓰레기가 뒹굴고 구걸하는 아이들이 낯선 이국인들에게 다가와 손을 내민다. 호텔과 역사의 풍경이 극과 극이다. 부처님은 양극을 여읜 진리를 중도라고 했는데,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의 중도는 무엇인지 몇 가지 단상(斷想)이 오락가락한다. 생명의 가치일까, 생명의 경이로움일까, 생명의 존엄성일까. 몇 발짝만 옮겨도 타성과 통념에 젖어 살아왔던 나를 자극하는 인도 풍경이다.

열차는 예고한 대로 정시에 출발한다. 맞은편 침대에는 젊은 부부와 아이가 자리를 잡고 있다. 열차가 움직이자마자 책을 펴들고 있는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걸어본다. 이름은 고빨 나이끄이며 나이는 9살이라고 한다. 남편은 외과의사, 부인은 소아과의사인데 바라나시에서 인도의사협회 전국회의가 있다고 한다. 전국의 의사들이 다 모인다고 하니 바라나시에 소재한 호텔들이 의사로 붐빌 것 같다. 그제야 나는 우리 일행이 숙소예약 문제로 아주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이해한다.

카시국 유녀(遊女) 앗다카시, 부처님 설법 듣고 비구니가 되다

인구 200만 명의 바라나시로 인도인들이 모이는 이유는 인도 최고의 힌두성지이기 때문이다. 바라나강과 아시강이 강가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써 무굴제국 때부터 영국 식민지 시대까지 베나레스라고 불리다가 지금은 다시 바라나시라는 이름을 되찾았는데 기원전에는 카시국의 수도였다고 한다. 부처님이 태자일 때에도 카시국의 수도였던 것이다. 당시 카시국은 값비싼 비단과 전단향을 생산하는 나라였는데, 초기경전을 보면 부처님도 태자시절에 화려한 카시의 비단옷을 입고 전단나무 향과 기름을 사용했다고 나온다. 또한 카시국은 당시 16개 소국 중에서 바이샬리국과 더불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여 많은 유녀(遊女)들이 활동한바, 유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과 달리 덕과 교양이 높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외교활동까지 하였다고 전해진다. 카시국의 유명한 유녀는 부호의 딸로 태어난 앗다카시라는 여인이었다. 앗다카시의 몸값은 엄청나 카시국이 걷는 수입 중 반을 내야 할 정도였다. 그래서 카시라는 여인의 이름 앞에 반(半)이라는 뜻의 앗다가 붙은 것이다. 앗다카시에게도 짧은 전생담이 있는데, 그녀는 가섭불 시대에 출가한 비구니였지만 아라한과를 얻은 장로비구니를 비난한 과보를 받아 유녀로 태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의 미모는 카시의 부호들을 반하게 했고, 어떤 부호는 그녀와 하룻밤 자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기도 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미모 때문에 부호들이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것을 보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때마침 바라나시에 온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하여 모든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뒤 왕사성 비구니교단으로 들어가 용맹 정진하여 아라한과를 얻었다.

현장의 〈대당서역기〉 제 7권에는 오늘의 바라나시가 파날리시국으로 나온다.

'파날리시국은 주위가 4000여 리다. 나라의 대도성은 서쪽으로 강가강을 바라보고 있으며 길이 18~19리, 넓이 5~6리이다. 민가는 빗살처럼 벌어져 있고, 주인이 많으며 집집마다 거금의 부를 쌓고 있는데 방마다 진귀한 물품들이 가득 차 있다.(중략)

대도성의 동북쪽 바라나강 서쪽에 아쇼까왕이 세운 스투파가 있다. 높이 100여 척인데 앞에 돌기둥이 서 있다. 파랗기가 거울과 같으며 광택은 물을 엉겨놓은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항상 여래의 영상이 나타나 있다.'

바라나강 서쪽에 아쇼까왕이 세운 스투파가 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그곳에 머물면서 설법을 하셨다는 얘기와도 같다고 보면 된다. 내 추정으로 얘기하자면 '바라나강 서쪽' 은 꼬삼비가 아닐까 싶다.

열차 안에서 양덕춘 교수와 윤제림 시인, 범선 거사 등과 그동안에 답사한 내용을 주제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주고받다가 얼핏 눈을 붙였던 것 같은데 열차가 무갈샤라이역에 도착한다고 알려온다. 창밖을 보아서는 캄캄한 어둠뿐이므로 분간이 안 된다. 마침내 열차는 역사로 진입하기 직전에 거친 괴성을 서너 번 지르더니 미끄러지듯 서서히 멈춘다. 불빛에 드러난 역사는 새벽 1시 40분의 꿈속 같다. 사람들이 역사 바닥에 요 같은 모포를 뒤집어 쓴 채 자고 있다. 역사를 빠져나오는데 꿈속에서 걷는 기분이다. 일행을 태운 버스는 무려 1시간 동안 역사 밖에서 기다렸다가 움직인다. 한밤중인 까닭에 짐꾼 서너 명을 겨우 찾아 협상해서 날랐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꿈을 보고 있는 느낌이다. 내 의식으로 눈앞의 대상을 능동적으로 보고 있다기보다는 꿈속에서 어디론가 내가 떠밀려가는 피동적 상태인 것이다.





강가강을 건너는 인도인들. 힌두교는 목욕에 의한 멸리의식을 믿었다.

부처님은 바라문 사회의 철벽같은 관습을 부정한 용감한 혁명가

잠에서 덜 깬 것 같은 몽롱한 의식은 숙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시간쯤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난 뒤부터는 의식이 명료해졌다. 강가강으로 가기 위해 잠시 버스를 타고 가는데 탁류가 소용돌이치듯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해맞이 기도를 위해 강가강으로 가는 인파가 분명하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일행도 인도인들 속에 섞인다. 인파는 블랙홀에 빨려드는 것처럼 강가강으로 뚫린 골목을 채우고 있다. 릭샤꾼과 자동차와 사람들이 뒤엉켜 혼돈스럽다. 일행은 인파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바짝 정신을 차린다. 그러는 동안 일행은 강가강 가트까지 휩쓸려나와 있다. 누군가가 소똥을 밟았다고 소리친다.

강물을 끼얹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힌두 신자들이다. 강가강 건너편 지평선은 아직 어둡다. 해가 뜨려면 더 기도해야 한다. 문득 부처님 말씀이 떠오른다. 부처님이 계실 때에도 강가강에 몸을 씻는 바라문들의 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이 정각을 막 이룬 뒤였다. 〈잡아함경〉에 나오는 얘기다.

현장의 '대당서역기' 에 기록
'바라나강 서쪽에 아쇼까왕이 세운
높이 100여척의 스투파가 있다'
떠가는 꽃등 보니 붓다음성 들리는 듯
"자비의 물로 목욕하는 법 배워라"

바라문 산가라바는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낮 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해 강에서 목욕을 하였다. 부처님이 산가라바에게 말했다.

"목욕을 해서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면 개구리나 거북이나 악어들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리라! 진정한 강은 선(禪)의 강이다. 자비를 강가강에 비유할 수 있으리. 선의 맑고 깨끗한 물은 모든 사람을 자비롭게 씻어준다. 선의 물속에 뛰어들어 목욕하는 법을 배우라."

부처님은 바라문 사회의 철벽같은 관습과 통념을 부정한 용감한 혁명가였다는 생각이 든다. 바라문들은 목욕을 함으로 해서 멸죄가 된다고 믿었지만 부처님은 바라문 사회의 옳지 못한 관습에 과감하게 반기를 들었다. 진리가 아닌 것과는 타협하지 않았다. 거짓된 세상과 다투지 않았고 오직 진리만 설할 뿐이었다. 불교가 인도역사 속에서 한때 소멸해버린 것은 힌두교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말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목욕에 의한 멸죄의식이나 사성계급을 부정한 불법이야말로 힌두교 존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일행은 강가강 저편 모래밭으로 가기 위해 나룻배를 탄다. 꽃등을 파는 장사꾼들이 다가와 호객을 한다. 나는 꽃등을 사 강물에 띄운다. 진리란 행복을 위해 존재할 뿐이라고 가르쳐 준 부처님께 바친다. 검은 강물 위에 밝은 빛으로 깨어 홀로 떠가는 꽃등을 보자 홀연히 부처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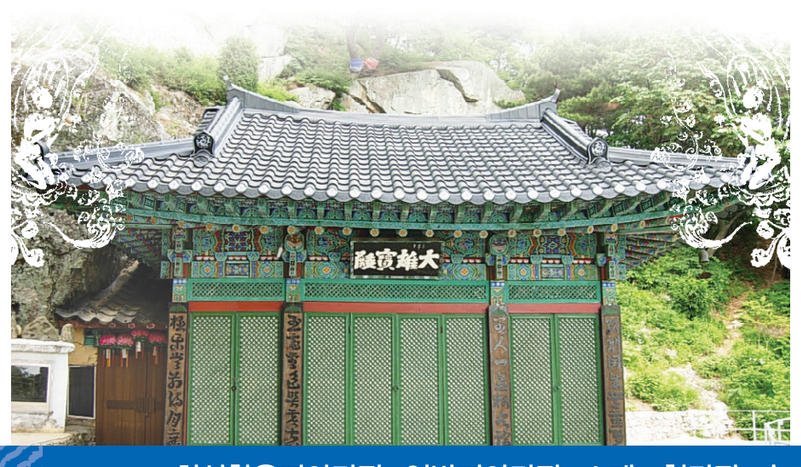
"당신은 신입니까?"
"나는 신이 아니오."
"당신은 하늘의 사자(使者)입니까?"
"아니오, 절대로 아니오."
"당신은 영혼입니까?"
"나는 영혼이 아니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깨어 있는 사람이오."

그렇다. 부처님은 신도, 하늘의 사자도, 영혼도 아닌 오직 저 꽃등처럼 밝게 깨어 있는 분인 것이다. 배는 가트 옆을 끄덕끄덕 거슬러 오르다가 물살에 떠밀리면서 모래밭으로 접근한다. 경전에 자주 보았던 항하사(恒河沙)다. 여름이 되면 홍수에 잠겼다가 1월쯤에야 드러내는 강가강의 은밀한 속살이다. 실제로 모래를 움켜쥐어보니 손가락 사이로 사르르 빠져나가버린다. 힌두여신의 맨살처럼 부드럽다. 이윽고 강가강 모래밭 저편 허공에서 핏덩이 같은 해가 뜬다. 바라나시의 진신사리 같은 붉은 빛덩어리다. 부처님도 아쇼까왕도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시간 속에서 저 태양을 보았으리라.



글=정찬주 · 사진=아일선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5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광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④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가루라’ 아름답게 새겨진 ‘적사경’ 변상도 친견



북경 수도 도서관에서 친견한 〈적사경〉 변상도. 송말원초(1231~1322)에 제작된 이 변상도는 진승이 그림을 그리고 진녕이 판각했으며, 티베트풍의 도상이 아름답게 펼쳐져있다. 본존불 두광 뒷쪽에 가루라(새)가 판각된 것이 특징이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문진 조판박물관 진열장. 북경도서관 구관에 2009년 강심관장이 개관했다.

북경도서관 구관에 위치한 문진 조판박물관은 2009년 8월 31일 개관한 사립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의 설립자는 시인 화가 북디자이너 출판가로 알려진 강심(姜尋)선생이다. 그는 이 박물관을 인쇄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해 관람객들에게 중국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시키기 위해 설립했다. 이 박물관은 국가도서관과의 합작관계를 통해 설립됐다. 건물과 설립 비용은 국가가 지원했고, 자료는 모두 강심 선생의 개인소장품이다.

한국에는 국가등록 박물관이 800여 곳이 있다. 그 가운데 절반 가량이 사립박물관이다. 사립박물관 가운데에는 소장품의 자료가 세계적인 수준인 박물관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문진 조판박물관의 사례와 같이 국가와 사립박물관의 협력에 의해 세계적인 자료를 활용 전시 교육하는 곳은 드물다.

문진 조판박물관은 강심 관장의 수집에 대한 열정과 주변 학자들과의 두터운 관계, 국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 곳의 전시품 수집서부터 개관 후까지 박물관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중국 정부의 발 빠른 문화에 대한 투자가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조판박물관 전시는 책이 출판된 연도에 따라 출판하기 위해 만들었던 목판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장품으로는 유명한 장서가 ‘장여조’가 소장하고 있던 책판이다. 이곳에는 장여조의 책판과 그와 관련한 인장을 함께 소장 중이다. 영락제 때 황궁에서 만들어진 궁중판도 200여 장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 건물은 국가도서관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1921년에 축조된 건물은 과거 식당으로 사용하던 것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것이다. 내부 실내디자인을 포함한 전시 기획은 모두 박물관장이 담당했고,, 전시실 내부에 가장 돋보이는 전시공간은 전시실 제일 안쪽 벽 전체를 전시장으로 사용해 전시와 수장을 겸하고 있는 공간이다. 원래 박물관 건물이 식당 건물이다 보니 천장이 높아 보통 건물의 2층 높이에 해당하고 있는 천장 끝까지 모두 전시장 겸 수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맞은편에는 눈높이에 맞추어 2층 높이의 전시까지 감상 할 수 있게 철 계단을 사용하여 올라가면 전망대 겸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이와 같이 박물관 내부는 사무공간과 다른 기타 공간을 포함하여 총 100여 평되는 크지 않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조판박물관이 속한 국립북경도서관 구관에는 고서를 모아놓고 있는 고전실이 있다. 하지만 현재 도서관 이동 작업으로 인해 일행은 중국 도서관의 세계적인 소장품을 볼 수 없었다.

이를 대신해 답사단은 고전실 1층 문화상품코너에서 북경 도서관이 자랑하는 고서의 변상도만 모아 놓은 자료집을 구하는 것으로 북경의 둘째 날 학술 답사 일정을 마쳤다,

북경 수도 도서관에서 만난 ‘적사경’

3일째 되는 날, 일행은 북경 수도도서관으로 이동했다. 수도도서관에는 중국 고판화 학자 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심혜 선생이 부관장으로 있는 곳이다. 주심혜 선생은 답사단을 반갑게 맞으며 전시실로 안내했다. 2006년에 주심혜 선생을 만나기 위해 수도도서관을 처음 방문했던 순간이 떠오른다.

필자는 17년 전 고판화 목판의 조형성에 눈을 뜨면서, 중국 고판화를 수집이 시작되었고, 좋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고판화에 대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공부해 오다, 주심혜 선생이 중국에서 고판화 학자로 저명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심혜 선생을 직접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소문해 보았으나 찾기가 쉽지가 않았다. 어렵게 북경 수도도서관 부관장으로 재직한다는 것을 알고, 중국의 조선족 가이드를 통해, 2006년 수도도서관을 찾았다. 당시 주심혜 부관장의 바쁜 일정으로 첫 대면은 20여 분에 불과했다.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전시중인 중국불상특별전에 전시된 관음상

필자는 그때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아, 1주일 이상 북경에 머물 예정이니 여유 있을 때 식사라도 할 것을 간청했고 주부관장은 이를 수락했다.

필자는 주심혜 부관장과 직계제자인, 마문대 선생과 만난 자리에서 고판화박물관의 유물을 소개했고, 그 때부터 교류활동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마음의 문을 연 주심혜 부관장의 소개로 조판박물관 강심 관장을 비롯한 다양한 고판화 관련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적사경’은 소주 적사에서 송말원초 91년간 만든 장경

고판화 박물관 소장품 다수, 중국 국가 도서관 도록 기재

필자는 이때의 자신감으로 중국 민간미술학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던 중앙미술학원 보송년 교수도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만남은 2006년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최초로 열린 한·중 국제 고판화 학술대회로 연결돼 주심혜 부관장과 보송년 교수가 고판화박물관을 찾아 고판화박물관의 중국 관련 자료들이 세계적인 컬렉션임을 인증 받는 계기가 됐다.

일행이 찾은 수도도서관 고전실에는 고서가 50여 만권 있다. 이 가운데 송원시대 것이 40여 만권이라고 했다.

답사단은 수도도서관의 대표적인 고판화 관련 자료를 보여 줄 것을 간청했고, 수도도서관에서는 송말 원초 만들어진 〈적사경〉 변상도를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주심혜 부관장은 뇌경색으로 인해 입원 후 퇴원한 지 얼마 안됐 요양이 필요함에도 직접 나와 〈적사경〉 변상도의 주요 부분을 열의를 다해 설명했다.

〈적사장(磧砂藏)〉은 남송 소정 4년(1231)에 소주 적사의 연성원에서 설립된 경방에서 자본을 모금하여 만든 대장경이다. 원대 지치 2년(1322)에 끝난 불사는 완성하기까지 91년이 걸렸다. 변상도는 진승(陳昇)이 그림을 그리고, 진녕(陳寧)이 판각한 것으로 티베트 불교 영향을 받아, 티베트풍의 도상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도판은 대형 본존불을 중심으로 다양한 군상들이 여백 없이 화면에 채우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적사경〉 변상도는 일반적인 중국 변상도와 다르게 본존불의 두광과 신광 뒤쪽에는 인도 네팔 등지의 건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루라의 형상이 아름답게 판각돼 있다. 이같은 인도 티베트풍 도상이 주류이면서도 본존불의 광배 좌우로 일월성신을 표시한 것이나, 중국 도교의 도사풍의 인물이 표현되는 등 중국적인 요소도 담고 있다.

주심혜 부관장은 고판화박물관 소장품인 명 성화13년(1472)간 〈불정심다라니경〉을 포함한 다수의 소장품이 중국 국가도서관 도록에 실려 2달 후면 발간 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주었다.

2년 전 한양대 대학원 박물관교육학과 답사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주심혜 부관장은 자신이 중국국가 도서관 불교판화 도록 편찬위원회에 명청 시대 위원으로 위촉됐다면서 고판화박물관의 중국 소장품 중 뛰어난 작품을 추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 말이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주심혜 부관장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는 순간 17년간 고판화를 수집하면서 힘들었던 모든 노력을 보상받은 것 같이 기뻤다.

자금성 인쇄기관 무영전 답사 또 헛걸음

필자는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면서 다음 답사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무영전을 방문하기 위해 자금성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일행은 2011년 재개관한 중국 국가박물관을 방문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국가박물관에서는 한국에 영향을 크게 끼쳤던 중국 고대불상 특별전과 청동기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일정에 없던 코스라 특별전을 꼼꼼히 살펴 볼 수 없어 아쉬웠다.

청대 황실 인쇄기관인 무영전은 강희 19년(1680)에 수서처(修書處)를 설립하고 편수와 교정을 담당하는 관원과 글자를 쓰고 각판하는 장인들을 모아 전문적으로 출판작업을 하면서 시작됐다. 무영전 서적은 각판이 비교적 정확하고 최상품의 종이와 먹을 사용했고, 글자체가 매끄럽고 판식이 또렷하고 장정이 단정하기로 유명했다. 무영전 학술답사를 위해 그 동안 만났던 중국 학자들을 통해 방문을 시도했으나, 모두 난색을 표했다.

북경 한국문화원을 통해 무영전과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았지만 열릴 듯 했던 문은 결국 열리지 않았다. 무영전 도서관 부연구원인 옹 선생의 안내로 무영전 입구에서 설명을 듣고 현수막 없이 기념촬영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옹 선생으로부터 다음 번 학술답사에는 꼭 개방해 줄 것을 약속받으면서 답사단은 발걸음을 자금성으로 옮겼다.

학술교류활동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학자들과의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만찬이다. 이번 답사에도 중국학자들과의 만찬을 위해 청나라 때 제후들이 살던 왕부를 개조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군왕부 식당에 만찬자리를 마련했다. 만찬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교류가 이뤄졌으며, 8월 고판화박물관에서 이뤄질 아시아 삽화판화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진지한 조율도 이뤄졌다.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황진·박도화(고판화박물관)

옴마니반메훔 & 연꽃
윤장대 & 마니차



이제 입춘일부터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돌려 주십시요!
사업재수운, 금전재물운을 불러들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머리를 총명하게 돌려줍니다
• • •
팔만대장경전을 넣어둔 책장을 의미하는 윤장대,
또는 법륜대라고도 하는 이 법구는 한번 돌릴 때마다 경문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쌓이고, 업장소멸이 되어,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머무는 장소의 나쁜 운을 몰아내고 좋은 호운으로 바꿔주는 신비한 힘을 지닌 이 윤장대는 사업장이나 사무실, 영업장소, 기수련원, 가정의 거실, 학생공부방에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윤장대는 1.5V소형건전지 내장하여 돌리고, 연꽃 마니차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으면 태양열로도 돌며, 건전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앞에 놓으면 자동으로 돌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과 출입왕래재수가 원할해져서 원하는 일이 소원성취 됩니다.
[사찰에 신도 개인인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윤장대 사이즈 | 높이 17×둘레 12cm / 가격 | 98,000원
마니차 사이즈 | 높이 15×둘레 10cm / 가격 | 68,000원(사찰스님20%할인)
제조원 | 티벳 / 수입처 | 룽다원

입금계좌 농협 302-4233-7099-41
전화 010-4233-7099

세계 최초 출현
금강저 108 염주



부처님의 제 1 법구인 금강저를 정심모아 108염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금강저 1개만 소지하여도 모든 만사의 화근을 물리치고, 악귀잡귀를 퇴치하여 삼재화, 삼재액을 퇴방한다하였는데, 금번 금강저는 세계 최초로 금니 금강저 108개를 모아 일개의 염주로 제작하여 상서로운 불법력을 강화시킨 장엄법구로서 큰 원력을 지닌 법구입니다. 사찰의 불법력과 스님의 신심원력을 한층 돋우게 하여 수행하는 불자라면 누구라도 소지하면 알게 모르게 지은 전생 업장소멸이 되어 참된수행정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 성황리 사찰불사를 기원할때 • 망상과 마구니로 인해 수행정진이 잘 안될때 • 사찰신도가 신심이 흩어져 줄어들었을때 • 새 사업을 개업할때 • 집터나 가게터가 산란하여 장사가 안되고 재수가 없을때 •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화목하기를 바랄때 • 금전 재산이 모이질 않고 점점 줄어들때 • 시험에 합격을 기원할때 • 환자가 속쾌차하기를 바랄때 •



전체길이 245cm / 제조원 백팔금강저
가격 240,000원
사찰스님 20% 할인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전화 : 010-4233-7099

뜻 얻었다면 거리의 한담도 다 진리

경허 스님 수행 일화

㉖ 관헌(官憲)에 잡히다

을사조약 이후 한일합방으로 일본 경찰들이 치안을 담당할 때의 일이다.

비로관을 크게 만들어 머리에 쓰고 검은 장삼을 걸친 한 스님이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 구척장신의 그 스님은 맨발에 한손에는 담뱃대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고기를 주장자에 매달아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 괴승(怪僧)의 정체는 바로 경허 스님이었다.

마침 거리를 순찰하던 일본 헌병 보조원 두 명이 정체불명의 행색을 한 스님의 괴이한 행색에 산적 괴수로 오해해 다짜고짜 경허 스님을 체포했다.

스님을 헌병대로 끌고 가려 하는데 경허 스님이 입을 열었다.

"이놈들아, 끌고가려면 너희들이 나를 메고 가거라."

경허 스님은 땅에 넙죽 주저앉아 버렸다. 두 헌병 보조원은 하는 수 없이 긴 장대를 갖고와 경허 스님의 양다리와 양팔을 밧줄로 꽁꽁 묶어 들쳐 메고 헌병대로 데려갔다.

두 헌병 보조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헌병분견대로 향하는데 이에 대한 경허 스님의 말이 걸작이었다.

경허 스님은 "흥, 경허가 그래도 어지간한가 보구나!"하고 통쾌한 웃음을 지었다.

헌병 보조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한 헌병 보조원이 퉁명스런 말로 "여보 대사(大師). 그 무슨 소리요?" 했다.

경허 스님이 다시 한바탕 웃으며 말했다.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메고 가야지 내 발로 걸어 갈 수야 있겠느냐. 이놈들아"

더욱 화가 난 헌병 보조원들은 경허 스님을 내려놓고 손발에 동여 맨 밧줄을 풀었다.

"그럼 걸어갑시다."

헌병 보조원들은 경허 스님에게 발길을 재촉했다. 경허 스님은 한참을 걷다가 다시 크게 웃었다.

"흥, 흥! 경허가 그래도 어지간하다. 이놈들아, 내가 내발로 걸어가야지 너희들에게 메어가서야 어디 되겠느냐?"

헌병분견대에서 일본 헌병대장이 직접 경허 스님을 취조했다. 독립군의 수뇌나 산적두목으로 알아본 것이었다.

취조에서 아무 표정 없이 묵비권을 행사하던 경허 스님이 갑자기 지필묵을 청했다. 헌병대장이 기이하게 생각하고 지필묵을 갖다 주게 했다.

경허 스님은 헌병들에게 양쪽에서 두루마리를 붙들게 하고 가져다 놓은 붓에 먹물을 찍어 '제행무상(諸行無常) 시생멸법(是生滅法)'의 휘호를 써 갈겼다. 스님의 글 쓰는 자세를 보던 헌병대장은 깜짝 놀라 자세를 정중히 했다. 헌병대상은 글을 다시 읽어보아도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었지만 경허 스님이 큰 도인임을 짐작했다. 헌병대장이 큰 절을 하며 경허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알아 모시겠습니다."

경허 스님은 일제 치하에서 이런 일이 비일 비재 했다. 강계(江界) 땅에서는 박진사로 행세하던 중 일본 경찰에 끌려간 적이 있었다. 공주(公州) 경찰서에서 경허 스님을 취조한 야마모토(松山) 경찰서장에게 경허 스님은 붓과 종이를 청해 일필휘지의 글을 남겼다.

"그 뜻을 얻었다면
거리의 한담도 다 진리의 가르침이요,
말하는 주인을 알지 못하면
용궁(龍宮)에 간직된 보배로운 경전도 한 낫 잠꼬대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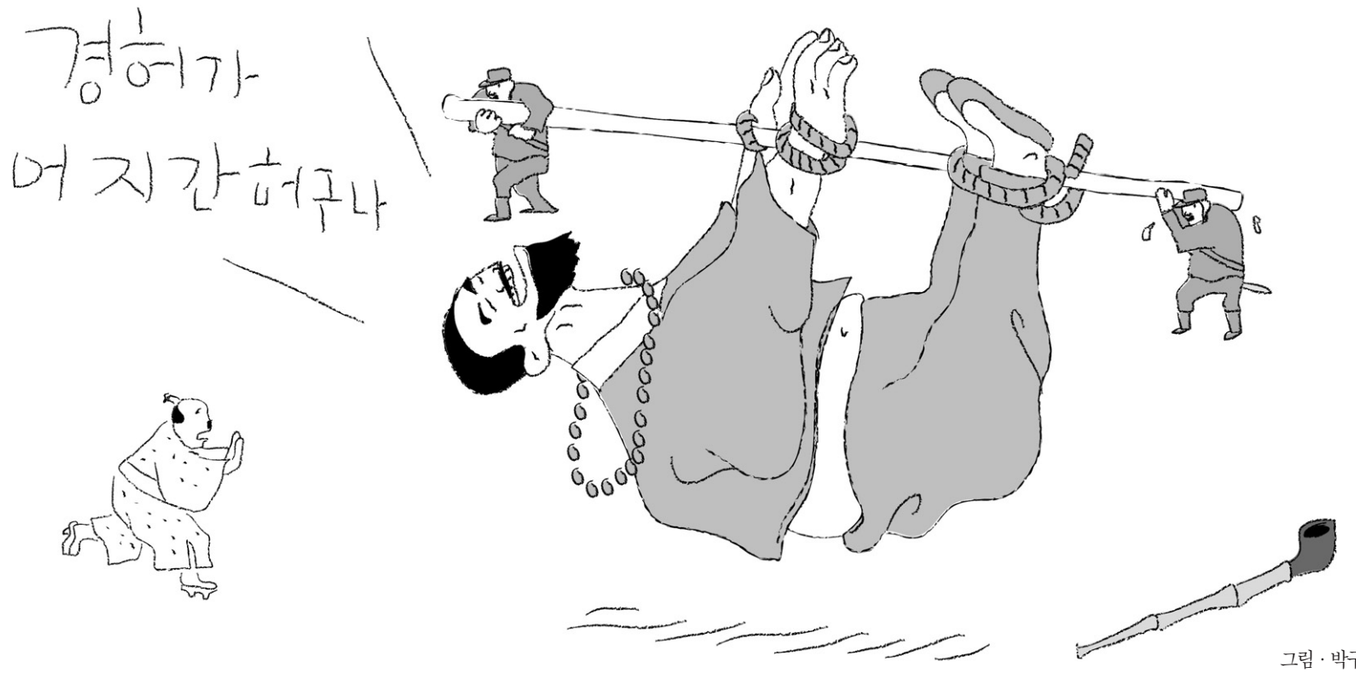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모르면 용궁 경전도 잠꼬대 일뿐"
스님 무애행에 日 헌병대장 감탄

관음보살이 북으로 행한 뜻 묻자
법제자 삼아 불조의 밀전 지도

야마모토 서장은 경허 스님의 글의 깊은 뜻을 알아보고 스님을 자기 집 내실로 모셨다. 야마모토 서장은 자기 부인에게 일렀다.

"이 어른의 시봉을 잘 해드리고 어떤 행동을 하시든 언제나 원하시는 대로 모시도록 하시오."

야마모토 서장은 집안 하인들에게도 행여나 조금도 경허 스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극진히 봉대토록 했다.

며칠을 융숭한 대우를 받던 경허 스님은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 서장 집에 보관된 금고를 털어 시가(市街)에서 술을 사 먹은 것이었다. 경허 스님은 그 뿐만이 아니라 배고픈 걸인과 주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야마모토 서장은 일체 참견 하지 않고 경허 스님이 하는 대로 하게 했다. 도인의 무애행을 그대로 펴게 하는 것이 모시는 도리라고 본 야마모토 서장은 자기 부인에게 누누이 당부해 아무도 제지하거나 흉보는 사람이 없도록 극진히 대접했다.

하지만 경허 스님은 며칠 뒤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섰다. 야마모토 서장은 자기가 잘못해 큰 도인을 더 모시지 못했다며 못내 애석하게 생각했다고 전해진다.

㉗ 혜월 스님의 주먹

혜월(慧月) 스님이 정혜사(定慧寺)에서 공양주를 할 때였다. 혜월 스님은 역력고명 무형단자(歷曆孤明 無形丹子) 화두에 깊게 들었다.

하루는 의심이 매우 솟아나 뒷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1주일을 앉아 무아지경에 들었다.

1주일 뒤 혜월 스님이 홀연히 문을 열고 나와 은사 스님에게 화두를 깨달은 경계를 말했다.

하지만 은사 스님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나로서는 네 공부를 판단해 줄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은사 스님은 이어 "개심사(開心寺) 경허 스님을 찾아가 네가 공부한 경지를 지도받도록 하여라"고 천거했다.

혜월 스님은 그 길로 개심사에 찾아가 경허 스님이 계신 선방 앞에 이르렀다.

혜월 스님은 다짜고짜 "스님!"하고 부른 뒤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이 무슨 뜻이오리까?"하고 큰 소리로 물었다.

이에 대해 경허 스님은 눈도 뜨지 않고 답했다.

"그 것 말고 또"

경허 스님은 큰 소리로 되받아 물으면서 동시에 눈을 딱 뜨고 바라보았다. 혜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주먹 하나를 높이 들고 서 있었다.

그제야 경허 스님이 말했다.

"앉으라"

그제야 경허 스님은 불조(佛祖)의 밀전 밀맥(密傳 密脈)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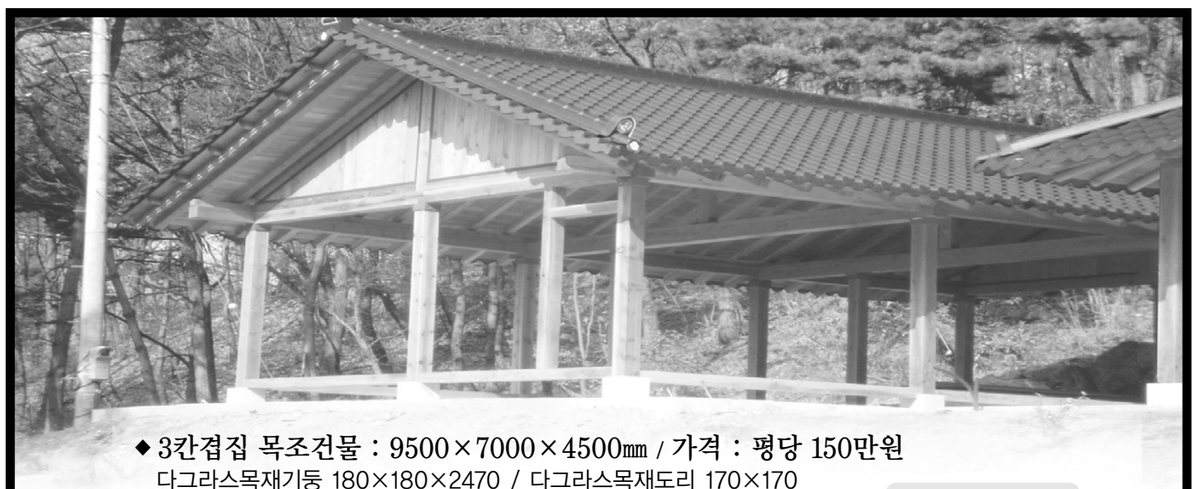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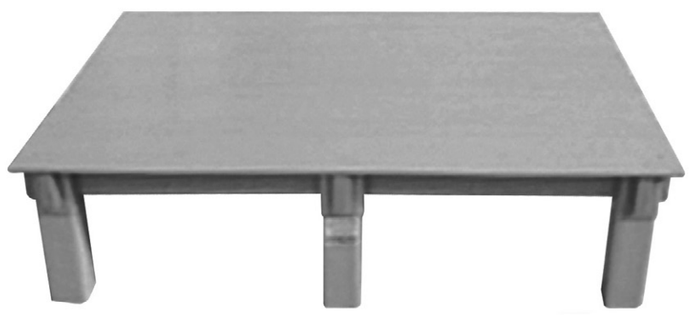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3칸겹집 목조건물 : 9500×7000×4500㎜ / 가격 :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470 / 다그라스목재도리 170×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1800×1030×400㎜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폴리프로필렌 자재 기 둥 110×90×400
도 리 80×35
중간대 80×35
마루판 210×12
부가세 운송비 별도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구산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나의 서원 나의 신행 〈7〉

영화와 불서 포교에 40년 매진한

영화와 불서 포교 한갑진 한진흥업 회장



한갑진 회장은 … 1952년 동아대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국제신문 정치부장을 지냈다. 1966년 대양영화주식회사를 설립해 영화제작 및 보급을 시작했으며, 현재 한진흥업주식회사, 한진출판사, 한진영상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알기쉬운 불교〉〈인도와 불교〉〈부처님의 생애〉〈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등이 있으며, 〈진리의 말씀 감흥의 말씀〉〈2500년전의 비구 비구니의 시〉 등의 번역서가 있다. 조계종 전국신도회 부회장, 봉은사 신도회장 등을 맡기도 했다.

봄비가 촉촉이 대지를 적신 4월 10일 오후 서울 필동에 있는 불자 원로 영화인 한갑진 회장(89 · 한진흥업)의 집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사람보다 불서다.

그가 지난해 초심자들을 위해 불교 지침서로 펴낸 〈부처님을 만남〉이 책상 가득 쌓여 있었다. 물론 판매용이 아니라 불교 공부를 위해 신청한 신행단체 법보시용 저서들이다.

한켠에는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는 포장되지 않은 책들이 수두룩했다. 45년 됐다는 남산 자락 그의 2층집은 온통 책 향으로 가득하다. 마치 고서점에 들어와 있는 듯한 분위기다.

한 회장은 매일 오전 8시면 어김없이 불교 원고 집필을 시작한다. 벌써 40년이나 됐다. 그동안 20권의 불서를 펴냈지만 한 회장은 아직도 원고를 쓸 때면 파지(破紙)를 여러장 낼 만큼 온 정성을 다 쏟는다. 요즘엔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정리한 〈대반열반경〉 원고 정리에 바쁜 시간을 보낸다.

"이 경전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기전 하루낮 하루밤에 말씀하신 최후의 경전입니다. 핵심 사상은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수행 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경전이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어, 불어 등 20여개국어로 출간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된 책이 많지 않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데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한 회장이 노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서(佛書)를 잇따라 내는 이유는 분명했다. "방황하는 중생들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해 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자의 길을 버리고 중생구제를 위해 평생 헌신했던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는 게 저의 일생일대의 서원이지요."

원력이 더욱 의미있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불교책을 출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73년 〈알기쉬운 불교〉를 펴낸 것을 시작으로, 〈인도와 불교〉〈부처님의 생애〉 등 직접 저술한 책들을 사찰과 군법당에 무주상 보시해왔다.

지난 2000년에는 10년간에 걸쳐 번역한 아함경 4권과 〈새천년 헤쳐 갈 불교〉를 무료 배포했다. 이외에도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회통〉 등을 불자들에게 선보였다. 역시 무주상으로 나눠 줬다.

이런 보시행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한 회장과 인터뷰한지 5분도 채 안돼 의문이 풀렸다. 한 회장은 부인 손병희 여사와 목욕재계 후 자택 2층에 마련한 법당에서 매일 새벽 5시 예불을 모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어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마음을 정돈한다. 해외출장을 가서도 호텔에서 예불을 드려야 마음이 편했다. 이렇게 40여년간 매일 꾸준히 해온 기도와 수행을 통해 신심이 돈독해진 한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중 으뜸인 '보시행'을 생활속에서 몸소 실천하려 노력했다.

그는 불교계 뿐 아니라 '지금의 한국 영화'가 가능하도록 초석(礎石)을 놓은 '영화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국영화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한 회장은 제목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지는 '로키' '백야' 등 수많은 명화들을 수입해 국내에 개봉했다. 또한 '난중일기' '김의 전쟁' '은마는 오지 않는다' 등 국산영화도 직접 제작해 히트를 시키며 한국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가 제작에 참여해 만든 영화만도 260~270여편. 1년에 18편을 제작할 만큼 바빴고, 큰 성공도 거두었다. 대종상 작품상 및 대통령상,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상도 휩쓸었다. 하지만 한 사장은 그 화려했던 영화 이력속에서 1979년에 제작한 불교영화 '팔만대장경'을 가장 잘했던 선택으로 꼽았다.

"당시 영화 '난중일기' 시나리오를 집필했던 나 봉환 작가를 불렀어요. 불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나 작가가 당황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무조건 봉은사 법당에 1주일만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 작가가 며칠 뒤 가닥이 잡혔다며 '팔만대장경' 시나리오를 쓰더군요. 시나리오 작업이 끝나자 또 난관이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영화사 직원들이 큰 불만을 토로한 거에요. '난중일기'로 돈을 많이 벌어 났는데 관객이 들지 않는 불교영화 한다며, 또 사장인 내가 불교에 미쳐서 영화사 돈 다 털어먹는다고 난리가 난거에요. 그래도 제 평생의 발원인 불법 홍포를 위해서 계속 밀어 붙였지요. 심지어는 영화인 불자회까지 조직하며 법회에 영화인들을 반강제(?)로 참석하게 했어요. 법회에 안 나오면 내가 만드는 영화에 출연조차 못시키게 할 정도로 사실 극성스럽게 불교 포교를 했습니다.(웃음)"

80년대 말부터 불서 저술 법보시
〈알기쉬운 불교〉 등 20여 권 펴내
사찰 및 신행단체에 무주상 보시
새벽예불, 원고집필 40년간 계속
〈대반열반경〉 번역 내년 초 출간

제작비만 기존 영화의 5배가 들었고, 한획씩 판각하는 장면을 비롯해 스님의 예불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후시녹음(당시엔 동시녹음이 없었다)으로 절에서 아침예불소리를 담는 정성을 기울였다.

한 사장은 영화 '팔만대장경'을 처음에 계룡산 동학사에서 촬영하려 했다. 하지만 사찰측이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거부해 할 수 없이 충북 보은 법주사로 옮겼다. 내부 촬영은 주로 의정부에 세트장을 만들어서 사용했고, 외부 장면은 법주사에서 찍었다. 또한 법주사 산내 암자인 동암도 건립해 영화촬영장소로 사용한 뒤 희사했다. 이때 평생의 스승인 혜정 스님을 만나 계를 받게 된다.

법명은 정오(正悟). 바른 깨달음을 얻으라는 뜻에서 지어준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영화 '팔만대장경'은 흥행에 참패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찰을 돌아다니며 불자들에게 초대권을 나눠 주었는데도 관객이 거의 없었을 정도이니까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래도 불교 일을 했다는 자부심으로 내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한 사장은 이때부터 불자로서 사명감을 느끼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영화 만드는 일도 곧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도 그 때였다. 또한 팔만대장경 목판 제작과정을 담은 이 영화는 그에게 영화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스승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영화가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가장 잊을 수 없는 작품이라고 한 회장이 자신 있게 꼽는 이유다.

"팔만대장경 제작은 몽골군의 침략 아래 16년이란 긴 세월이 걸린 파란만장한 드라마였습니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한자 한자 간절하게 판각하는 제작과정을 재현하면서 많은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그 이후로 목판에 경전을 새기는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했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수행정신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처가 법당'이란 말처럼 수행은 어느 한정된 공간이나 특별한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영화인에서 불교출판인으로 탈바꿈한 한갑진 회장은 "부처님 법에 따라 좋은 불서를 만들고 보급하며 보내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까. 한 회장은 1992년 '김의 전쟁'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영화 제작일에서 손을뗐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불교출판을 시작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첫 번째 출간한 〈알기 쉬운 불교〉는 1만여 권이 팔려 당시로서는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더구나 단순히 책을 집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찰이나 신행단체, 군법당 등지에 법보시를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이를 두고 주위에서는 영화로 번 돈을 모두 불교에 쏟아붓는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당시에 영화일을 하면서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유혹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으면 지금 큰 부를 누렸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왕자의 신분을 버리셨는데 그까지 돈이 대수인가요?"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보급하는 법보시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 젊은 불자들이 불교를 쉽게 익힐 수 있는 책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72년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면서 시작됐다. 의식불명인 아버지의 머

산삼을 능가하는 효능의 연삼(軟蔘)



연삼(軟蔘)은 당뇨에 좋은 노다케인(Nodakenin)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당뇨**를 다스리고 **호르몬** 기능을 원활히 하여줌으로서 **체내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혈류의 흐름을 증진시키고 피를 맑게하며 피부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깊은 산에서 정기를 받고자란 **연삼**(軟蔘)을 직접캐고 말리며 정성들여 달였습니다.
휴대하여 드시기 좋도록 연삼액을 레토르트파우치에 밀봉하였으며 향이 좋아 음용하기도 좋습니다.
연삼액을 꾸준히 드시면 하루하루 **건강함**을 느끼실수있습니다.
이 정성을 가득담아 귀하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 구입문의 : 산약연삼액 **010-4759-5152 / 010-8440-1096** (담당 : 김종관)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438-427755 김태우 (1박스 60EA, 23만원)

"판매액의 일부는 불교발전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해동 제일약사도량

동 해 약 령 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 약령사 법당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타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해에 찌들어 뼈속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구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더없는 발원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령사 천연 초제 비누 ▷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령 사 주지 해 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

‘영원한 현역 포교사’



정오(正悟) 한갑진 회장은 오전 8시면 어김없이 서재에 앉아 노구에도 불구하고 불서 집필에 전념한다. 벌써 40년째다. 한 회장의 평생 서원은 불서 무주상보시다.

리말에 있던 〈반야심경〉을 무심코 집어들고 독경하자 아버지가 “그 소리 참 좋다”며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던 것. 목이 쉬어 읽지 못할 때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고, 나중에는 녹음까지 해서 들려드렸다.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의 위패를 신촌 봉원사에 모시고, 49재를 치뤘다. 이도 모자라 1년 동안 매일 같이 새벽기도를 올렸다.

“처음에는 아버님 위패에만 절을 하다가 다들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 전에 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불교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국내 불교서적뿐만 아니라 영화 일로 외국 출장을 갈 때마다 불교서적을 구입했다. 그리고 틈만나면 번역해가며 읽었다. 그때 ‘아,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던 책이 바로 후에 역서로 나온 〈석존의 직관〉이었다.

한 회장은 그 책을 쓰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살아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집착을 끊는 것, 그 뿐입니다. 이 순간에 방일하지 않고, 공덕도 바라지 않는 삶이 내 생명과 하나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참선이든, 염불이든, 간경이든 수행법을 택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방편일 뿐 결국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진리이지요.”라며 당시를 회상하며 들려준다.

한 회장은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베품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 이웃의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팽배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사이에 베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질 때 부처님의 나라 즉 살기좋은 불국토가 실현되지 않을까요”라며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불서로 빼곡히 채워진 한갑진 회장의 서재

‘팔만대장경’ 영화 법주사서 찍어
영화 촬영시 산내 암자 동암 건립
보시행 늘어야 불국토 이룰 수 있어
“불서 저술 포교로 여생 회향하고파”

또한 한 회장은 “불교에서는 보시를 무엇보다 강조합니다. 물론 불자들이 보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참다운 보시는 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이지요. 보시는 결국 이 사회를 더불어 살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회장에게 서원을 다시 물었다. 한 회장은 주저없이 답했다. 평소 신념대로 서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꼈다. 한 회장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불교서적을 계속 써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보시할 것입니다. 요즘은 비교종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를 알아야 우리 불교의 좋은 점을 더 확실히 알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살아 있는 한 저의 불교 공부는 계속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저녁 예불시간이라며 불편한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법당으로 향하는 한 회장은 〈아함경〉의 한 구절을 들려준다. “일체세간 위에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위에도 아래에도 또 사방에도 원한 없이 자비심만을 베풀어라.”

글=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임금 왕(王)자



동국대 명예교수

산을 오르다 보면 여러 생각이 새순 돋듯이 싱그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싱그러운 향기는 지속되지 못하고 이내 소리에 경계를 내주고 만다. 그저 시원스레 하늘을 날고 있는 새가 있다. 수지니인지 산지니인지 알 바 아니다. 살아 있는 것의 비상이다. 송림을 뒤적이는 까투리와 장끼의 유희는 발길을 멈추기에 충분하다. 꿈이 있는 존재들의 몸짓이 아닐까. 그런데 저 비상하는 주인공은 얼마나 많은 공포를 이겨내며 연습을 하였기에 자유로이 날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한다.

지식은 반복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외국어를 반복하다 보면 처음보다 훨씬 수월해진다. 그러므로 지식은 반복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지혜는 반복과는 별반 관계가 없다. 지혜는 지식의 깊이와는 무관한 것이다. 지식은 사량분별을 동반하지만 지혜는 틈이 없다. 마치 용수철을 눌렀다 놓으면 지체 없이 튀어 오르듯 순간도 허용하지 않는다.

선에서는 건혜(乾慧)를 경계하라고 한다. 유루(有漏)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샐 루(漏)’자를 범어로는 kleśa로 표현하고 있다. 즉 번뇌이다. 유루의 지혜는 아직 덜 닦이고 순수성이 떨어지는 지혜를 일컫는 말이다.

일생을 천진불로 수행한 선승이 있다. 혜월(1862~1937) 선사이다. 도를 이루는 데 문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혜월 선사에 대한 유명한 선화(禪話)를 소개하고자 한다. 무식한 혜월이 강사들을 골탕 먹인 일화이다. 어느 날 강사들이 많이 모인 큰 방에 혜월이 나타났다. 손에 쥔 죽비를 손바닥 위에 내리쳐 주위를 압도하였다. 주위는 고요 그 자체였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 터이니 여러 강사들은 풀어보시오.” 그리고 나서 죽비를 장판 위에 굴리면서 말했다.

“내가 방금 장판 위에 죽비를 굴렸소. 그러면 이 자(字)가 무슨 자입니까. 여러분은 문자에 밝고 교리에 통달하였으니 말해 보시오.”

대중은 그저 장판 위에 굴러 떨어진 죽비만 쳐다 볼 뿐이었다. 강사들은 온갖 궁리를 짜내 보았으나 결국 아무런 답도 떠올릴 수 없었다. 침묵이 더 할수록 분위기만 어색하였다.

“우리 지견으로는 도저히 모르겠으니 일러주시지요.”

그러자 천진불 혜월은 깔깔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들아, 그렇게 쉬운 글자도 모른단 말인가. 임금 왕(王)자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땅 위에 한 일(一) 자가 누었으니, 임금 왕이지. 땅이면 흙 토(土)이고 흙 토 위에 한 일 자를 더하면 임금 왕자 이니까. 그대들이야 말로 임금 왕자도 모르는 까막눈들일세.”

‘임금 왕’ 자의 가로 세 획은 천 · 지 · 인을 본뜨고, 세로 한 획은 이 셋을 꿰뚫음을 뜻한다. 천 · 지 · 인을 꿰뚫어 가진 사람으로 천자를 말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당혹스러워 멈칫하는 일이 있다. 어느 때이건 쭈뼛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저력은 지혜에서 나온다. 상식이나 정규과정의 가르침은 한결 같이 등식이 성립돼 있다. 그러나 지혜는 도식화된 등식을 초월한다. 어떤 틀을 부수기도 한다.

가방과 보자기를 보면 이해가 쉽다. 가방은 가방이라는 틀 속에서만 역할을 충실히 한다. 그러나 보자기는 틀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가방은 지식이요, 보자기는 지혜에 비견할 만하다. 보자기는 다용도이기도 하고 신축성이 있어 물건을 쌓을 때 더 구겨 넣기도 한다. 보자기는 관용의 표상이기도 하다.

살다 맞닥뜨리는 위기 대처능력은
지식 아닌 지혜에서 얻어져
지식으로 사람 됨됨이 평가는 우매
지혜의 삶 속에는 평등·질서 있어

지식의 유무에 따라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려고 하는 속단은 금물이다. 많이 안다는 것과 각자의 삶의 모습은 거리감이 있는 사례가 쉬 드러나고 있다. 마치 정화작용을 거치지 않은 물과 같다. 그러한 물을 음료수로 마시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인간의 거친 행동은 지식으로 잠재울 수 없다. 지혜가 광선으로 번득일 때 그곳에 평등이 있고 질서가 있다.

약속을 하지 않았건만 대지를 박차고 내미는 노랗고 야린 새싹에서 약속을 배운다. 진실을 배우기도 한다. 지난봄이 가면서 내년 이맘 때 온다는 언약이 없었건만 절기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약속 없는 약속을 지킨다. 자연의 지혜다. 이기적인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꾀하지 않는 한 본래 모습대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진실을 자연의 유일한 소유물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속단이 될까.

‘임금 왕’ 자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강백의 번뇌는 비단 그들만의 몫으로 남지 않는다. 문자에 걸리고 집착하면 누구나 강사의 모습이 된다. 탈속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룩진 마음의 변함없는 구원 투수가 아닐까 한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대 구 연락처
대구 (지장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053)632-0078
010-9243-0113 범성스님 합장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 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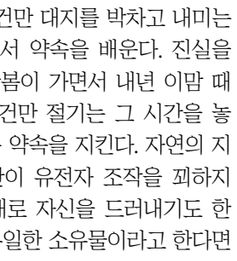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참 좋은 인연입니다.
세계속의 중심사찰 건립 불사를 위한 천일기도 자비방생 천도도량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부여군민과 함께하는

제3회 부여군관내 어르신 1000분 초청 효(孝) 잔치한마당

귀의 삼보하옵고
천지만물이 소생하고 녹음이 푸르런 계절을 맞이하여 연각사에서는 4월 28일(토요일) **제3회 부여군 관내 어르신 1000분 초청 효(孝) 잔치 한마당**을 개최하오니 뜻있는 많은분들께서는 후원물품과 자원봉사에 정성껏 동참하시어 무량한 대복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본 자비행사는 BTN 불교TV와 함께 합니다.



대연각사 회주(불일)큰스님의 중생교화상

- 일 시 : (불기 2556년) **2012년 4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 3시까지**
- 장 소 : 부여청소년수련원 대연각사 앞 광장 (특설무대)
- 주 최 : 금성산하 대 연 각 사 회주(佛日) (신도회 일동)
- 협 찬 : 읍사무소, 문화관광과,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운불련, 건양대요양원, 정심회, 옛소리연구회,동락, BTN불교TV, 충청방송, 적십자봉사, 대전일보, 중도일보, 금강일보, 충청매일, 충청신문, 동양일보, 충청투데이, 중앙매일, 중부매일

행 사 일 정 표

- 대연각사법당 법회 10:00~10:50 • 9시 40분 ~ 10시 (동락풍물놀이)
- 집전 대연각사 스님 11:00~11:50(찬불가 합창단)

【1부】 **11시~11시 50분** 1. 삼귀의 2. 우리말 반야심경봉독 3. 찬불가 4. 대연각사 회주 불일 큰스님 환영사 5. 축 사 – 부여군 이용우 군수님 6. 축 사 – 부여군의회 김종근 의장님 7. 사홍서원

【2부】 **12시~1시(점심식사)** (순두부찌개, 떡, 과일, 차, 음료) **12시~12시 30분 (동락풍물놀이)**

【3부】 **1시~2시(옛소리연구회)** 사물놀이→각설이→창→살풀이→대금→한량무

【4부】 **2시~3시** 이미영에어로빅, 박진경댄스아카데미. 최정원밸리댄스. 굿뜨래가수 / 박정은, 박건아, 장소미 가수/이자향 불자가수/머루다래

전체, 총출연자 – 산회가, 아리랑 합창

1. 2부 사회자 / 불자가수 머루다래
3. 4부 사회자 / 불자가수 머루다래, 장소미(가수)
교통정리 • 경찰서, 운불련
안전사고 • 소방서 응급차량대기, • 부여 보건소 간호원 대기, • 건양대요양원 간호사 혈압체크
부수운영 : 뜸치료, 수지침 무료봉사
봉사 : 대연각사 신도회, 부여군청년불자회 정심회, 운불련, 부여새마을부녀회
주변정리 정림사지(캠페인, 백제유적을 빛냅시다)

금 성 산 하 대 연 각 사
회주(佛日)(신도회 일동) 합장

문의전화 : **041)835-3933**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415-9번지 **후원주실분 : 농협 463143-51-009534 (예금주 : 연각사)**

과학계, 명상 효과 유용성에만 주목

포레 교수, 한정된 연구주제 · 방법론 매몰되지 말 것 강조

명상은 불교 수행의 테두리를 벗어나 과학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선지 오래다. 명상의 효과를 밝히고자 신경과학계 등의 과학적 연구들이 속속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이 라마 역시 뉴로사이언스학회(Society for Neuroscience, SfN) 등에 참석, 명상을 연구 주제로 삼은 과학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과학적 접근이라는게 명상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사유나 실천보다는 그 효과나 유용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

호주 일간지 브리즈번타임즈(www.brisbanetimes.com.au)가 4월 10일 샤키 재단(shaky foundation)을 방문한 미국의 버나드 포레(Bernard Faure · 콜롬비아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 "명상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관련 과학자들이 그 효과나 유용성에만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명상과 과학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샤키 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포레 교수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 두뇌의 변화에 가장 큰 긍정적인 요소가 바로 명상인 것은 분명하다"고 연구의 가치를 북돋우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명상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낳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그는 "2004년 이후 신경과학계는 공명영상촬영 등의 과학 자재를 동원해 명상하는 사람의 뇌 활동이 매우 안정적이고, 복지와 관련된 뇌의 감성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이는 명상이 활력감이나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며, 잠재력이나 창의력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레 교수는 "일련의 연구들이 눈부신 과학적 성과를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그 연구의 규모는 명상이 가지고 있을 깊이와 비교할 때 단지 알반 수준의 과학적 검증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명상을 주제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정신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정도의 시도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과학자들이 자신의 알고 있는 영역에만 매몰된 채, 명상 관련 연구의 결론을 빨리 얻고자 한다면 불교계 안팎의 거센 비평적 의문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즈번타임즈는 뉴사우스웨일즈(NSW) 불교평의회 브레인 화이트(Brian White) 회장의 말을 인용, "호주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명상에 대한 관심은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과학적인 검증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해 포레 교수의 말에 힘을 실었다.


시드니 명상센터에서 대중들과 명상하며 바지라야나(Vajrayana) 연구소의 '명상과 정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툽텐 쵸키(Thubten Chokyi · 사진 맨 앞줄 오른쪽) 스님. 스님은 "지금 명상을 배우는 호주인들은 종교적인 기반의 유무를 떠나 명상을 하면서 정신적인 유연성을 키우고 불안과 걱정을 경감시키는 것 자체에 매우 만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에쉬필드의 바지라야나 연구소에서 명상과 정신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툽텐 쵸키(Thubten Chokyi · 사진 맨 앞줄 오른쪽) 스님은 "지금 명상을 배우는 호주인들은 종교적인 기반의 유무를 떠나 명상을 하면서 정신적인 유연성을 키우고 불안과 걱정을 경감시키는 것 자체에 매우 만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드니 명상 센터 케빈 휨(Kevin Hume) 박사 역시 "명상을 배우겠다고 찾는 사람들에게 과학적 혹은 종교적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은 마치 대공항기의 주식 가격을 보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인의 눈으로 티베트 불교 연구

세계의 불교학자(14)

제프리 홉킨스 美 버지니아대 교수



제프리 홉킨스 교수(Jeffrey Hopkins)는 미국 내 티베트 불교학을 정립 · 발전시킨 학자이다. 그는 1973~2004년 美 버지니아대 종교학과의 인도-티베트 불교 전공교수로 역임했다.

서구에서의 티베트 불교학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약탈한 자료에 서구적 해석을 더한 것이었다. 제프리 홉킨스 교수는 편협한 서구적 시각을 탈피해 티베트 불교의 입장에서 티베트 불교학을 연구한 학자로 평가된다.

홉킨스 교수는 저서 〈공성에 대한 사색(Meditation on Emptiness)〉과 〈공의 수행 (Emptiness Yoga)〉를 통해 그동안 관념적 · 추상적으로 이해되던 공성(emptiness)을 재해석했다. 그는 "공성은 구체적인 실재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명상의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홉킨스 교수의 '공성에 대한 사색'은 기존의 티베트불교와 철학을 이해하던 서구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의 학설은 티베트 불교의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프리 홉킨스 교수는 티베트어로부터 번역한 전문용어들을 티베트어로 다시 환역했을 때에도 티베트어의 의미에 손상이 없도록 힘썼다. 홉킨스 교수는 티베트어를 영어로 번역한 뒤, 그 영어 번역을 다시 티베트어로 옮겼을 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번역할 수 있도록 했다. 제프리 홉킨스 교수의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그의 연구성과는 많은 티베트 관계 영어 서적들의 표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제프리 홉킨스 교수의 저술은 30여 권, 논문은 60편 이상이다. 홉킨스 교수의 저서와 번역서는 티베트 불교학의 중관학과 유식학, 딴뜨라 등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티베트 불교 이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제프리 홉킨스 교수의 저서들은 불교철학뿐만 아니라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고승들의 가르침들을 대중적으로 알리는데도 일조했다. 그의 저술로 인해 서구인들은 티베트 불교에 대한 신비주의적이고 피상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티베트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연구법은 티베트인들이 사원에서 학습을 하는 체계와 순서, 특히 겔룩파의 게쉬(최고 학승) 학습 과정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티베트 사원에는 승려 기본교육 가운데 인식의 대상에 대한 정의와 분류법이 있다. 그는 이러한 정의와 분류법을 티베트 독해시간에 가르치며, 그것을 응용하는 티베트식 논쟁법인 째바를 티베트어 회화 시간에 함께 가르쳤다. 제프리 홉킨스 교수의 교수법은 미국에서는 유일한 티베트 논쟁법 강의로 알려져 있다.

제프리 홉킨스 교수는 인도에서 얻은 기생충질환으로 1991년에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고초도 겪었다. 이 같은 병고는 그로 하여금 2004년 5월 강의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결심케 했다.

홉킨스 교수는 "티베트 · 몽골에는 그 진가가 밝혀지지 않은 엄청난 양의 문헌들이 학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들에 대한 번역과 이해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티베트 · 몽골 문헌에 대한 번역과 이해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이러한 문헌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실재에 대한 투철한 이해를 돕는다"고 설명했다.

서구적 해석 편중된 티베트불교
티베트불교 입장에서 접근 신선
공성(空性) 등 용어번역 완벽
"한계 볼 수 없는 스승" 제자들 극찬

홉킨스 교수는 제자들에게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내일이라도 금방 끝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간에 이르렀을 때는 점차 시들해지고, 곤란한 일들에 좌절하게 된다. 결국 공부의 끝을 보기란 쉽지 않다"고 말해왔다.

특히, 제프리 교수는 "번역과 분석에는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인내하라. 한 가지 번역 등의 일을 한 뒤에, 그 이전의 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잊고, 마음과 몸을 재충전한 뒤에 새로 시작하라"라고 당부했다.

미시건대 교수인 도날드 로페즈는 스승 제프리 홉킨스 교수에 대해 말했다.

"제자로서 스승을 모시며 가장 슬픈 순간은 스승의 한계를 볼 때이다. 하지만, 나는 홉킨스 교수에게서 단 한 번도 그러한 한계를 보지 못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스리랑카, 타밀족 근거지에 사원 건축

정치 수단으로 불교 선택한 것인가
타밀족 국회의원들 우려·반발 거세


타밀족은 스리랑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전 종결 4년이 흐른 지금도 스리랑카에서 '난민 아닌 난민'의 처지로 살아가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가 종교 · 문화적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타밀족의 주거 지역에서 사찰 건축에 나서, 싱할리족(불교)와 타밀족(힌두교) 간의 불협화음이 다시 일고 있다고 스리랑카 온라인 매체 타밀넷(www.tamilnet.com)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자야위크레마 페레라(Jayawickrema Perera) 의원이 최근 열린 스리랑카 정기국회에서 "자신의 수행처로 동쪽이나 북쪽에 있는 사찰을 선택한 스리랑카 스님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스리랑카 수상 D.M. 자야라뜨네(Jayaratna)에게 "재정난에 직면한 사찰에게 기존의 지원금 외에도 매달 5천 루피를 더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페레라 의원은 스리랑카 북쪽에 위치한 꾸루네갈라(Krunegala) 시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자 스리랑카 집권당인 국민연합당(United National Party) 당원이라는 점 때문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스리랑카에는 고위가마(govigama)처럼 높은 계급 출신으로 출가한 스님 1만6천 538 명과 일반 계급 출신으로 출간한 스님 4만2천803 명이 있다. 반면 스리랑카 불교부에 등록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찰 수는 9천654 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싱할라족이 밀집해 있는 스리랑카 서쪽과 남쪽에 위치해 있다. 수행처로 삼기 위해서는 고위가마 출신으로 말왓타사(Malwatta) 아스기라야(Asgiriya) 승단에 출가해야만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스님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이다.

한편 타밀넷은 "내전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종교를 타밀족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아일랜드, '가톨릭의 옷을 벗다'

틱낙한 스님 11일 더블린서 대중법회…2천명 운집

틱낙한(Thich Nhat Hanh) 스님이 4월 11일 더블린(Dublin) 컨벤션 센터에서 2천여 명의 아일랜드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대중 법회를 봉행했다고 아이리쉬타임즈(www.irishtimes.com)가 보도했다.

이날 법회에서 틱낙한 스님은 "동서양의 젊은이들이 아버지를 불신하고 원망심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젊은이들의 몸은 온통 아버지"라며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해 화를 내면 바로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英, 제10회 불교국제영화제 성료

런던 아폴로 피가딜리 서커스 극장서 5일간

박철관 감독 '달마야 놀자' 출품

영국 런던에서 제10회 불교국제영화제가 4월 11~15일 아폴로 피가딜리 서커스 극장에서 성료됐다.

온라인 매체 런더니스트(Londonist, londonist.com) 지와 씨네-비(CineVue, www.cine-vue.com) 지는 "제10회 불교영화제가 '호 패밀리 재단(The Robert H. N. Ho Family Foundation)'의 후원과 코톨드 미술연구소(Courtauld Institute of Art)의 불교예술포럼(Buddhist Art Forum)의 주관으로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카도 나오키(Naoki Kat?) 감독의 ' 아브락삭스(Abraxas · 2010)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길이 안보이시나요?
광륵선원으로 오세요
불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경전 강좌
광륵선원 아함경 강좌 개강
광륵선원에서는 부처님 원음이 생생하게 수록되어 있는 아함경을 법문 순서대로 강의합니다.
한국불교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고 고익진 교수님의 강의 테이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장 소 돈암동 광륵선원 5층 법당
개강일시 2012년 4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 9시(주1회)
모집인원 15명
법 사 안승준 법사
연 락 처 02)932-2432 010-5208-9733
※ 그동안 불교공부를 하면서 확신이 없거나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은 불자님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상담시 고익진 교수님의 '불교의 체계적 이해'와 '불교이야기' 책을 드립니다.
※ 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 역 4번 출구에서 300m 돈암초등학교 정문 앞.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00번지 복전빌딩 5층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 차량운행 : 조계사앞 매주 토요일 저녁7시
(차량기사 : 010-4941-5713 예약 필수)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1차 백일기도 (매회 회향일 마다 합동천도재 봉행)
■ 기 간 : 2012년 3월 25일 ~ 7월 2일
■ 내 용 : ①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
② 법화경 사경
③ 염불 ④ 108배
(동참 불자님은 위 4가지 중 한 가지 선택)
■ 동 참 금 : 10만원 (전화접수 가능)
■ 전 화 : 032) 932-3525 / 010-5282-3550
※ 부처님 봉안불사 동참자, 개금불사 동참자(접수중)는 천일동안 축원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공 고
본 종단의 종정스님의 사직으로 인하여
종단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대책위원회에서는 부종정 각호스님을
종정대행으로 추대하였으며,
본 종단비상대책위원회
(종회의장 혜명스님)에서는
종단을 혁신하기로 의결함과
동시에 총무부장(설진스님)을
총무원장 대행으로 공고함.
전 총무원장 무각 해명공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 총 무 원 장 대 행 : 총무부장 설진
□ 종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종회의장 혜명
2012(불기 2556)년 4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

귀를 다스리며 깊은잠을 들게하는 선조들의 지혜

100% 수작업으로 만든 안전한 제품, 10년 동안의 연구와 논문으로 특허

저는 예로부터 봄철에 물이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조심스럽게 벗겨 내어 말려 귀에 꽂고 불을 붙여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이봉입니다. 어디에 좋은지 왜 그렇게 했는지 오래도록 알 수 없었지만 꼭 필요한 분들끼리 그 방법을 알고 전해내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100% 수작업 안전필터로 귀를 보호

닥나무 전통 최고급 한지를 십 여 가지가 되는 자생초를 우려낸 물에 담갔다가 다시 말리기를 반복해서 그 효과와 기운이 한지에 스며들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 꾸지뽕 잎사귀를 빻아 쑥뜸처럼 촘촘하게 만든 필터로 중간부분을 막아 이명에 좋다는 꾸지뽕의 효과는 귀로 스며들고 귀속의 안전도 지켜 일석이조의 효과이지요. 귀로 스며든 저의 기운은 아주 오랫동안 한 번도 창문을 열어주지 않은 축축하고 습한 머리와 귀 전체에 자생초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줍니다.

스트레스, 무거운 머리,쉽게 화가날 때

컴퓨터나 핸드폰을 장시간 이용하는 현대인들은 귀가 먹먹하고 불안, 긴장감도 큽니다. 이봉을 사용해 보신 많은 분들은 머리가 가벼워지는 이 경험을 놀라워하십니다.
저를 한 번 경험해보신 분들은 오랫동안 저를 잊지못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귀와 눈이 환해지고,마음이 편안해져서 몇 시간 동안 잠을 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중력 부족한 학생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은 아래 논문을 간단히 소개한 내용을 꼭 참고하셔요. 꼴지 뇌파가 일등 뇌파로 바뀐답니다.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구요, 물론 직장인들 너무너무 힘드시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다고 저를 많이많이 좋아라 해주십니다. 잠자리가 뒤척여지고 밤이 무서운 분들도 저를 꼭 만나보셔요

해외의 제품 함부로 사용 말아야

전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귀와 머리를 맑게 하는 제품에 대한 흔적은 대한민국과 인디언 뿐이라고 합니다. 인디언의 벽화에서 발견된 그림을 독일사람들 이 힌트를 얻어 의약품으로 승인 내어 쓰고 있다는 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조악하고 위험하게 만들어진 한 개에 100원하는 비슷한 제품을 관광 다녀온 분들이라면 보셨을 거에요. 절대 조심하셔야 해요. 해외에서 쓰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이봉이 있어요. 우리 것을 아끼고 알리고 쓰셔야지요.

귀가 멍하고 귀울림 있을 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오래 전부터 청주에 있는 어느 사찰에서 주지스님이 신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이봉을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신자가 아닌 낯선 할아버지, 할머니 몇분이 찾아오셔서 혹시 이곳이 아무아무게 할아버지가 다니는 절이 맞냐고 하시더랍니다. 스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본인들도 귀에다가 무엇을 꽂고 태워준 그걸 좀 해봐야겠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쭸더니, 며칠 전 이 절에 다니는 아무게아무게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할멈이 궁시렁 궁시렁 잔소리를 해대는데 노망이 들었는지 하루종일 중얼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평소 다니시던 절에서 주지스님이 귀에 뭔가를 태워 주셨다는데 바로 그것이였구나, 원래 이 할머니는 잔소리 많기로 동네에 유명한 분이신데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는 그걸 모르셨다가 바로 이봉을 몇 번 받으시고 할머니의 잔소리를 듣게 되신거지요, 눈도 환해지고 코도 뚫리는 시원하고 재밌는 이야기지요?

일본,뉴욕의 유명 뷰티숍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

뉴욕에서 매우 잘나가는 뷰티숍에서도 저를 만나실수 있답니다. 해외에서 한류를 타고 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어요. 곧 이봉을 많은 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참 ~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중 입니다.
궁금하신 분 들은 모두모두 오십시요. 특별한 시연행사도 합니다. 물론 저를 만나실 수 있는 전국의 한의원도 많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전문 상담원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압현상(SUCTION 효과)

이봉을 태우면서, 미세한 온도의 변화는 귓속 피부온도에 전달, 귀주변의 조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은 일부 높아진 온도로 인해 기화되어 밖으로 배출된다. 이봉을 태울 때 봉 안쪽은 높아진 공기온도로 인해 감압상태가 되어 귓속의 정체된 공기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이때 귓속에 쌓여있던 노폐물은 기화되어 이봉으로 배출된다(suction 효과). 기화된 노폐물은 낮은 온도의 봉내벽과 부딪치면서 다시 고체로 변한다. 기화된 노폐물이 이봉 벽에 부착되거나 이봉 안에 쌓이게 되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노폐물은 귀뜸봉을 하지 않는 한 배출되지 않는다.

눈이 침침하다
귀가 어둡고, 어지럽다.
아이가 폭력적이다.
집중력이 없고 산만하다.
기(氣)가 뻥 뚫립니다.

진정한 이완감, 휴식
화락하고 안온한 기분
좌우뇌의 온전한 밸런스

이봉의 원료의 성분 등이 기화되면서 대류현상에 의해 피부조직으로 스며들어, 효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 확인된다. 원료는, 전통적인 제법의 한지와 꾸지뽕, 인동초,쑥, 박하, 구기자, 창포등을 여러차례 적시고 음건하여 예로부터 자생초의 약리작용을 활용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결과적으로 이봉을 통하여 귀 주변과 나아가 귀를 통해 뇌와 근접한 기관의 기혈의 흐름을 왕성하게 하므로 그 결과, 이봉을 뜨기 전과 뜬 후의 뇌파비교를 통해 뇌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뇌 과학의 신기술과 실용적인 뉴로피드백 원리인 뉴로하모니로 거울 보듯이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바란스가 깨진 뇌압이 균형을 찾으면서 스트레스(직장인, 수험생, 가중한 학습을 하는 초등, 유아)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불안심리, 기분장애 등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뇌 질환 및 귀관련 은 물론 뇌 신경들과의 상호 합목적 적인 소통으로 오관(눈,코,귀,입)의 기능을 바르게 하고, 정신활동의 방해를 초래하는 ADHD 등 학습 장애, 정서장애를 개선할 뿐 아니라 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다. 뇌는 신체의 사령탑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봉의 체험은 뛰어난 가정생활요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음을 씻어주는 귀뜸봉은 곧 뇌를 씻어내는 것임을 뇌파의 변화에 의해 기분 변화, 상태변화, 눈, 코, 귀, 목, 뇌 등의 변화를 가져옴을 알게 한다. 이봉으로 현대인들의 심각한 뇌와 귀건강을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정지혜원장,김재수박사의 논문 중

"만명이 넘는 임상과 체험자들의 관심속에 여러분들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귀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 체험 후 다양한 변화들 중 머리가 맑아지는 원인을 찾았고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이봉 체험 후 평온하고 안정한 뇌파로 바뀌는 놀라운 사례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을 통하여 귀 주변 나아가 귀를 통해 뇌와 근접한 기관의 기혈 흐름 등을 왕성하게 하여 귀의 건강 뿐만 아니라 뇌압의 균형을 찾고 숙면을 취한 듯 머리를 맑게 하고 차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신경과 상호 합목적적인 소통을 갖는 오관(눈,코,귀,입)의 기능을 바르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개발특허: 김 지 문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수험생 및 직장인의 스트레스 해소 불안과 불면증, 시험증후군, 수면부족, 강박관념,우울할 때, 눈이 침침하거나 정신집중이 필요하신 분. ADHD중후군 면역 기능강화,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 출장이 잦은 분, 휴대폰과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 등등..편안한 휴식과 함께 누워서 이봉을 귀에 대고 불을 붙이게 되면 귀를 통해 우리땅 가까운 곳에서 자란 건강한 자생초의 활기와 따뜻한 약제로 가득 채워져 가벼운 압력과 굴뚝효과로 머리속의 압박감이나 통증을 없애주며 시원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귀가 밝아지고 막혔던 코가 뚫리며 숨쉬기가 시원해지고 후각이 살아나 냄새를 잘 맡게 되는 것입니다.

〈YTN방영 캡쳐〉



10여가지 원료를 다려낸 농축액에 적신 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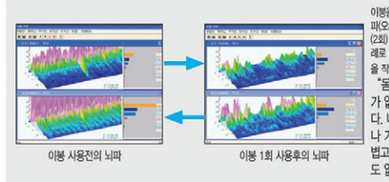
2중 안전 장치로 귀를 보호



음건하여 봉으로 만듬

[이(耳)봉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효과 사례]

성별/나이/성명	증상	횟수
남 / 69 / 운 0 0	고혈압, 당뇨, 편두통, 눈이 침침, 귀가|먹먹하다	11회
변화 / 느낌	머리속이 개운하고, 두통해소, 시력회복, 날아갈 듯한 기분 피부가 윤택해 보이고, 화색으로 젊어 보임	



이봉 사용전의 뇌파 / 이봉 1회 사용후의 뇌파

이봉을 하기 전 뇌파 (왼쪽그림) 이봉을 한번하고 나서 뇌파(오른쪽그림)의 진폭이 높아져 다시 이봉을 하고 나니 (2회) 진폭이 현저히 낮아진 뇌파였지만 먼길을 오신 관계로 한번 더 해드렸다. 체험 후 느낌과 변화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데
"돋보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글씨를 쓸 수가 없는데, 글씨가 잘 보인다면서 어, 신기하다. 나 이런 글씨는 안보였는데..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였다. 날아갈 듯 기분이 좋고 몸도 가볍고 상쾌하다. 귀속도 개운하고, 머리 아픈 것도 없어졌다.



특허제 10-0839663호
〈특허명 - 이비인후과 질환 치료보조용 원통형 뜸봉 이외의 제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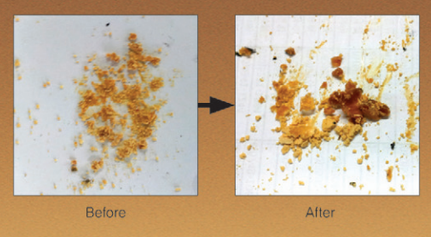
비염 / 우울 / 귀먹이
편두통 집중력 미약에
관한 임상을 통해
호전된 결과

[2008년 6월 특허등록]

귀울림! 스트레스! 어질어질! 잘 안들리세요?

이(耳)봉

유사품이 많습니다. 주의 하십시요.
국내특허와 연구 임상 제품은 이(耳)봉 뿐입니다.
www.ebong.co.kr


Before / After

이젠 그동안 등한시 했던 가장 중요한 머리 · 耳 에 관심을 가지세요

1. 귀가 시원하고 잘 들린다.
2. 눈이 시원하다. 시야가 안개 걷힌 것 같다.
3. 코가 뻥 뚫린다. 냄새를 맡게 되었다.
4.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다.
5. 기분이 좋다. 상쾌하다.
6. 몸이 가벼워 붕 떠 있는 느낌이다.
7. 피곤이 풀리고 개운하다.
8. 잠을 자고 일어난 느낌이다.
9. 묵직하게 무거웠던 머리가 가볍다.
10. 시원하고 맑은 느낌이다.

"龍"의해를 맞이하여 원암 김지문선생의 "龍"자를 선착순 30분에게 증정합니다.



[주요경력]
· 대전충남서예가협회 초대작가
· 불료미술대전 종려상
·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상
· 대한민국 서예대전 문인화 입상
· 대한민국 현대 서예대전 입상
·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3회
원암 김 지 문

〈아이들〉
꼴찌 뇌파를 일등 뇌파로!!
- 산만한 아이
- 집중력 부족

〈성인〉
-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다
- 사소한 일에도 격분한다
-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진다

선착순 100분
20% 할인

주문전화
1544-0272

〈대리점 모집 30인 이상 시연행사 가능〉 동부화재-배상책임보험 1억원가입 수산동천영농조합 입금계좌:[농협] 1544-2395-29(예금주:이은아)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기독교 신학자들도 효사상 주목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과 효사상(孝思想)

며칠 전 박물관 수장고서 오래 전에 어느 주지스님께서 퇴임하실 때 갖고 가셨다가 반환한 불서 전적류를 살펴보다가, 고본(古本) 첩장본(帖裝本, 병풍처럼 펼쳐 볼 수 있게 만든 책)과 함께 겹쳐져 있는 책을 한 권 발견했다.

융경(隆慶) 5년 신미년(선조 4년) 정월에 경상도 상주지(尙州地) 사불산(四佛山) 대승사(大乘寺) 개간(開刊)이라는 간기가 적혀있고, 목판을 직접 판각한 스님인 각수(刻手) 의련(儀璉), 공양주(供養主) 조환(祖還), 대화주(大化主) 희준(熙峻) 등의 이름이 나란히 쓰여 있는 책이었다.


융경5년본 보무은중경 동화사박물관 소장본

책은 다름 아닌, 경북 문경 지역 내에서 발간된 가장 오래된 고서(古書)로 내제(內題)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인 불서와 동일본(同一本)이었다.

중국 고대의 효자 곽거, 정란 등 효행 기록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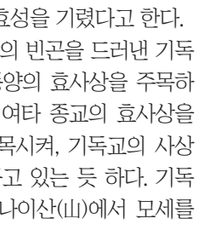
〈부모은중경〉은 육방예경(六方禮經), 목련경(目蓮經), 우란분경(盂蘭盆經)등과 함께 불교의 효사상을 대표하는 경전이다. 물론 이 경전은 인도불교가 중국에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변용(變容)을 거듭하면서, 독특한 중국불교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당나라 초기의 위경(僞經)이다.

돈황본 부모은중경에는 빠져 있지만, 당나라 지승 스님이 찬술한 위경과 불전목록인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 730년)에는 중국 고대의 효자인 곽거, 정란 등의 효행공적을 적은 기록이 나온다.

1세기경 정란(汀蘭)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모친의 모습과 똑같이 생긴 나무로 만든 조각상을 만들어 두고, 살아계셨을 때와 똑같이 조석으로, 지성으로 모셨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장숙이란 사람의 부인이 물건을 빌리러 왔는데, 정란의 아내는 평소처럼, 조각상에 가서 물건을 빌려줄지 말지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장숙 부인은 이런 행동을 보고, 못마땅했든지 조각상에 물건을 던지며 욕을 하고 가버렸고, 조각상도 바로 불쾌한 모습을 보이고, 정란이 처도 물건을 빌려주지 않았다. 장숙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곧장 찾아와 조각상에 욕을 하고 가버렸는데, 정란이 집에 돌아와 보니, 조각상이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상황을 파악하고 난 후, 정란이 칼을 가지고 가서, 장숙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나 거절당한 후 정란은 장숙을 죽이고, 관리들에게 끌려가는데, 조각상에게 작별을 고하자 조각상이 눈물을 흘렸다. 이를 본 관리들은 정란을 풀어주고, 그 효성을 기렸다고 한다.

최근 들어 사상의 빈곤을 드러낸 기독교 신학자들은 동양의 효사상을 주목하고, 유교(儒教)와 여타 종교의 효사상을 기독교신학에 접목시켜, 기독교의 사상적인 부흥을 꿈꾸고 있는 듯 하다. 기독교의 신(神)이 시나이산(山)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이후 오늘날까지도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본 생활규범이 되고 있는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主)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리라"이다. 이 계명 외에 신구약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에는 특별히 부모에게 효도한 실제적인 자료는 별로 없다. 그리고, 이 계명은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인 그들의 신에게 효도하라는 의미로 바뀐 지 오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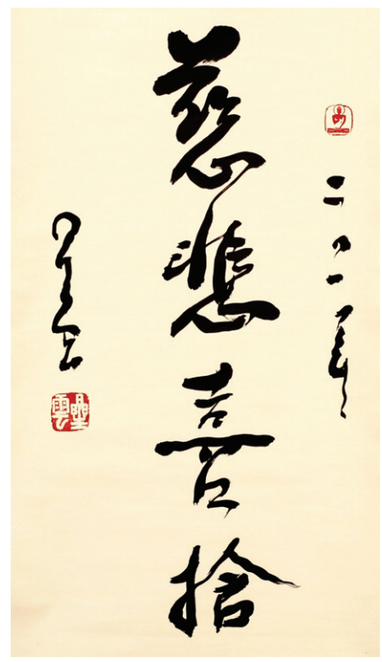
기독교는 사라져 가야할 구시대의 유물인 것 같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미풍양속이 파괴되고, 전통문화가 말살되는 현실에 많은 불자들의 깨달음이 필요한 시기이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心眼으로 내려 그은 일필휘지"

불광산사 성운스님 서예전시회 개최
4월 22~30일까지 서울 불광산사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등 30여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성운 스님은 수행의 방편으로 매일 100여 장씩 일필로 붓글씨를 쓴다.


성운 스님은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과 미혹을 없애주는 자(慈)·비(悲)·희(喜)·사(捨)의 네 가지 무량심을 강조한다.

전세계 신도 수 1백만 명, 세계 각지로부터 출가한 스님 2천여 명, 그리고 지구촌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분원 200여 개 등을 갖고 있는 대만 불광산사(佛光山寺)는 단일 사찰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불광산사가 위치한 우리나라의 부산과 비슷한 도시 까오슝(高雄)현은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황무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불광산사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산 전체가 하나의 사찰로 이뤄져 있고 내부에는 주요 전각만 20여 채가 넘을 정도로 대형 사찰이 됐다.

이러한 대형 불사를 맨손으로 일궈낸 인물이 바로 불광산사 개산종장인 성운 스님(86)이다.

성운 스님은 숭산 스님(1927~2004), 틱낫한 스님과 함께 세계적인 고승 중 하나로,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로써 불법을 펼치며, 자선으로 사회복지를 이루고, 수행으로 인심을 정화한다'는 4가지 서원으로 산사를 세웠다.

성운 스님은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를 강조해왔다. 현재 성운 스님은 수행 방편의 일환으로 〈화엄경〉 〈반야심경〉 〈금강경〉 등에서 발췌한 글귀를 서예로 옮기고 있다. 특이한 점은 글씨를 한 번에 써내려 간다는 것이다. 즉 일필휘지인 것이다. 스님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글씨를 쓸 때 중간에 멈춰버리면 필획을 분명히 볼 수 없고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필(一筆)로 완성한다.

이런 방법으로 매일 100여 장씩 붓글씨를 써온 성운 스님은 2005년부터 세계 10여 국가를 순회하며 '불광산 성운대사 일필자 서예 전시회'를 열어왔다. 스님의 전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미국 유럽 UN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자신의 원고비와 인세를 모두 기탁해 '성운대사 교육기금 재단'을 설립한 성운 스님은 전세계에서 서예전시를 통해 기금 마련을 계속 하고 있다. 목표액은 한화로 350여억 원. 이 돈은 건전한 대중매체 활동을 장려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좋은 말, 좋은 일, 좋은 마음' 운동을 전개해 화목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펼치는데 쓰일 예정이다.

서울 불광산사(주지 의은)도 이런 성운 스님의 뜻을 받들어 교육기금마련의 일환으로 '성운 스님 전시회'를 4월 22~30일 개최한다. 장소는 서울 불광산사에서다. 전시에서는 성운 스님이 매일 수행하며 써온 '응무소주이생기심' '자비희사' 등 서예 작품 중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의은 스님은 "성운 스님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중생에 대한 자애심과 불법에 대한 환희심을 느끼길 발원한다"며 "'소아(小我)'에서 '대아(大我)'의 마음으로 획을 내려간 성운 스님의 중생 사랑 정신도 함께 엿보길 희망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성운 스님의 서예 전시는 부산 홍법사(5월 5~6일), 제주 약천사(6월 24일~7월 24일), 서울 구룡사(8월 1~31일)에서도 순차적으로 열린다. (02)2276-0993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禪畵에 무념무상의 경지 펼쳐"

성호 스님 선서화전, 5월 12일까지


성호 스님의 달마도

전남 담양에서 수행하며 선화(禪畵)를 그려온 성호 스님이 고희(古稀)를 맞아 전시회를 연다.

'붓이 흐르고 꽃피더라'를 주제로 전시회를 여는 성호 스님은 4월 28일~5월 12일 광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30여 년간 그려온 달마도를 비롯해 한산·습득 등의 중국 고승을 그린 인물화와 연꽃, 매화 등 선서화 4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성호 스님의 작품 가운데 중국 당나라 때 천태사 국청사의 풍간의 제자로 전해오는 한산(寒山)과 습득(拾得)을 소재로 한 작품은 자유분방하고 광적인 기행의 무위도인을 표현하고 있다.

성호 스님은 1978년 현당 김한영 선생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고 수행과 예술 활동을 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묵화를 택했다.

1983년 대구 시민회관에서 첫 번째 선묵전을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 등에서 몇 차례의 전시회를 가졌던 성호 스님은 수재민 돕기 자선전시회를 열어 수익금을 성금으로 기탁하기도 했다.

1957년 목포 정혜원에서 출가한 스님은 제주 서산사와 목포 정혜원, 광주 원효사에서 주지 소임을 맡았다. 현재는 담양 휴휴당 토굴에서 수행을 하며 선화그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062)383-0107 이나은 기자

"연꽃 10가지 덕목 화판에 옮겨"

김나현 개인전 JH갤러리서


지혜(智慧)-가을 빛, 50×100cm, 장지에 채색, 석채, 백금분, 2011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청렴한 자태로 자신의 향을 퍼뜨린다. 치열한 삶을 사는 우리는 연꽃에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연꽃의 상징성에 주목하고 1999년부터 연꽃을 그린 김나현 작가는 4월 18~24일 관훈동 JH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김 작가는 '지혜-우주의 생명: 연의 생명'을 주제로 전국 연지를 돌아다니며 그린 연꽃그림 20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단편적으로 연꽃 형상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형상이 내포한 의미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자 했다.

연꽃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는 김나현 작가는 이제염오(離諸染汚), 불여악구(不與惡俱) 등 연꽃의 10가지 덕목을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클로즈업 된 연잎이나 연꽃 형상 주변의 배경처리에 변화가 엿보인다. 반복된 점 문양이나 꽃, 잎 등이 뒤얽힌 당초(唐草)무늬를 연상시키는 전통문양들도 등장한다. 그리고 형상 속에 형상을 담은 이중 혹은 다중구성으로 연출된 장면도 있다.(02)730-4854

이나은 기자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 지 순 례

출발 확정 상품

■ 미얀마 성지순례 : 6일, 7일
5월30일, 6월 1일, 6월 8일,
6월14일, 6월21일, 6월23일 요금문의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지장도량(구화산,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6월 1일 , 6월 9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6월23일 요금문의

■ 인도 성지순례 9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여행사 남녀 가이드 견습생 모집

◆ 해외 파견 견습생 2명
◆ 국내 연수 견습생 2명

◇ 서류제출 :
- 여권사진 부착 이력서 1통.
- 자기소개서 1통
- 종단불문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1통.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 호
불교성지전문여행사 주) 마하연 투어
문의 : 02)365-7747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성지순례를 와불법당 미암사로 오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시험합격, 사업번창, 학업성취, 자손득남, 운수대통, 무병장수



세계 최다층 진신사리탑 (33층)

진신사리 1과가 3과로 자연증과된 신비한 영험 33층 진신사리탑



신비한 쌀바위(미암사) (충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부인이 자손을 얻게 해달라고 공을 드려서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소원 성취하였으며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노화가 방지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신진대사가 원활해 집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카페에서 공존공생 모색해요”

강좌 · 재능나눔 · 기부 펼치는 불교계 대안공간 카페 ‘주목’



서울 마포의 카페 숨도는 젊은층에게 불교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대안문화 공간이다. 숨도는 독서클럽 모임 무료전시가 이루어지는 1층과 7층의 세미나 공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4월 12일 7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문화공간 카페 숨도는 에코웨딩 강좌가 한창이었다. 옥수수전분 소재로 만든 드레스, 화분으로 전환 가능한 뿌리째 만든 부케, 유기농 뷔페 등이 소개되자 관중 30여 명은 별세계를 만난 듯 눈빛을 반짝이며 강연을 경청했다.

대기업 프레차이즈의 똑같은 인테리어 똑같은 메뉴의 카페가 거리마다 즐비한 요즘 미래의 새로운 대안 문화를 모색하는 특색 있는 불교 카페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불교진흥원의 숨도를 비롯 정토회 청년부가 주축이 된 오공카페, 티베트 난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직동 그 가게’, 원불교 재단의 싸롱마고 등 불교계 대안문화를 지향하는 카페들을 모아봤다.

숨도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지원하는 카페로 호흡을 뜻하는 ‘숨’과 길을 뜻하는 ‘도’가 만나 생명의 숨결과 진실의 깊이를 뜻하는 공간을 일컫는다. 숨도의 공간은 1층 숨 아일랜드와 7층 숨도 아카데미로 나뉜다. 책극장, 작은전시관, 카페 싯따로 나뉘어진 1층 숨 아일랜드는 주말 마다 활발한 책클럽 모임이 이루어고 생명 존중과 자연 사랑을 주제로 하는 무료전시도 펼쳐진다. 또한 7층 숨도 아카데미에서는 세미나, 명상 · 요가 · 다도 · 에코 수업 등이 펼쳐진다. 특히, 강좌의 경우 1만원 수준이면 들을 수 있어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숨도 박고은 팀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곳이 불교이기도 하다. 그래서 불교색을 조금 뒤로 하고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예술, 환경, 명상 등을 통해 불교 정신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02) 717-3535

지난 4월 1일 오픈 한 서초구 서초동의 ‘오공 카페’도 대안문화 공간 중 하나다. 오십 명이 100만원씩을 투자해 투자자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카페는 서로의 재능과 자원을 나누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조합 개념의 공간이다. 그래서 오공카페는 메뉴개발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함께 만들어가는 카페를 지향한다.

조정훈 오공카페 매니저는 “정토회 청년들이 주축이 되었지만 오십 명의 투자자가 주인이 되어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설립취지에 더 집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여기의 투자자들은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불제자들이 모여 이룬 공간인 만큼 대안 공동체 공간을 확장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취지를 전한다. 또한 오공카페에서는 중국어, 목공예, 단소, 공동체 관련 강의도 펼쳐진다. 만원 안팎의 음료쿠폰 정도만 구입하면 누구나 무료로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대안문화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02)598-8804

‘사직동 그 가게’ 역시 수익금을 티베트 난민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안카페다. 이곳에서는 티베트식 차와 요리 수공예품들이 판매되며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070)4045-6331 이밖에도 원불교 은덕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종로구 원서동의 싸롱 마고는 시민단체와 환경 · 여성단체의 모임 행사는 물론 직장인들의 소그룹 모임과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02)747-3152

숨도 박고은 팀장은 “생태 나눔 내려놓음 등 불교적 가치를 전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런 공간을 찾는 이들은 불교의 실질적 가치가 생활 속에 스며들어 세상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① 오공카페는 회원들의 기부로 이루어지는 카페로 메뉴개발에서 강좌까지 회원들이 주인이 된다. 사진은 4월 11일 메뉴개발 경연대회 장면.

② 숨도는 세미나는 물론 에코, 명상, 요가 등 다양한 문화 강좌가 열린다. 사진은 4월 12일 열린 에코웨딩 강좌 장면.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분황사에 가면 황룡사가 그립다



분황사에 가면 황룡사가 그립다. 본 적도 없는 황룡사가 그립다. 아무것도 없는 ‘그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아깝다. 그 쪽으로 불어대는 바람도 아깝고, 그 쪽으로 날아가는 새들도 아깝다. 그 쪽으로는 불지도 말고 날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쪽으로 가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황룡사가 아깝다. 황룡사는 없는데 분황사에만 가면 황룡사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쪽’으로 걸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황룡사가 그립다. ‘그 쪽’에 서서 분황사를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또 아깝다. 그 쪽으로 불어대는 바람도 아깝고, 그 쪽으로 날아가는 새들도 아깝다. 그냥 그 쪽으로 가는 것들이 황룡사처럼 아깝다.

분황사에 가면 황룡사가 그립다. 아무것도 없는 ‘그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분황사가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분황사에 가면 황룡사가 그립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용담조관 선사의 ‘물에 다다라 읊음[臨水偶吟]’

천지가 하나의 뜬 물거품

步出臨溪上 (보출림계상) 걸음 내어 시내가 다다르니
淸波逝不休 (청파서불휴) 맑은 물결 쉼 없이 흐르네.
細觀無所住 (세관무소주) 자세히 보니 머무는 곳 없어라
天地一浮? (천지일부구) 천지가 하나의 뜬 물거품이네

조선 용담조관(龍潭?冠; 1700~1762) 스님이 포행 하다가 흐르는 물에서 본 ‘공(空)도리’를 읊은 것이다.

스님은 공부하다 물가로 포행을 나섰다. 맑은 물결이 쉼 없이 흐르는 물가에 앉아 가만히 흐르는 물을 바라본다. 머무름이 없이 계속 흘러가는 물에서 〈금강경〉 사구게(四句偈)인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應無所住 而生其心]’의 도리를 깨달은 것이다. 경에서는 색 · 소리 · 향기 · 맛 · 감촉 · 일체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고 하였다. 대상에 반연하여, 경계에 끄달려서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멸하는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空)인 것이다.

첫 구에서 스님은 걸음을 내었다하였고 제3구에서 자세히 보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는 스님 앞에 펼쳐져 있는 흐르는 물인 자연뿐이다. ‘걸음을 내었다’는 것은 출가하여 도를 이루려는 스님의 의지작용을 ‘자세히 보았다’는 것은 스님의 공부가 날로 순숙해져 세밀한 움직임조차도 놓치지 않고 관하는 수행의 진취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리라. ‘물가’는 차안과 피안의 갈림길을 ‘흐르는 물결’은 집착할 것 없음을 ‘뜬 물거품’은 무상함의 도리를 비유한 것 일게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은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는 무게감이 은연중 불법과 일정 거리를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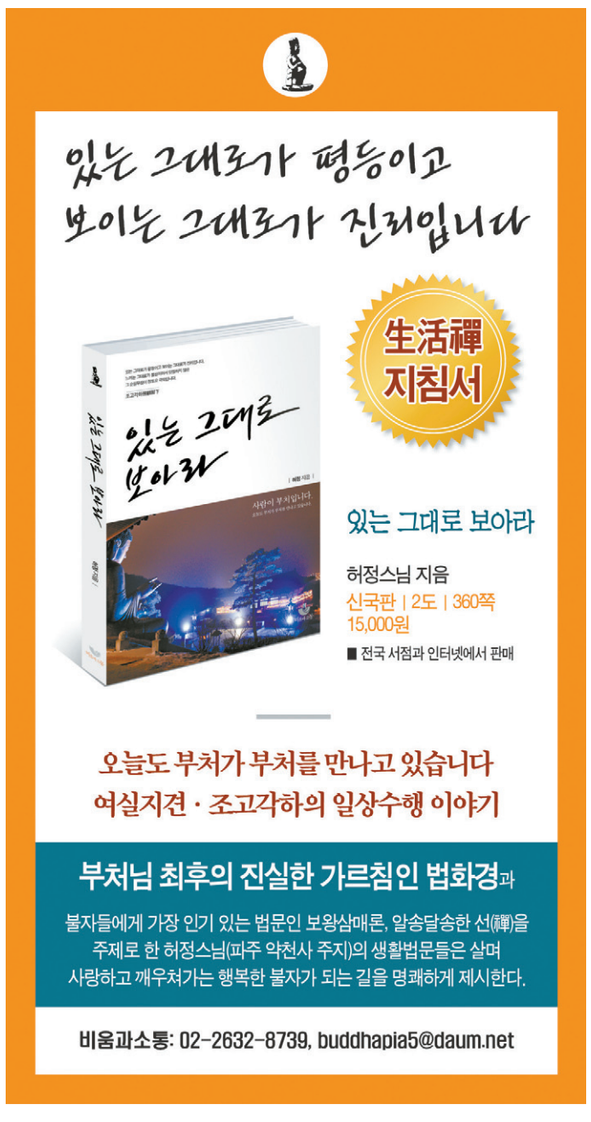
이 시는 내 삶에 펼쳐져 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경에서 표현해 내었을 뿐이라는, 도(道)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였다. 선(禪)은 불립문자(不立文字)라고 하여 깨닫지 못한 이는 ‘이해불가’ ‘해석불가’라는 선시의 관념을 스님은 보기 좋게 무너뜨려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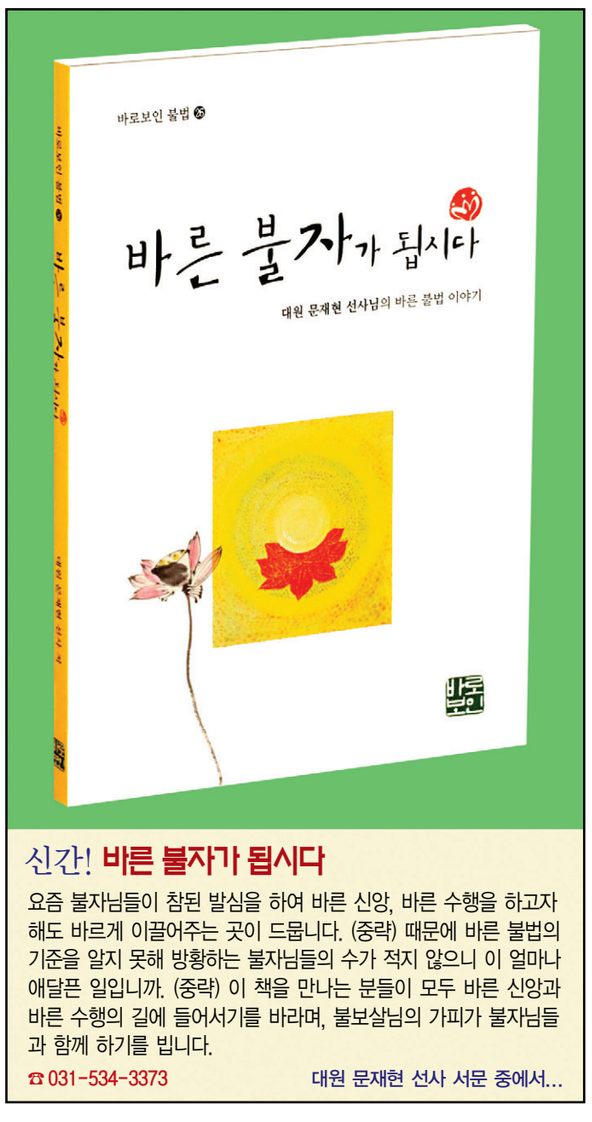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 · 조계종 교수아사리)









“철학·종교 기반한 인재양성 필요”

유·불·도 대강백 탄허 스님의 어록



탄허록
탄허 지음
휴 펴냄
1만2000원



유·불·도 삼교능통 경지 담아
예지·정치 등 5개 분야로 법문 정리

“북극의 빙하가 녹고, 엄청난 해일과 홍수,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일본은 완전히 침수된다.”

50년 전 탄허 스님(1913~1983)이 남긴 말이다. 스님은 6·25직전 스승 한암 스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양산 통도사로 남하했다. 울진·삼척 지방에 무장공비가 몰려들기 직전에는 〈화엄경〉 번역 원고를 월정사에서 영은사로 옮기는 신이를 보이기도 했다.

〈화엄경〉은 범어로 10조9만5048자이다. 한자로 압축된 분량이 100만자이다. 불교학이 발달한 일본에도 〈화엄경〉 번역판이 없다. 전세계에서 자국어로 번역한 것은 탄허 스님이 유일하다. 유·불·도 삼교에 능통했던 스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작업이었다.

〈탄허록〉은 탄허 스님의 어록이다. 책은 스님의 법문을 예지 정치 철학 생사 종교 등 5장으로 나누어 담고 있다.

예지편에서는 대한민국과 주변국의 미래를 내다 본 스님의 혜안을 만날 수 있다. 스님은 한반도가 세계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정치편에서는 지도자의 역량이 국운의 방향타라고 설했다. 스님은 “먹을 게 적은 것보다 공평하게 분해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고 말해 수 십년 전부터 이미 재분배와 복지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철학편에서는 불교적 진리관을 ‘한마음’으로 서술했다. 탄허 스님은 “불교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의 본체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생사편에서는 치열하게 수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유로이 해결하는 법으로 마음공부를 강조했다. 탄허 스님은 ‘고요한 곳에서 도를 닦는 것은 시끄러운데 쓰기 위함이다’라고 밝혀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이 둘이 아님을 역설했다.

종교편에서 스님은 종교가 곧 나의 마음임을 강조했다. 탄허 스님은 “지금까지 서로 자기만 옳다고 했던 교파들이 문을 열고 서로의 장점을 찾아 상봉의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 종교간 화해와 대화를 예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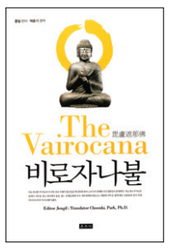
탄허 스님은 생전에 무엇보다 인재난을 걱정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이 돼 전세계로 퍼져 나갈 터이니 미리 철학·종교에 기반을 둔 도덕의식으로 무장한 인재를 양성해야한다는 것이다.

대강백 탄허 스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다.

“살아서 한 말은 다 소용없고, 죽는 순간에 공부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비로자나불 법문으로 읽는 화해메시지



〈비로자나불〉은 비로자나불에 귀의해 40여 년을 출가자로 살아 온 종일 스님이 쓴 책이다.

저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가피와 법문을 사바세계의 동반자인 일반인에게도 알리고 싶어 책을 썼다.

책은 저자가 비로자나불의 위신력을 빌어 전하는 3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인간·자연간 화해 ▷종교 간 화해 ▷지식과 삶의 화해 등.

저자는 “비로자나불은 ‘참나’를 찾게 해주시고 성불하게 이끌어주시는 법신 부처님이다. 고통·극락과 관계없이, 언제 얻느 곳에서나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로자나불 | 종일 편저·박춘기 영역 | 운주사 | 1만2000원

조동섭 기자

서재탐방 | 권영민 단국대 석좌교수

“만해불교전집 발간 인생의 큰 목표”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가이자 독립운동가였다. 또한 한국불교의 근대화를 이끈 선승으로 〈조선불교유신론〉을 간행하고 불교잡지 〈유심(惟心)〉을 발간해 불교계의 혁신과 대중화에 앞장서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 했다.

만해 스님은 ‘님의 침묵’을 비롯한 시 300여 편을 썼으며 〈흑풍(黑風)〉 〈박명(薄命)〉 등의 소설을 펴냈고 당시 조선일보가 폐간되기 전까지 〈삼국지〉를 번역해 연재했다.

생전에 문학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만해 스님의 문학활동과 사상을 40여 년간 천착해오며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대중들에게 알리려는 이가 있다. 바로 권영민(64) 단국대 석좌교수다.

“만해 스님이 얼마나 폭넓은 글쓰기를 하고 승려로서 어떻게 대중들에게 접근하려 했는가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권 교수는 만해 스님에게 특별한 애착을 갖고 지난 해 〈만해 한용운 문학전집 전6권〉(태학사 刊)을 출간했다. 이미 1970년대 초 〈만해전집〉이 나왔지만 주로 한자(漢字) 위주의 연구원들을 위한 자료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권 교수는 기존의 만해전집과 조선일보에 연재하다 폐간으로 중단됐던 〈삼국지〉와 일본 유학 당시 〈화융지〉에 발표했던 11편의 한시(漢詩) 등을 추가해 어려운 말은 주석을 달아 새로 엮었다.

만해 스님의 작품을 통해 현대인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만해 스님은 대중을 끌어안고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모든 인간은 살아야 될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어요. 또한 주체를 인식해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했습니다. 그래서 만해 스님의 작품이 삶과 인간의 존재에 허무를 느끼고 가치기준에서 대혼란을 겪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권영민 교수는 한국문학의 학술연구와 세계화에 진력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국문학자다. 그는 1971년 서울대 문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를 받은 뒤 1981년부터 서울대 인문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근대소설론 연구〉 〈한국계급문학운동사〉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한국현대문학사〉 등 수많은 학술서를 저술했다. 또한 미국 하버드대와 버클리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있을 때 한국문학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2005년에는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개최된 광복 60주년 기념 세계평화시인대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사회문화 활동에도 폭넓게 기여하고 있다.

권영민 교수는 197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래 활발하게 비평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진 문학평론가이기도 하다.

이렇듯 권 교수가 한국문학의 전문가이자 평론가로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던 것은 만해 스님과의 인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의 고향과 제가 살던 곳이 가까워서 어릴 적부터 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긴 하지만 스님과 동향(同鄕)이라는 사실이 제가 문학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권영민 교수는 대학시절 헌책방에서 구입한 최남선의 현대시조집 〈백팔번뇌〉와 정지용 첫 시집인 〈백록담〉을 아끼는 책이라며 보여줬다. 서재에는 1만권 이상의 책이 꽂혀 있다.

만해 스님과 동향(同鄕) 계기로 문학에 눈떠
만해사상 이해하려 禪 관련책 읽고 있어
대중위한 문학콘서트 매월 열 계획

중·고등학교 시절 권영민 교수는 도서관에 있는 한국문학전집은 모두 섭렵하며 소설가를 꿈꿨다. 이광수의 〈무정〉 〈흙〉, 김동인의 〈감자〉 〈배따라기〉, 김동리의 〈무녀도〉, 이효석 〈메밀꽃 필무렵〉 등을 읽으며 문학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 만해 스님과 김소월의 시를 좋아했으며 직접 서예로 ‘님의 침묵’을 써서 미술대회에 출품해 특상을 받는 등 문학소년으로 성장했다.

이후 서울대 국문학과에 입학한 그는 만해 스님 작품을 공부하면서 어렴풋이 알던 스님의 사상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됐다.

“다른 시들은 시를 위해 틀과 격식에 맞추고 어려운 문구를 사용했지만 만해 스님의 시는 달라요. 독자에게 말하듯이 아주 쉽게 쓴다는 것이죠. 만해 스님은 ‘님의 침묵’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님을 노래합니다.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모순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은 참나가 있다는 표현을 뜻 하거든요. 스님은 시를 통해 조국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지금의 내가 바로 부처다’라는 생각을 담으려 했습니다.”

올해 서울대 국문과 교수를 정년퇴임한 권 교수는 단국대로 연구소를 옮겼다. 이곳에서 그는 ‘한국현대문학과 현대사회’라는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권 교수의 연구소 내 서재에는 문학연구서적을 비롯해 해방 이전에 나온 책과 잡지, 문학작품 등 1만권 이상의 책이 꽂혀있다.

권 교수는 한국문학작품뿐 아니라 다양한 책읽기를 시도한다.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과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읽으며 현대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한다. 최근에는 스티브잡스의 자서전을 읽으며 한 인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몰두해 성공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현재 권 교수는 한국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4월 17일 문학의 집 서울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첫 문학콘서트를 개최한 것. 그는 이날 사회를 맡아 ‘이상과 다시 만나다’라는 주제로 이상의 작품과 사상을 조명하고 문학평론가들이 대담을 나누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등 대중적인 문학의 장(場)을 만들었다. 권 교수는 “앞으로 매월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주제로 토론과 공연을 겸한 문화행사를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선(禪)에 관한 책들도 읽고 있다. 불교적 지식과 내공을 쌓아 만해 스님의 불교사상을 이해하고 그가 쓴 〈불교대전〉과 〈십현담주해〉 등 불교와 관련된 책들을 따로 모아 편찬하기 위해서다.

“〈만해 한용운 문학전집〉을 출간할 때 불교관련 저술들은 따로 빼 놨습니다. 제가 불교공부가 많이 된 다음에 정리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앞으로 불교공부를 하면서 만해 스님의 불교사상을 정리해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만해불교전집을 만드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4~4/10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탄허록	탄허	휴
2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마음을 열어 빛을 보다	진제	매일경제신문사
6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원택	글씨미디어
7	마음수업	이광정	휴
8	유식불교의 이해	목경찬	불광출판사
9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10	친절한 간화선	월암	담앤북스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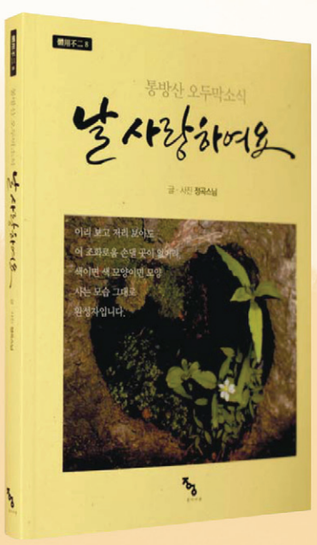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나를
누가 사랑하리오!

정곡스님의 산사 에세이 – 통방산 오두막 소식
날 사랑하여요

경기도 양평 통방산 산골에 오두막 한 채 지어놓고
날짐승, 들짐승, 그리고 자연을 벗 삼아 탁마하며
정진 중인 정곡스님의 산사 에세이

스님은 자연에게서 마음 놓고 받으란다. 자연이 주는 은총을, 혜택을, 아름다움을.
그리고 느끼란다. 느꼈으면 그걸 혼자 감춰두지 말고 나누란다.
스님의 렌즈를 통해 스님이 느낀 자연을 바라보노라면, 자연의 속삭임이 들린다.
스님의 하늘을, 스님의 냇물을, 스님의 꽃을, 스님의 장작불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언어는 다시 자연의 음성이 된다.



글·사진 정곡스님
274쪽 올컬러 | 값 16,000원

통·방·축·전
날 사랑하여요



꽃피는 봄날 〈날 사랑하여요〉 출판기념회 및
음악과 그림과 꽃들의 향연이 있습니다.
요즈음처럼 각박하고 살아가기 버겁게 느껴지는
이 시대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통방축전 〈날 사랑하여요〉에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2년 4월 22일(일) 오전 11시
• **장 소** : 통방산 정곡사

통방산 정곡사 www.jeonggok.org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388-2 | 안내전화 031-772-0319

홈페이지 www.dopiansa.com 전화 02-419-8704 “유리거울은 내 몸을 비춰주고 종이거울은 내 마음을 비춰준다.”

"삶의 핵심은 우리 모두의 행복"

정신과 의사가 달라이라마에게 물은 행복론
나의 행복원하면 남부터 행복하게 해줘야



당신은 행복한가
달라이라마
하워드 커틀러 지음
류시화 옮김
문학의 숲 펴냄
1만5천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미국의 정신과 의사 하워드 커틀러는 처음으로 달라이 라마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다.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는 망설임 없이 "물론입니다."라고 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의심도 가질 수 없는 평화로움과 진실이 담겨 있었다.

'행복에 대한 교과서' 로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아 온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에서 달라이 라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누구나 마음의 수행을 통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후 10년, 세상은 경제 불황, 국제적 분쟁과 소규모의 전쟁,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편견, 의심, 무관심, 인종차별, 갈등, 폭력, 잔인성으로 인해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 우리를 대신해 하워드 커틀러가 행복한 달라이 라마에게 묻는다.

인간은 왜 혼자서 살 수 없는가? 우리가 고독한 이유는? 우리는 언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언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가? 우리는 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가? 인간이 폭력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궁극적으로, 너무도 불행한 장소로 느껴지는 지금의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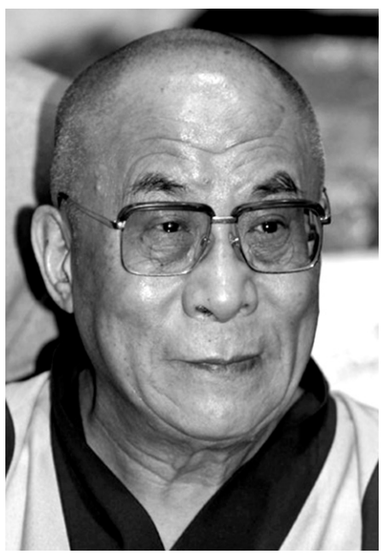
커틀러는 달라이 라마와의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문을 연다. "오늘 아침, 저는 우리 모두가 같은 존재라는 개념에 대해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사람들 사이에 고립감과 소외감이 널리 퍼져 있고, 분리된 느낌과 심지어 불신감이 지배적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이에 대꾸한다. "만일 지금 화성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를 협박한다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나로 뭉칠 겁니다! 모두가 단결해 '우리는 지구인!' 하고 말할 겁니다."

10년 만에 다시 나눈 행복에 대한 특별한 토론에서 달라이 라마는 '혼자 행복해도 되는가,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물음을 던진다.

내가 행복을 추구할 때 다른 사람의 행복은 어떻게 되는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은 어떤 관계인가. 그러면서 그는 말한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고. 나의 행복은 타인에게 달려 있다고. 우리는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불행하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달라이 라마는 삶의 핵심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관점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혹은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다시 던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달라이 라마는 관점을 '자기' 에서 '우리' 로 바꾸라고 제안한다.



Q : 혼자 행복해도 되는걸까?
A : 행복은 공존해야 큰 의미

Q : 왜 '자기' 에서 '우리' 로 관점 변화해야 하나
A : 공동체의식 결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니까

"당신이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사랑을 함께 나눌 인간 동료나 친구들이 없다면 고작 애완동물과 정을 나누는 신세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최고의 두 전문가는 우리가 고독을 느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바로 이 고독감이 현대 세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들은 공동체 의식의 결여가 온갖 문제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강력한 진리를 제시한다.

"당신이 오랫동안 황량한 무인도에 좌초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연히 다른 인간 존재와 마주치게 된다면, 당신은 곧장 그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낄 것입니다. 설령 그가 당신과 아주 다르고 완전히 낯선 사람일지라도. 그때 인간 존재로서의 공동의 유대는 매우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은 개인의 문제이며 사회문제들과 별개로 각자가 스스로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은 사회적인 것과 맞물려 있기에 가난, 불평등, 편견, 정치적 억압 같은 조건들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달라이 라마와 커틀러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 이분법적 구분을 깨려고 시도한다. 그들은 행복은 어느 한쪽이나 어느 한 가지 상황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양쪽 모두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 〈당신은 행복한가〉는 인간이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복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질문하게 만드는 중요한 책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나와 이웃 위해 기도하라

현재 살아가는 삶의 방향 제시
번뇌, 악업 녹이고 선업 키워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운명 탓, 팔자 탓을 하지만, 실제로 이 모두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법안스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명하다.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운명이란 없다"는 것. 따라서 번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아무리 정해진 운명이라도 바꿀 수 있다. 번뇌란 탐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모여 뭉친 것으로, 이러한 번뇌가 모여 업이 되어 운명을 나쁜 쪽으로 이끈다. 다시 말해 사람의 현재, 혹은 미래의 운명은 하나로 이어지는 과거의 업보로 인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 기도와 선행을 통해 과거의 업을 녹이고 현재의 운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 책에서 법안스님은 기도만이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부처님이라는 든든한 '빽' 을 이용해 간절히 기도하고 좋은 것을 구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고,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악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착한 일을 행하면서 산다면 업장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선업이 쌓이면서 인연법에 따라 마침내 운명의 물길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안스님 자신도 7년간 폐결핵으로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다. 하지만 우연히 약사 기도를 접하고 수십 년간 확신과 믿음과 정성으로 정진한 결과, 마침내 자신의 병마도 극복하고 중생의 병도 고치는 약사여래불(藥師如來佛) 신유(神癒) 능력을 얻게 되었다. 책에는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불치병을 고친 스님의 신기한 일화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과 부귀와 풍요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좋은 복을 구하는 것, 즉 기복(祈福)은 잘못된 게 아니다. 다만 욕심이 나쁠 뿐이다. 특히 스님이 강조하는 '복' 이란 '좋은 인연' 을 의미한다. 좋은 인연은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복을 소중히 여겨 잘 빌고, 잘 아끼고 잘 나누면 세상이 맑아지고 좋아져 현실에서 불국토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나와 이웃, 세상을 위해 좋은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는 스님의 가르침은 언뜻 상투적이고 투박한 듯 보이지만 고된 일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작은 울림을 전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한 참된 인생의 길을 제시해 준다. 반드시 불자가 아니더라도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현실에서 얻는 고통스런 마음은 사라지고, 따뜻한 위로와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충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책장을 덮고 난 후에도 어깨를 다독이는 스님의 격려가 오래도록 여운을 남긴다.

"불보살님들을 감동시키고 싶으면 자기 자신부터 감동시키도록 하세요.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인생의 실패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걱정말고 기도하라 | 법안 지음 | 은행나무 펴냄 | 1만4천원 김주일 기자

불교초심자 위한 화엄경 해설서

구어체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도서출판 민족사에서는 왕초보시리즈 중 한 권인 〈왕초보 화엄경 박사 되다〉를 펴냈다. 〈화엄경〉은 한국 뿐 아니라 중국 ·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대승불교사상의 핵심인 반야와 유식사상을 밑거름으로 하여 여래장사상이 싹텄고, 이를 근본으로 화엄의 우주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화엄은 훗날 중국선사상을 형성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즉 〈화엄경〉은 대승불교의 세계관에 대한 완성판이자, 고대국가의 지도 원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또한 〈화엄경〉은 사상사적으로 중국 대륙과 우리나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쳤고, 동양사상의 강력한 조류를 형성했다. 〈화엄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화엄불교의 가르침은 기존의 노장사상과 그 밖의 전통적 사고방식을 원만하게 회통시켜서, 동양인 특유의 관용적인 심성을 함양시켜왔다.

이 책은 방대한 화엄경의 세계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짚어주어 가장 쉽게 〈화엄경〉에 다가갈 수 있는 책이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법을 설하지 않고 보살들이 삼매에 들어 있다가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받아서 대신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보살들이 법을 설한다. 기존의 다른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법을 설하는데, 그와 비교한다면 독특한 구성이다. 이 책은 불교를 조금도 모르는 왕초보를 위한 화엄경 안내 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쉬운 말투(구어체)로 쓰고자 했다. 그것이 초보 불자들에겐 보다 쉽고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불교용어, 불교 책을 딱딱한 개론서나 사전처럼 쓴다면 초보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읽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왕초보 화엄경 박사되다 | 정병조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1천원 김주일 기자

비공개된 42개 문화유산 이야기



무심히 지나치던 우리 문화유산에 작은 의문을 던지는데서 출발한다.

문화재전문기자 출신의 저자는 이런 사소한 의문을 발전시켜 미술사에 국한되지 않은 역사 종교 민속 문학 음악 등 다양한 시각에서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42편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펼쳐놓는다.

저자는 정림사가 물리적인 사비성의 중심일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백제 왕실과 백성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했던 상징공간이라는 점에서, 소정방의 낙서는 승리에 도취한 자의 기고만장함의 결과가 아니라 정밀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연장선상에서 통일신라시대 정림사탑을 닮은 석탑을 세우는 것은 백제계 주민을 자극하던 만큼 백제계 석탑의 건립은 철저하게 금지될 수 밖에 없었다. 후삼국시대 이후 옛 백제지역에서 정림사탑을 닮은 탑이 줄이어 세워진 것도 백제추종세력의 백제문화에 대한 향수의 발로였다고 덧붙인다.

또 다른 석굴암 금강역사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학계의 연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 파손되었다거나, 석굴암을 중건하면서 옛 금강역사를 폐기했다거나, 원래 두 쌍의 금강역사를 조성했다거나, 완성품을 만들려했으나 실패한 흔적이라는 것이다.

또 경기도 양주 회암사에 있는 인도의 고승 지공의 부도에서 대여행가로서 그의 면모를 부각시키고(14세기 인도의 대여행가 지공의 회암사 부도), 예산 향천사에서는 주인공인 고승의 얼굴이 새겨진 부도(향천사 부도에 새겨진 멸운대사의 얼굴)를 살펴보았으며, 무오사화의 주역인 탁영 김일손이 남긴 거문고인 탁영금(무오사화의 역사 간직한 탁영금)에서 역사를 더듬기도 한다.

오래된 지금 | 서동철 지음 | 생각처럼 펴냄 | 2만3천원 김주일 기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1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2년 6월 4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문의전화 : 055) 747 - 8419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함안교육원>
◐ 입교일시 : 2012년 6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달전사)
◐ 문의전화 : 055) 587 - 8419
◐ 수 강 일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상용의식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공 고

(사)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한다.
불기 2556(2012)년 4월 12일 날짜로 (사)한국불교정토종 중앙종회를 종헌 제39조 6항 종법 제11조 1.2항에 의거 중앙종회를 해산한다.

(사)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무각

제적 및 종권정지

사암 : 태 원 사 직위 : 총무부장 법명 : 설 진
사암 : 관 음 사 직위 : 강원교구장 법명 : 혜 명
사암 : 석 경 사 직위 : 없 음 법명 : 설 현

상기 스님들은 (사)한국불교정토종 종헌 종법을 유린하고 전체 종도들의 화합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종헌 제92조 4항 총무원법 제11조 2항 종무직원법 제14조 2항에 의거 제적 및 종권정지함을 공고함.

(사)한국불교정토종(이사장 지산스님은) 정토종 종헌 종법상 아무 권한도 없고 총무원장 무각에게 승려의 법계도 준 사실이 없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가 총무원장을 체탈도첩할 수 있는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신문지상에 공개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행동을 아니하면 귀하를 신문광고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한다.
위 사실은 내용증명으로 대신한다.

(사)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무각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익산 미륵사 창건의 발원자는 누구

여러 주장 종합하면 '사택왕비' 발원

1. 서동요와 선화공주

인간의 삶 속에는 신화와 설화가 중첩되어 있다. 인간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초월적 이상은 종종 신화로 탄생된다. 반면 인간의 의식과 현실 사이에서 설화는 탄생한다. 때문에 '역사적 사실' 과 '설화적 진실' 은 종종 충돌하거나 뒤집힐 때가 있다. 권위 있는 저작에 의해 굳어진 우리의 상식이 '하루아침' 에 뒤바뀌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노래 중의 노래이자 가사 중의 가사인 '서동요' 의 주인공인 서동과 선화는 훗날 왕과 왕비가 되어 익산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기억돼 있다. 이것은 〈삼국유사〉 '기이' 편의 '무왕' 조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 근래에 미륵사 서탑에서 출토된 '금제사리봉안기' 에 적힌 백제왕후인 백제 좌평(佐平) 사택(沙宅) 적덕(積德)의 딸로 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백제 황후인 적덕의 딸은 단지 서탑의 사리봉안의 발원자로만 한정해야 할까.

'사리봉안기' 의 기록대로라면 미륵사의 창건 발원자는 사택 적덕의 딸인 왕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왕' 조의 선화공주 발원기록은 폐기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사리기' 의 문장에서 '우리 백제 왕후' (선화공주)와 '사택 적덕의 딸' 을 병렬로 두고 발원자를 '두 사람' 으로 보아야 할까.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진행시켜 보아야 할 부분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보아 신라와 백제 간의 결혼동맹이 성립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간 긴장완화와 양국의 이해를 위해 백제 왕과 신라 공주의 결혼동맹은 이루어졌을까. 〈삼국사기〉 백제 동성왕 15년 조에 의하면 왕이 사신을 신라왕에게 보내어 혼인을 청하자 신라 비처왕이 이찬 비지(比智)의 딸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신라와 백제의 결혼동맹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무녕왕을 이은 성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16년

익산은 백제 부흥의 핵심지
무왕 치세 강력한 왕권 자랑

봄에 도읍을 공주에서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南夫餘)라 하였다. 성왕 31년에는 왕이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치려고 했으나 신라의 배신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해 10월에 왕의 딸이 신라에 시집을 갔다. 두 나라가 결혼을 통해 화친 동맹을 모색한 것은 모두 고구려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가 정세는 늘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뭉쳤다가 헤어졌다. 신라가 동맹을 파기하자 성왕 32년에 왕은 신라를 공격하러 나갔다가 구천(狗川, 옥천)에서 전사하였다. 그 결과 백제의 국경은 축소되고 정세는 위축되었다. 〈일본서기〉는 당시 '나라의 대성 팔족' [國中大姓八族]은 "원로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며 성왕을 이은 위덕왕을 심하게 추궁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되자 신권은 강화되고 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45년을 재위했던 위덕왕 이후 그의 동생인 혜왕이 재위에 올랐으나 2년 만에 승하했다. 다시 혜왕의 아들 법왕이 재위에 올랐으나 또 2년 만에 승하했다. 이제 신하들은 '다루기 쉬운 이' 나 '세력기반이 없는 이' 를 왕위에 옹립하고자 했다. 해서 익산의 마룡지[馬龍池] 근처에서 어머니와 마를 캐먹고 살던 아이[薯童]였던 '장' (璋)은 몰락한 왕족으로서 신하들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당시의 정치상황을 염두에 두면 그는 위덕왕의 아들로 추정되지만 〈삼국사기〉는 법왕의 아들로 적고 있다. 〈삼국유사〉는 과부의 아들로 적으면서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2. 서탑 사리봉안기의 이해

왕위에 오르기 전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서라벌로 갔다. 동네 아이들에게 마[薯]를 나눠 주며 가까이 지내다가 그들을 꾀어 노래를 부르게 했다.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얼어두고/ 맛둥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동요가 순식간에 서라벌 안에 퍼져 궁중까지 알려졌다.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간하여 공주를 멀리 귀양을 보내게 되었다. 공주가 떠나려 할 때 왕후는 순금 한 말을 주어 보냈다. 공주가 귀양을 떠나는 길에 서동이 나와 절을 하고 모시고 가겠다고 하였다. 공주는 그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지 못했지만 우연한 만남을 기뻐하며 그를 믿고 따라가 정을 통하였다. 그런 뒤에 서동의 이름을 알고 동요를 믿게 되었다.

선화는 서동에게 어머니가 준 금을 내 놓으며 이것으로 함께 백제로 가서 생활계책을 세우고자 하였다. 서동이 크게 웃으며 자신이 마를 캐던 곳에는 황금이 진흙처럼 쌓여있다고 말하였다. 그곳으로 가서 구릉처럼 모은 금을 익산 용화산(龍華山) 사자사(獅子寺) 지명(知命)법사의 처소로 가서 신라로 금을 운반할 방법을 물었다. 공주가 편지와 함께 금을 사자사 앞에 옮겨다 놓자 법사가 신통력으로 하룻밤에 신라 궁중으로 날라다 놓았다. 진평왕이 그 신통한 변화를 기이하게 여겨 더욱 존경하고, 항상 서신으로 안부를 물었고, 서동은 이로 인해서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행차하려고 용화산 아래 큰 못가에 이르자니, 미륵 삼존이 못에서 나타났다. (왕과 왕비는) 수레를 멈추고 경의를 표하였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곳에 큰 절을 세우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왕이 허락하고 지명법사에게 못을 메울 일을 물었다. 법사는 신통력으로 산을 무너뜨려 하룻밤 사이에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다. 이에 미륵 법상(法像)의 세 존전(尊殿), 탑(塔), 낭무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현판을 미륵사(彌勒寺)라고 하였다. 진평왕이 백공(百工)을 보내 돕도록 했는데 지금도 그 절이 남아있다. 이처럼 '무왕' 조의 기록에 의하면 미륵사 창건의 발원자는 무왕의 왕후인 선화공주가 분명하다. 하지만 서탑 '봉안사리기' 는 사택 적덕의 딸로 적고 있다. 이 두 기록의 상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부 학자들은 '서동과 무왕은 동일인이 아니다'



익산 미륵사지 5층석탑(서탑). 미륵사는 창건 당시 목탑을 가운데 두고 동서 1개씩 석탑이 존재한 3원 3탑 가람배치였다.

사리봉안기 공개 후 창건설 분분
왕권강화 묘사위해 서동설화 도입

고 보아 "무왕설화는 사실(史實)의 기록이 아니라 무왕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비범(非凡)의 인물로 표현하고 성화(聖化)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구전설화를 차용(借用)해다가 무왕 개인의 이야기로 정착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보기도 한다. 또 "가난한 생활을 하던 서동 시절에 이렇게 많은 금을 모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무왕이 즉위 이후 상당한 양의 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즉위 후 왕실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금을 확보하려 하였고 그에 따라 금광을 개발하고 사금을 채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이해하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은 설화적 요소를 역사적 사실로 해석한 예라고 할 수 있다.

3. 무왕과 별도(別都) 익산

서탑 '사리봉안기' 공개 이후 미륵사를 둘러싼 학자들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이 절 창건의 중심신앙이 무엇이며, 둘째는 발원자가 누구인가이다. '무왕' 조목에 의하면 '전' (殿)과 '탑' (塔)과 '낭무' (廊廡) 각 세 곳이므로 발굴 결과와 같이 3원 3탑의 가람배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륵사 구조는 세 불전[三殿]에 미륵 삼존불을 모시는 미륵 삼회(三會)의 도량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미륵사상에 입각한 가람배치로 보면 된다. 일부 학자는 발원자의 주체를 의식하여 "이 3원의 배치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가람으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곧 법화사상의 '회삼귀일' (會三歸一)이고, 서탑의 석가모니 진신사리는 법화신앙자 사택왕후가 모신 것이므로 미륵사는 미륵신앙과 법화신앙의 조화에 의해 창건된 대가람"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하나의 절 이름을 두고 몇 가지 사상의 근거로 해명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대개 절 이름에는 그 절의 사상적 배경이 담겨 있다. 때문에 미륵사의 경우 미륵사상이 창건의 배경임은 분명하다. '무왕' 조 기록처럼 미륵사상이 전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다른 사상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몇 개의 사상적 배경을 거론하게 된 것은 '사리봉안기' 의 사택왕후 기록이 나오면서 부터다. 또 다른 학자는 "사리봉안기와 '무왕' 조 기사의 등가설(等價說)에 입각하여 선화공주를 창건발원자로, 사택왕비를 서탑 사리봉안의 발원자"로 보기도 했다. 이와 달리 어느 학자는 미륵사의 창건 주체는 무왕이며, 그는 백제의 부흥을 위해 익산을 경영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륵사를 창건했고 서탑의 발원자는 '사리기' 에 적힌 대로 사택왕후며, 그가 무왕의 '빈부' (嬪婦)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선화공주는 소비(小妃)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학자는 "미륵사는 '선화공주' 가 삼원 삼탑 대가람의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백제왕후' 가 '가람' 의 삼탑 중 서탑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학자는 "사리기든 '무왕' 조든 왕과 왕비(사택씨 혹은 선화공주)는 함께 발원하고 있으며, 가람의 일부인 탑이 아니라 이들 모두를 둘러싼 전체 즉 '가람을 조립하면서 00년 월일에 사리를 봉영한다' 고 사리기에 새긴 사실을 환기시키고 싶다며 절을 짓는 데 단계별로 발원자를 상정하는 것은 탑이 가람 조영의 마지막 단계라는 일련의 과정에 위배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서로 주장이 충돌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통되는 것은 미륵사의 창건 발원자가 왕비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왕비 발원설은 수백년 동안 면면히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리봉안기' 의 사택부인은 당대의 기록이고 선화공주는 후대 설화의 주인공이기만 할까.

아니면 청동기시대 이래 고조선이 해체된 이후 반도로 내려온 마한연맹(馬韓聯盟) 중심지의 하나였던 익산 지방의 왕조에 얽힌 기억이 '후조선=마한의 무강왕 사실' 로 이어진 결과일까. 하여튼 역사적 사실과 설화적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

미륵사는 미륵 삼회 도량 분명
일부학자 미륵 · 법화 신앙 조화 주장

다. 인간의 삶은 종종 사실과 진실의 경계에서 피어난다. '왕명' (王名)에서 풍기는 것처럼 풍채가 훌륭했고, 뜻이 호방했으며, 기상이 걸출했던 '무왕' (武王)은 강력한 백제를 세우려고 했다. 어렵게 재위에 오른 무왕은 고구려와 신라에 밀리며 나라가 위축되었던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수도 부여에서 멀지 않은 익산에 임시 수도인 '별도' (別都)를 시설하였다. 익산에 별도를 둔 것은 그곳이 그의 성장 거점이자 신라로 진격하는 교두보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무왕은 익산에 '미륵사' 와 '왕흥사' (王興寺)를 세우고 신라가 합병한 가야의 고토 회복을 통해 백제의 강역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사찰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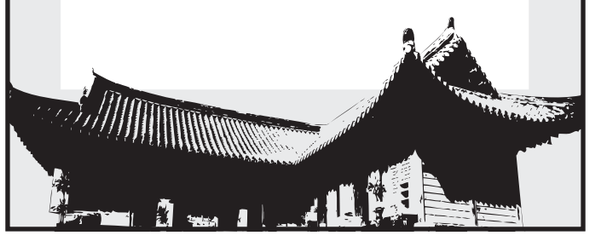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츰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게, 다게, 향화게, 오공양, 옴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퉁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제1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 인 모 집 (서 울 범 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위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짓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범패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3. 상급 : 시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재, 수륙재, 종사이운, 괘불이운, 종사영반 화청, 공덕게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만일 손에 상처가 없으면 독약을 다룰 수 있다
독약은 상처 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나쁜 행위를 하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악행은 붙을 수 없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증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능엄신주, 영가천도
우울증, 지방간, 스트레스,
학교폭력
가정방문 회사방문
상담 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파동에너지 양생기공
1. 파동술로 만성질병을 고치는 법
2. 파동술로 가위눌림,빙의,불면증을 고치는 법
3. 파동술로 장시간 병명없이 시달림의 고통을 퇴치하는 법
현재 명리나,풍수,지압,침,활법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권장합니다
051)722-6426 / 011-9785-6426
부산 태백정사

영남범음범패
학인수시모집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나비무 (2개월 완성)
* 천도재 해드립니다
010-9370-4043
경북 경산 금박산 불교 교육원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한국불교태고종 범패학인모집
천수바라. 사다라니
복청게. 도량게작법
태징.북.사물다루는법
6개월내 전문가처럼
필요한작법만지도전수
예수재.49재.점안의식
010-3809-4373

사찰 유,무선 마이크
새로운 방법으로 저렴
마음에 들때까지 공사
대전 100km이내 지역
한성음향
010-4440-8687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적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범 송

경 전 구 함
한글대장경 318권
전집 및 불서 구합니다
보시금은 서로 적법하게 협의합니다
전라도지역 비구니 재바지
불공스님 연락바랍니다
061)462-1242
010-2011-1020
도선사 동순 합장

불교전통(범음범패)의식과 불공을 해 드립니다
49재,천도재,점안식,
예수재를 사찰여건에
맞게 해드립니다
스님이 직접 만든 은행 엑기스 판매합니다
011-628-1156

상 담 안 내
천도재 최고로 잘 모시는 절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예견
고민 완전해결
대구은행 087-13-035968
010-2125-46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정방사
50대후반에서 60대중반
010-5219-7021

입학, 취직 사업
각자에게 맞는
직업 선택.
재물소통 전문상담
자성스님
국민 220401-04-069516 임은자
010-7459-0108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영 통 호 흡 기 도
• 업장을 소멸시키는 호흡법을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사찰 행사전문 (부전스님, 사찰소개 문의, 사주명리 영가 찾는법)
◀ 전통불교조계종 입종안내 ▶ 010-2563-5550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부전 소임을 원합니다
010-3450-1147

스님 모십니다
(55세 미만)
010-3428-6665

비구니 기도스님
(서울 도심 포교당)
011-229-6061

공양주 보살 구함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숙식제공,연령 관계 없음
(부산사하구)
011-577-7600
051)263-9623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 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행자(출가비구니) 모집
본 사찰에서는 출가수행의 뜻이 있는
신심깊은 불자 행자(비구니) 를 모집합니다.
학력, 나이 무관하고 오직 올바른 수행을 원하는 분을 모집합니다.
(심심해서 하는 전화는 사절)
011-858-0306 / 010-6429-50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지리산 산청)
010-4788-3346

조용한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후반에서 60대)
043)742-2057

신심이 돈독하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721-0449
011-579-6444

서울 경기지역
문중 절, 시골집, 가든, 법당,빈터
무상임대나 저렴가격 관리
맡기거나 불사에
도움 주실분 찾습니다
010-3131-0772

병 에 서 해 방
그 어떤 병도 원인을 알면 치유할 수 있다.
스님의 신통력과 법력으로 치유한다.
범 용 사 대원스님 합장
연락처 : 055)352-8045 / 010-5453-8611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스님(행자)모집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10-9562-8228

경북지역 천년고찰 공양주 모십니다
011-527-0637

극락사 사찰 운영 하실 분 구합니다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노스님 시봉하실분
전북 김제 극락사 납골공원
010-4427-2256

불심깊은 보살님
(여) 50~60세
불사원력 능력있고
뜻을 같이 하실 분
(시골 작은 암자)
010-5486-1275

관광버스
대우차, 2003년식, BH120,
6기통, 43인승,
노래방, TV양호, 타이어양호,
엔진양호, 무사고, 전체도색(빨강)
가격 : 1천 9백 7십만원
010-8675-3384

공 고
사단법인 해동호국불교조계종 종법
제5장 계단 14조 1항에 의거하여
2012年 4月 6日부로 종단계
모든 종도의 직위를 해제합니다.
총본산과 총무원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새마을로 745번길 76-2로
이전했습니다.
2012年 4月 6日
해동호국불교조계종
종정대행
釋 智性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60세 전후)
010-9506-5706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승납 10년 전후, 40대)
경주 017-206-0113

만세력 없이 사주 보는 비법 장소가 필요없음, 즉시 활용 가능
농협 071-02-217956 이민혜
보시금 30만원
(급) 매매 전문
010-6621-4599

통영 미륵도에 일몰이 아름다운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민박이나 몸 수양 하실 분 환영
011-9532-070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영주)
010-8982-2328

65세 이하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774-4099

모든 통증해결
오십견,허리,무릎,관절,
신병,눈병 등...
(스님의 원력
으로 즉시효과)
지장사 범성스님 합장
010-9243-0113

무료 이름 감정
평생 불리울 이름,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명, 개명, 무료상담
010-4063-0087
지리산 부성사
주지 금봉 합장

사 면 공 고
법 명 : 세목 / 사 암 : 자비원
위 스님은 지난 현대불교신문에 공고한 제명이 잘못된 점을 본 총무원 지면을 통하여 사과를 대신하면서 종헌 제23조3항 종법 제7조4항에 의거하여 사면복권하고자 한다.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권한대행 해심
대리인 총무원장 무각

신심있는 비구니 스님 (30~50대)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9416-7743

대중 불자 스님께!
도현 스님의 기통(氣通)찬
① 심신 병고 (비만, 혈압, 당뇨, 암 · · 고민) 근본 치유 예방
② 염불 · 간화선 · 수행 성취
③ 신속 정확한 운신수 철학
묘법 전수 불사 해결 바람
신불산 불국토 건강도량
心佛정사 道炫 합장
011-855-8180

불 자 정 보 26 | 884호 | 전면광고

2012년 4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35평
- 요사 : 85평
- 부지 : 2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경남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114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경기
- 법당 : 18평
- 요사 : 40평
- 부지 : 330평
- 가액 : 4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 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7억 5천

♣ 사무실 이전 안내 ♣

연산부동산 사무실을 3월 중순 만덕동 지하철 1번출구 부근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금와산방이라는 조그만 방도 마련하였으니 마음 편히 오셔서 하룻밤(숙박은 무료)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및 부전스님안내

- 사찰 또는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분
-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
- 부전 생활이 필요한 스님
- 사찰만을 전문으로 안내하며 부전스님 안내드립니다.

♣ 부전생활에 필요한 덕목 및 사시예불. 목탁. 전문의식 단기교육

도심 속의 산중사찰

- 부산 동구 범일동
- 총대지 98평
- 건물 1층 70평 (법당 35평, 공양간등 8방)
- 2층 35평(법당35평, 방2)
- 가액: 3억 5천만원(전세 절충)

010-5511-7000 / 070-4128-8975

(부산푸른부동산) 혜화.보현 합장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삼천포 남해안 바닷가
- 전망최고, 위치 최고의 부지
- 토목공사완료, 즉시건축가능
- 4차선국도인접 , 진주에서 15~20분 거리
- 1천평에서 2천평
- 가액: 전화상담

010-6776-3308

종 교 관 련 시 설 터

- 요양원, 수련원, 선방, 포교원
- 서울 은평구 진관동(북한산 자락)
- 평수 :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 곳
- 가액 : 15억

- 사찰, 수련원, 요양원(연수원)
- 강화도 (투자 가치있는 명당터)
- 평수 : 1만 2천평
- 가액 : 12억

주인직접 011-372-7744

대구최고포교원

시작하는스님, 보살, 불사하고 싶은분

- 법당15평, 삼존불(금.동불) 후불도, 각단탱화
- 신중,칠성,극락,방2개, 공양간, 상담실, 욕실
- 50평, 옥상50평, 소각장1 (최고시설)뒷산
- 앞 큰대로 전철 3분시장 3분

010-6892-3999

토 지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계리(금계산 용목동)
- 지목:전, 면적: 1250㎡(1필지), 가액: 5500만원
- 현재 신축하우스 1동 소재함(15m*6m)
- 금계산 정상아래 해발 500m위치함
- 진입도로개설,차량통행,토목공사 평탄 완료, 전기시설
- 당진~대전간고속도로 유규IC 근접(약7km거리)
- 조망 최고자리임,추천용도, 암자, 공부자리

010-2429-2069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 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좌향)
- 가액 : 8억

010-4586-452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3층 53평 전체
- 법당, 아미타불, 관음소불 50
-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해우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9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4323-008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 중구 대흥동
- 도심 포교원 최적입지
- 대전역 도보 7분, 중앙시장 4분
- 건평 70평, 3층
- 법당 25평, 방사 4, 차실
- 제반시설 완벽
- 전세보증금 1천만원, 월 42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622-9672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북구 시내
- 약 500평
- 산신각1, 용왕당1, 법당1, 요사채1
- 주차시설완비
- 가액: 3억 3천만원
- 스님 건강상 급 양도(조절가능)

011-595-1522
011-874-1593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 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전답 : 827평
- 법당, 요사채 약 50평
- 산신각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3억 3천만원

010-8034-830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010-4085-11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시내
- 법당: 11평, 요사채 방2칸, 공양간,욕실 현대식
- 비구니스님, 철학자, 법사, 보살께서포교하기에 아주 좋음)
- 가액: 5000만원
- 전세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010-2055-3366 (스님직접)

사 찰 안 내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시내
-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인등 230불
- 법당1, 방4, 바텐식주방, 창고1, 화장실 2(실내, 외각 1개)
- 도시가스, 각방 전기페널 설치,현대식 시설
- 전세5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산사 이전관계로 양도

010-3869-710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연기군
- 세종시에서 15분거리
- 전 420평, 전기 도로 되어 있고
- 청정계곡 옆에 있음
- 가액: 6천만원

011-753-0768

별 장 안 내

- 절하면 정말 좋습니다
- 위치: 밀양시 단장면
- 면적: 1200평, 건물 50평
- 특징: 천혜의 자연경관
- 앞 탁 트이고 뒤에는 산
- 가액: 3억 5천만원

010-8676-2778

사 찰 안 내

- 위치: 광주 나주 중간 도심근교
- 토지 400평
- 법당, 요사채
- 가액: 1억 5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011-9602-2293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대산면 대방리
- 땅 100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스님방 6평
- 화장실 2, 창고 1
- 가액: 1억 1천만원 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9183-065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 대지 150평, 전 170평
- 건물 18평 (조립식)
- 마을끝 산자락에 위치
- 바다보임, 산세수려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 가액 : 9천만원

054)787-269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 135평
- 법당 14평,개금 삼존불
- 후불, 칠성, 지장, 신중, 영가단
- 심야전기
- 주차장 완비, 도로에서 200m
- 가액 : 9천5백만원(조정가)

010-4146-6556

전 통 사 찰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11억 예산

(서울,안양 인접 의왕시 소재)

010-3678-25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탱화, 소불270,지장관음
- 친견실,방1,공양간,창고, 수세식화장실,세면실
- 에어컨,집기일체완비
- 몸만오시면즉시법회가능
- 보증금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3000만원(조정가능)

010-2224-896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외터미널 부근 마산역 5분거리 시장안
- 평수 15평, 2층
- 보증금 200만원 월 22만원
- 시설비 450만원

010-5042-100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용호2동, 큰시장 근처
- 불사하기 좋음, 위치 좋음, 주택 뒤
- 법당, 삼존불, 아미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관세음인등, 산신인등, 영가단, 맞춤탱화,
- 평수 21평, 법회가능
- 방1, 다락2, 주방큼, 수세식화장실, 샤워가능
- 전세 2500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주차가능

010-4747-8796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 지리산
- 평수 2100평
- 대웅전 30평, 요사채 80평
- 황토한옥 30평
- 용왕각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IC 인접 1분거리
- 부지 : 988평
- 청룡 백호 정남향
- 법당1, 요사채2, 심야전기
- 가액: 5억 5천만원
- 현지 답사후 조절가능

010-8284-0667
043)275-066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 135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각 13평, 5평
- 가액: 1억7천만원

011-571-8961
010-2739-3816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28평
- 요사 : 35평
- 가액 : 7억

- 위치 : 천안
- 부지 : 5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가액 : 4억5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컴퓨터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지하철 4호선 서동역도보 2분
- 법당 35평, 요사채 70평
- 공양간 30평, 주택밀집지역
- 시장, 교통최적지, 생활보장
- 부동산사절직거래(취득세없음)
- 가액: 5억 (은해융자가능)

010-3867-4747

사 찰 안 내

- 위치: 청원 오창 IC인근, 대단위 아파트 거주, 추가조성중
- 부지:약1750평 (대웅전 46평, 극락전 30평, 요사채 32평)
- 산신각 4평, 매점 4평, 공양간 15평, 부속창고 10평 등등
- 가액: 25억, 남동향에 기운이 좋고 산수화려함.
- 내부관리 상태 최상
- 납골당, 수목장, 선방, 불교 학교부지로 활용하기 좋음
- 시내버스 사찰 앞 주차장까지 운행

010-5461-5515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도계동 도계주유소 인근 4층 건물중 2층 (53평)
-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인등 230불
- 법당1, 방4, 바텐식주방, 창고1, 화장실 2(실내, 외각 1개)
- 도시가스, 각방 전기페널 설치,현대식 시설
- 전세5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산사 이전관계로 양도

010-3869-7100

사찰(급)전세안내

- 위치: 충북 음성군 음성읍
- 1층 97.20(허가상 그린시설 상점이나 현재 식당 방 3개)
- 2층 97.20(현재 부엌과 방 3개와 넓은 거실)
- 3층 49.20(현재 법당으로 손색없이 갖추어 있음)
- 상기 사찰은주지스님이 원주로 큰포당을하여 현재공석
- 집기일체 두고감, 몸만 오시면 됨
- 전세가액: 1억 (장기임대가능)

016-256-6142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내 5분거리
- 종교부지 약 300평, 법당건물등기 필
- 시유지임대 약 600평 요사건물등기 필
- 문화재급 약사석불
- 양도가액: 1억 9천만원
- 심심하다고 전화하지 맙시다

011-677-8525

암자터안내

- 위치 : 충남 연기군
- 세종시에서 15분거리
- 전 420평, 전기 도로 되어 있고
- 청정계곡 옆에 있음
- 가액: 6천만원

011-753-0768

별 장 안 내

- 절하면 정말 좋습니다
- 위치: 밀양시 단장면
- 면적: 1200평, 건물 50평
- 특징: 천혜의 자연경관
- 앞 탁 트이고 뒤에는 산
- 가액: 3억 5천만원

010-8676-2778

사 찰 안 내

- 위치: 광주 나주 중간 도심근교
- 토지 400평
- 법당, 요사채
- 가액: 1억 5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011-9602-2293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대산면 대방리
- 땅 100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스님방 6평
- 화장실 2, 창고 1
- 가액: 1억 1천만원 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9183-065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 대지 150평, 전 170평
- 건물 18평 (조립식)
- 마을끝 산자락에 위치
- 바다보임, 산세수려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 가액 : 9천만원

054)787-269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 135평
- 법당 14평,개금 삼존불
- 후불, 칠성, 지장, 신중, 영가단
- 심야전기
- 주차장 완비, 도로에서 200m
- 가액 : 9천5백만원(조정가)

010-4146-6556

전 통 사 찰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11억 예산

(서울,안양 인접 의왕시 소재)

010-3678-25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탱화, 소불270,지장관음
- 친견실,방1,공양간,창고, 수세식화장실,세면실
- 에어컨,집기일체완비
- 몸만오시면즉시법회가능
- 보증금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3000만원(조정가능)

010-2224-896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외터미널 부근 마산역 5분거리 시장안
- 평수 15평, 2층
- 보증금 200만원 월 22만원
- 시설비 450만원

010-5042-100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용호2동, 큰시장 근처
- 불사하기 좋음, 위치 좋음, 주택 뒤
- 법당, 삼존불, 아미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관세음인등, 산신인등, 영가단, 맞춤탱화,
- 평수 21평, 법회가능
- 방1, 다락2, 주방큼, 수세식화장실, 샤워가능
- 전세 2500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주차가능

010-4747-8796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 지리산
- 평수 2100평
- 대웅전 30평, 요사채 80평
- 황토한옥 30평
- 용왕각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IC 인접 1분거리
- 부지 : 988평
- 청룡 백호 정남향
- 법당1, 요사채2, 심야전기
- 가액: 5억 5천만원
- 현지 답사후 조절가능

010-8284-0667
043)275-066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 135평
- 법당 14평,개금 삼존불
- 후불, 칠성, 지장, 신중, 영가단
- 심야전기
- 주차장 완비, 도로에서 200m
- 가액 : 9천5백만원(조정가)

010-4146-6556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28평
- 요사 : 35평
- 가액 : 7억

- 위치 : 천안
- 부지 : 5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가액 : 4억5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컴퓨터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지하철 4호선 서동역도보 2분
- 법당 35평, 요사채 70평
- 공양간 30평, 주택밀집지역
- 시장, 교통최적지, 생활보장
- 부동산사절직거래(취득세없음)
- 가액: 5억 (은해융자가능)

010-3867-4747

사 찰 안 내

- 위치: 청원 오창 IC인근, 대단위 아파트 거주, 추가조성중
- 부지:약1750평 (대웅전 46평, 극락전 30평, 요사채 32평)
- 산신각 4평, 매점 4평, 공양간 15평, 부속창고 10평 등등
- 가액: 25억, 남동향에 기운이 좋고 산수화려함.
- 내부관리 상태 최상
- 납골당, 수목장, 선방, 불교 학교부지로 활용하기 좋음
- 시내버스 사찰 앞 주차장까지 운행

010-5461-5515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도계동 도계주유소 인근 4층 건물중 2층 (53평)
-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인등 230불
- 법당1, 방4, 바텐식주방, 창고1, 화장실 2(실내, 외각 1개)
- 도시가스, 각방 전기페널 설치,현대식 시설
- 전세5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산사 이전관계로 양도

010-3869-7100

사찰(급)전세안내

- 위치: 충북 음성군 음성읍
- 1층 97.20(허가상 그린시설 상점이나 현재 식당 방 3개)
- 2층 97.20(현재 부엌과 방 3개와 넓은 거실)
- 3층 49.20(현재 법당으로 손색없이 갖추어 있음)
- 상기 사찰은주지스님이 원주로 큰포당을하여 현재공석
- 집기일체 두고감, 몸만 오시면 됨
- 전세가액: 1억 (장기임대가능)

016-256-6142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내 5분거리
- 종교부지 약 300평, 법당건물등기 필
- 시유지임대 약 600평 요사건물등기 필
- 문화재급 약사석불
- 양도가액: 1억 9천만원
- 심심하다고 전화하지 맙시다

011-677-8525

실버타운, 요양시설, 적지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남면
-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 모두 갖춘(명당), 식수1급수
- 현, 전원주택(옛날 학교터)
- 554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517-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010-4085-111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부지 500평, 임법당30평, 요사40평,
- 산신각,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도량기운 좋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1-452-8374
010-7164-7134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부근)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4668-738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인근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3평반
- 청둘암반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ø7베타시설, 사철정내지 계곡물흐름 잔디 및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IC 5분거리 1호선 국도 8분거리
- 개인사찰,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 가액: 5억 5천만원 (조정가능)

010-6375-0108

큰명당절터 3600평,
큰명당 사찰 384평
큰명당사찰 2600평
포교원 30평
수도권 양도 또는 전세
풍광 좋고 도로매우 양호
나이가 많아 정리합니다

010-9145-4984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IC 인접 1분거리
- 부지 : 988평
- 청룡 백호 정남향
- 법당1, 요사채2, 심야전기
- 가액: 5억 5천만원
- 현지 답사후 조절가능

010-8284-0667
043)275-0667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내 5분거리
- 종교부지 약 300평, 법당건물등기 필
- 시유지임대 약 600평 요사건물등기 필
- 문화재급 약사석불
- 양도가액: 1억 9천만원
- 심심하다고 전화하지 맙시다

011-677-8525

암자터안내

- 위치 : 영양군 수비면 계리
- 토지 양도 전 170평
- 농림관리 503평, 합 670평, 옛날집터 귀농지
- 주변국유지, 조용하고 최상의 자리 1,000평이상
- 농사지을 수있고 가재가 사는 청정계곡 끝지점
- 급양도가 : 2,700만원

010-3288-1317

경 남 진 주 암 자 안 내

- 동진주문산 IC에서 5분거리 시내에서 10분거리
- 법당~20평 조립식(아미타삼존불, 지장소불200불)집기일체드립니다
- 상담실8평, 공양실11평, 요사채 35평(적벽돌 철근슬라브) , 삼성각8평, 창고 20평, 대지 200평
- 밭: 남의 땅이지만 여유로운 200평 무상보시 사용가능
- 가액: 2억1천7백만원(대출 8000만원가능)
- 연락이 안될 경우 문자 남겨주세요

010-2326-1257

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이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요인이면, 사이를 떼어놓는 독이며, 서로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칼날이고,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다. – 아함경 –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7〉 열반으로 가는 길

삐야닷시 스님 (스리랑카)

탐·진·치 삼독을 여의면 완전히 자유로워 진다



그림 · 박구원

이 인간의 갈애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마음은 이 세 유형의 갈애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도록 재촉 받습니다. 대상에 대한 갈애가 감각적 즐거움과 연결될 때 이를 감관적 갈애라 합니다. 그것이 개인 존재의 영원성에 대한 믿음과 결합할 때 이를 존재에 대한 갈애, 유에 대한 갈애라 합니다. 이는 지속하려는 욕구, 영원히 존속하려는 자기 보존의 욕구입니다. 또 갈애가 자아 소멸에 대한 믿음과 결합할 때 이를 무유(無有)에 대한 갈애, 멸진에 대한 갈애라 합니다. 이 세 가지 딴하, 갈애는 프로이트의 에로스, 리비도, 타나토스의 개념들과 대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 의하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많지만[染] 그 중에서도 모든 악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은 욕망 또는 탐착[貪], 증오 또는 악의[瞋], 미혹 또는 무지[癡]의 삼독입니다. 이 셋은 사람을 행동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들 오염원들로 인한 행동은 존재를 계속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경에도 "탐 · 진 · 치를 여의지 않고는 태어남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독을 말끔히 지우면 존재의 반복, 즉 윤회의 족쇄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를 다시 생존체로 태어나게 만들 어떤 요인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생성 과정의 완전한 종식인 열반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범한 세속적 활동을 초월하였으며, 아직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미 세상을 넘어선 경지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하는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업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행동이 삼독심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악을, 마음을 더럽히는 온갖 것들을 여읜 것입니다. 그에게는 동기를 유발하는 심층적 경향성[使]이 없습니다. 그는 선도 악도 다 버렸습니다.

그는 과거도 미래도 심지어 현재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사 어떤 일에도 연연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도 그에게는 문젯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영고성쇠 앞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사건도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근심이 없으며, 때 묻지 않으며, 안전합니다. 이렇듯 열반은 바로 이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경지'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탐구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이런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경지야말로 아라한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을 뿐, 이 세상이나 저 천상락의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도 이런 경지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불선법(不善法)이며, 불선법과 관계있고, 불선법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모두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원문대로 하면 마음이 그 모든 것에 선행한다.) 선법(善法)이며, 선법과 관계있고, 선법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말하듯 "심리적 변화는 매우 서서히 전개됩니다. 만일 변화가 빠르고 급작스럽게 일어나면 이는 나쁜 징조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인 줄 알고, 나쁜 생각은 나쁜 생각인 줄 알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불건전한 생각은 그것의 일어남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일어난 나쁜 생각은 버리기 위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좋은 생각은 일으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미 일어난 좋은 생각은 지속시키기 위해 어떤 시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정진(正精進)의 기능으로서, 막고, 버리고, 키우고, 유지하는 마음속의 행동입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윤리마저도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합니다. 부처님께서 올바른 정진을 이처럼 역설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불교가 비관주의 철학이 아니란 점, 사물을 될 수 있는 대로 불리한 관점에서 보려드는 심약한 이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란 점, 불교야말로 진정한 대장부의 종교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노예 상태로 묶어 두려는 것들을 끊어 버리기 참으로 어렵고, 불건전한 생각의 모습으로 인간의 가슴에 출몰하는 악령들을 쫓아버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들 악이 앞서 얘기한 탐, 진, 치의 발로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단련해서 더 없는 청정함을 성취하기 전까지 이들 악의 무리를 완전히 패퇴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외부의 사물들을 포기한다거나 단식을 하는 등등은 사람이 청정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는 사람이 고결 · 무해(無害)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학대는 한 극단으로서, 부처님께서 최초의 법의 선포 시에 이미 잘못된 것이라 하여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분께서는 감각적 탐닉 역시 천한 짓이라 하며 거부하셨습니다. 이들 두 극단을 피해서 부처님께서는 옛 길(과거 부처님께서 걸었던 성스러운 팔정도), 중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 주셨으며, 이 길은 지금도 힘겨운 중생들을 열반이라는 안전과 평화의 안식처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탐진치는 행동동력 · 악의 원인
삼독지우고 윤회 벗어나면 열반

생성과정 종식, 열반에 들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속적 활동 초월
일체 행동 업으로 작용 안해

생각을 막고 키우는 정정진 등
팔정도는 열반으로 가는 길

계(戒) · 정(定) · 혜(慧)의 삼학(三學)은 기본 가르침으로서 이들을 충분히 계발하면 정신 생활면에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오르게 되며, 어둠에서 밝음으로, 열정에서 냉정으로, 소란에서 고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는 수행[道]을 한 결과로 얻어지는, 서로 무관한 열매가 아니라 서로 불가분하게 어울리어 수행의 길을 이루고 있는 필수적 부분들인 것입니다.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지만 언제 들어도 새롭기만 한 저 유명한 통불게(通佛偈)가 바로 이런 정신의 결정(結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악을 버리는 것(諸惡莫作)
선을 개발하는 것(衆善奉行)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自淨其意)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是諸佛敎)

이만하면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은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이 강연의 서두에서 말한바 바론 자야띨라까 경의 일생담이 바로 인간 마음의 강력한 힘을 실증하는 풍성한 실례가 된다는 얘기를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유례없는 삶에서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불교 심리학에서 제시된 길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일 것입니다.

불교도의 삶을 실천하면 당연히 얻게 되는 마음의 고양과 정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한 알음알이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론 자야띨라까 경의 생애, 그리고 그 생애에 고무된 이 강연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매 구비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크고 작은 모든 격정과 편견들을 넘어서서, 부처님께서 그렇듯 힘주어 강조하신 저 높은 고매한 삶의 영역에로 안내해 주도록 바랍시다. 우리 모두 그 더 높은 삶을 삶으로써 열반의 지복을 얻도록 합시다.

자애심을 품어라, 연민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계율에 따라 잘 절제하라!
활기차고, 목표에 열중하며,
언제나 용감하게 밀고 나아가라.
위험은 빈들거림[放逸]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
진지함[不放逸]은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
이것을 너희가 안다면
닦아라,
팔정도를.
그러면 너희는 접하게 되리니(깨달음),
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저 불사(不死)의 길을.

〈장로게송집(테라가타)〉 979, 980 게송.

〈끝〉

이 글은 "법륜시리즈 7"(고요한 소리刊)의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884호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2동 472번지
- 평수 : 100평
- 방 4칸, 주방, 욕실
- 법당, 산신각
- 사글세 1년 200만원

011-9370-7513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부항면
- 대지 372평, 건평 60평
- 목조 임법당
- 큰방포함 5개
- 주방, 목욕탕 2개
- 가액 : 1억 7천만원

011-9807-570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 대지 : 196평
- 주자창, 텃밭 175평, 법당 15평
- 야외 지장보살입상, 요사채방5, 심야보일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769-7029

포교원(급)안내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8번지
- 4층건물 중 2층
- 평수 : 32평 시설완벽
- 법당 : 장엄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방 2칸, 시설비 2,00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0-2565-72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 위치 조건이 좋은 대로변
- 평수 : 약 30평
- 3층 건물 중 2층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결정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010-3572-8426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 1층 요사채 50평
- 2층 법당 50평
- 옥상 : 지장보살 입상, 대종
- 대지 75평, 시설 A급
- 가액: 4억 7천만원(시설비 포함)

010-3621-8747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산북면 사무소 10분거리
- 임야 : 8만 4천평
- 용도 : 大 사찰및 복지시설
- 차도와 붙어있음
- 평당 : 9천원

011-282-609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거리
- 건물; 법당(목조 토기와) 20평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38평 외 2동 (30평)
- 토지: 종교용지(850평)
- 임야 : 4000여 평 (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당 등 적지)
- 가액: 7억(현지 답사 후 조절가능)

010-3822-456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청도면
- 대지 150평
- 2층건물
- 1층 요사채 32평, 2층 법당 30평
- 산세수려함
- 가액: 3억 5천만원

010-9058-5353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역 3분거리
- 3층 상가 건물중 3층
- 평수: 78평 (옥상사용, 산신각)
- 보증금 : 5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 답사하신 후 조정

032)347-6111
010-9765-7764

도심사찰안내
- 위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 암사시장 5분거리
- 상가 접한 1층 주택 전체 (반지하방 2칸포함)
- 불단, 불상 및 제반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천 7백만원

010-2262-8003

토굴 암자, 전통식품 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 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 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 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 대지 145평, 건물 25평, 방4, 인법당
- 입식주방, 수세식화장실, 순간온수기, 비데설치, 에어컨2대, 불상1, 후불탱화1
- 식수, 자연생수(석간수), 텃밭,차고있음
- 마을에서 500m 떨어져있음
- 20m전방에 마르지 않은 계곡
- 가액 : 6천5백만원

010-3509-0124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 2층 30평가량, 시설완벽
- 삼존불, 맞춤탱화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800만원

055)277-0146

사찰(전,월세)안내
- 위치: 전북 순창군
- 목조건물 대웅전1동
- 목조건물 산신각1동
- 목조건물 요사채1동
- 대지 넉넉함
- 임대금액 상담요망
- 전망 좋습니다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010-2917-87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인천 부평시장내 입구 버스정류장 앞
- 4층건물 3층 10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시설완비, 위치좋음
- 주택가밀집지역

010-3657-9590

토 굴 안 내
- 경북 영양 입암 약수터 부근
- 건물 18평, 대지 50평 마을 끝 외딴곳
- 남향 차 진입 즉시입주 가능
- 최저가 1900만원
- 주인직거래

010-8899-8899

토굴(임법당)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마을 소재
- 대지 : 143평
- 건물 2동 외 부속시설
- 가액: 5000만원
- 모든 집기 시설 가구 포함 (몸만 오시면 됨)

010-8751-380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화왕산관광지 입구, 영산IC에서 7분거리
- 평수: 532평(종교부지) 법당 30평(목조단청)창고
- 요사채(60평,화장실2개) 산신각, 칠성각
- 인터넷등재(스마트폰) 사찰매매엑스퍼트 (우리공인중개사)
- 가액 : 3억 8천만원, 산밑에 위치, 도로인접

010-8664-8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5분
- 대지 약 900평, 건물 50평 2동
- 등산로 접, 전망터 최고 정남향
- 숲속 요양 집으로 적격
- 지역 거래가에 절반 가격
- 공시가로 양도함
- 융자 70%가능 /주인직

011-726-4711

'현우경' 이야기 (16)

가난한 여인의 등공양

중생 제도 발원한 등불 절대 끌 수 없어

슈라바스티에 난타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가난해 매일 같이 구걸을 다니면서 끼니를 해결했다. 어느 날 난타는 왕을 비롯해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됐다. 난타는 생각했다.

'부처님이 계시는 훌륭한 곳에 살면서 나는 왜 거지로 살아가야 하는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난타도 다른 사람들처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원을 세웠다. 그녀는 해가 뜨고 저물 동안 쉬지 않고 구걸을 해 한 냥의 돈을 얻었다. 난타는 그 돈을 가지고 기름집으로 가 기름을 샀다. 난타가 너무 적은 양의 기름을 사니 주인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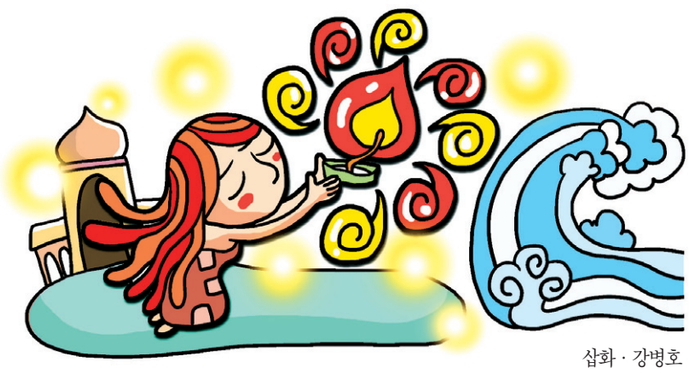
"이렇게 작은 양의 기름을 사서 어디에 쓰려 하는가?"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으로 올리기 위해 기름을 사는 것입니다."

기름집 주인은 난타의 정성어린 모습에 감동해 기름의 양을 배나 많이 줬다. 난타는 기름을 받고 매우 기뻐하며 기름집 주인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난타는 그 길로 곧장 등불을 만들어 절로 향했다. 이미 절에는 사람들이 올린 수많은 등불들이 걸려있었다. 난타는 그 한가운데에 자신의 등불을 걸고 서원했다.

"저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 이 작은 등불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앞으로 제가 지혜를 얻어 중생의 어둠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난타는 서원을 마치고 절을 떠났다. 밤이 되자 수많은 등불들은 아름다운 빛을 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등불들은 하나 둘씩 꺼져갔다. 그때 절을 순찰하던 마우드갈야야나가 불이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를 발견했다.



삽화 · 강병호

"이 등불은 왜 아직도 켜져 있는 것인가."

마우드갈야야나는 등불을 끄기 위해 입으로 불꽃을 '후' 하고 불었다. 하지만 불꽃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더 세게 '후' 하고 불었지만 역시나 불꽃은 어떤 흔들림 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본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너는 그 등불을 절대 끌 수 없다. 네가 바다의 모든 물을 다 쏟아 붓는다 하여도 그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것이 옵니까."

"왜냐면 일체중생을 다 건지기 위한 사람이 보시한 등불이기 때문이다."

다음날, 난타는 절을 찾아와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다. 때마침 부처님은 난타의 등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앞으로 먼 훗날 부처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난타는 매우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출가하기를 간청했다. 부처님은 난타의 출가를 허락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마우드갈야야나는 거지가 비구니가 되는 것을 보고 놀라 부처님께 물었다.

"저 여인은 무슨 인연으로 출가해 비구니가 된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먼 옛날 카샤파라는 부처님이 살고 계셨다. 그 나라에는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의 부인은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해 공양을 올리고자 했다. 하지만 카샤파 부처님은 부자 부인의 공양을 받기 전에 가난한 여자의 공양을 먼저 허락했다. 그 모습을 본 부자의 부인은 가난한 여자보다 자신이 못한 대접을 받자 몹시 불쾌해 했다.

"어째서 부처님은 나보다 거지의 공양을 먼저 받으신단 말인가. 내가 훨씬 더 좋은 음식과 옷을 공양할 터인데."

결국 부인은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초청을 거절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부인은 훗날 계속 거지로 태어났다. 하지만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해 결국 비구니가 됐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슈라바스티의 왕과 백성들은 등불을 보시한 여자의 이야기에 감동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등불을 준비해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렸다. 이 때문에 슈라바스티는 항상 밤하늘에 은하수가 수놓아 진 것처럼 환하게 빛났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윤달 삼사순례
무료점심공양



전국에서 불심이 가장 돈독한 부산의 관음제일기도도량 칠보사가 전국의 대덕 큰스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칠보사는 천마산 중턱의 조선시대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는 해맞이 기도도량입니다. 그리고 5~10분거리에는 부산항, 자갈치시장, 송도해수욕장이 있고 또한 방생할 수 있는 태종대 자갈마당과 다대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법당에 모셔져있는 조선시대 관세음보살상



칠보사에 오셔서 무료로 점심공양과 철야정진기도를 하시면 대덕큰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산승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한점씩 무료 법보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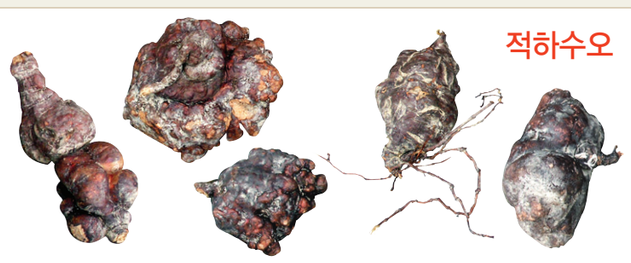
※ 숙소 관계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

부산시 서구 남부민1동 93번지 ☎ 051)244-2040
대한불교조계종 천마산 칠보사
주지 일허 합장

'적하수오'
묘목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8442-4444 (상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대행 스님

인간으로서 왜 자기를 좀더 보지 못하십니까

어찌 사는 게 고가 아니라 하시는지요

문) 저의 인생에서 즐거운 건 잠시일 뿐 늘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힘든 생활의 연속인데 스님께서는 삶은 고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삶은 고해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사는 게 고가 아니라 하시는지요.

답)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것이 고정된 게 있습니까, 듣는 것이 고정됩니까? 말하는 것이 고정됩니까, 만나는 것이 고정됩니까? 일하는 것이 고정됩니까? 이거 보면 이거 봐야 하고 저거 보면 저거 봐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야 하고, 천차만별로 그저 항상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바람결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냐 하면 공했다는 얘깁니다. 초월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그렇게 초월해서 살면서도 항상 '내가 했다. 내가 봤다.' 어떤 거 볼 때에 내가 봤다고 하겠습니까? 또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산다. 내가 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돈을 벌었다. 망한 거는 상대방에서 망하게 해서 망했다.' 이러거든요, 모두. 왜 인간이 자기를 좀더 보지 못합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데도 고정된 고것만 일을 했느냐? 집에 와서 또 다른 일을 했느냐? 저기 가서 또 다른 일을 했느냐?' 할 때 어떤 거를 했을 때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몸뚱이 속에 만 중생들이 지금,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세히 말하자면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도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형성되고 진화됐느니라.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을 네 생명과 같이 아껴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그 몸뚱이 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두고 만약에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잡수신 겁니까? 몸속에 있는 생명들이 나누어 먹은 것이죠? 더불어 같이 나누어 먹은 것입니다.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서 나누어서 모든 게 작용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이 주니깐 먹고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작용을 안 해 주면 여러분들은 송장이 되니깐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여러분의 근본이라는 그 자체를, 자기 주처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이름과 형상을 보고서 기도를 하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 자성이, 바로 자기 주처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로 세상이 벌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몸속의 이 생명들이 전부 여러분이 움죽거리는 걸 다 거기서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움죽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질서정연합니다. 내가 해야 내가 갖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행복한 거지 남이 행복한 걸 갖다 주거나 뺏어 가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배부르게 밥 먹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똥 눠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또 잠을 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 주고 죽어 주고 깨달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홀로 와서 홀로 해야만 할 문제는 해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길에서 길을 찾는다는 격도 있죠. 길은 육이 다니는 길이고, 마음이 다니는 길은 길 아닌 길이거든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고…. 여러분이 걸어다닐 때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고 다니시죠?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 발자국 떼어 놓은 것이. 짊어지고 다니진 않았을 텐데.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걷는데 그 발자국 떼어 놓은 것은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림하는 데에, 모두 생활하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삶은 고가 없다.' 여러분의 생각이 모자라서 팔자 운명이라든가 고(苦)가 있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현명하다면 고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거를 나라고 세울 게 없고, 내가 했다고 할 게 없고, 내 몸이 있다고 할 게 없고, 모두가 첨보해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 물 한 그릇을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은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원이 좀더 삶의 차원과 인생의 차원, 또는 우주 삼라만상의 차원, 모든 거를 한번 결부시켜서 차곡차곡 한 번 한 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게 지혜로워지고 바다와 같아져요. 그럼으로써 어떠한 여건도 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산다는 건 참 외로운 건가 봅니다

문) 산다는 건 참 외로운 건가 봅니다. 결혼할 당시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남부러울 게 없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과 자식에게는 서운함만 쌓이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네요. 결국 의지할 건 내 마음밖에 없는 걸까요?

답) 우리 인간에게는 오신통이라는 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숙명통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이 입력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 있어서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자동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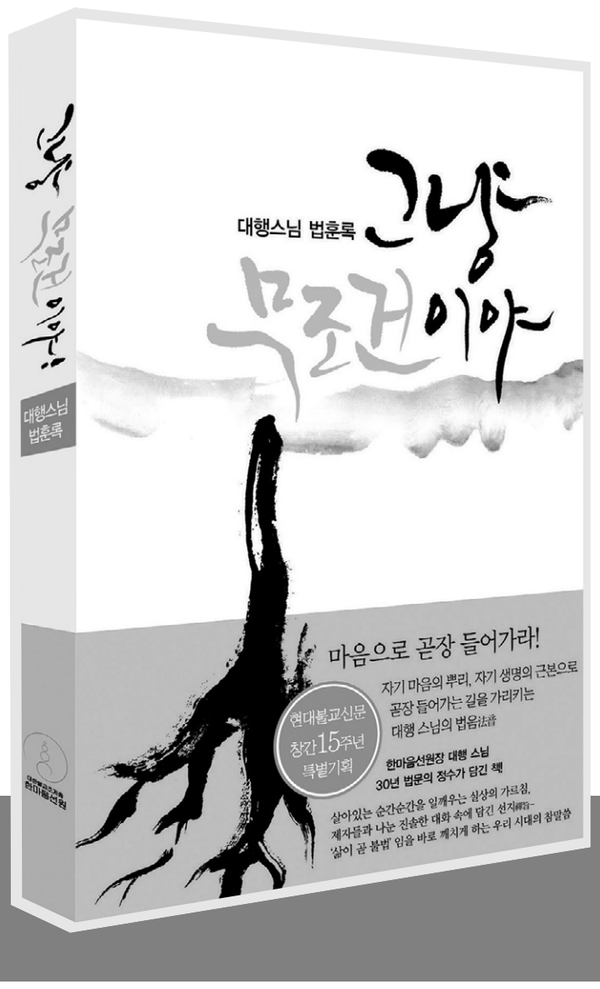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나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내 팔자가 이래? 운명이 이래? 왜 나는 되는 일마다 안돼?' 이런 한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돌려라.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자기 탓으로 돌려라.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한테 맡겨 놓고 자기밖에는, 거기서 잘못된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믿을 때에 비로소 지금 현재에 입력이 들어가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생활이 과학적이면서도 그렇게 광대무변한 법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게 한생각이 빛보다 더 빨라요.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다른 데 좀 가 보십시오. 자기 집에 가 보십시오. 갔다 오실 수 있겠죠? 마음이라는 건 내놓을 수 없으면서도 그렇게 무한의 능력을 가졌다고요. 체가 없는 마음은 어디라도, 이 지구 바깥의 꼭대기 우주까지도 탐험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집에 지금 가서 어디 뭐가 놓이고 뭐가 놓였다 하는 거를 한번 보고 와 보세요. 그와 같은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것은 그렇게 값싼 게 마음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한테 보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없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손자가 왔을 때는 할머니가 되고, 금방 남편이 들어오니깐 아내가 됐습니다. 자동적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하니까 금방 어머니가 돼 버렸죠. 그래서 어떤 것이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오직 자신을 믿고 밀고 넘어가는 패기가 있어야

☞ 29면에서 계속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애기 적이 납니까, 젊었을 때가 납니까, 늙었을 때가 납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름해서 '부처'라고도 하고 이름해서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놓고선 상표처럼 내 거니 네 거니 그런 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죠.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때리고 온통 집안을 부숴 놓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진짜로 건지려면 말로 하지 말고 이 마음 주인공 자체에 모든 것을, 너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으니 주인공에 모두 스위치를 눌러 놓으면, 거기에서밖에 해결 못한다 하고 맡겨 놓고 평등한 마음으로서 웃으면서 받아들여 주고 또는 부드러운 말로 해 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럭할 때는 그 사람 마음은 슬그머니 추운 겨울의 얼음이 녹아서 봄이 되듯이 그렇게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리고 '내가 왜 이럭하지?' 하면서 그 모든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서로 전기가 들어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자식이 나쁘게 해도 "저놈의 새끼, 나가서 뒈지지도 않나." 이런 욕들을 하는가 하면, 남편이 나가서 저거 한다면 "저놈 저놈, 오다가 저 차에라도 치여 죽지 않나." 이런 소릴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는 것은,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립니다.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일 수도 있고 사랑을 가져오고 구덩이에서 건져 낼 수도 있는 이런 위력을 가진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교에서도 그렇고 모두 타의에서 구하는데, 요만한 거 꼬리표 하나 붙여 놓고 요만한 전등 하나 켜 놓고 그걸 인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될 일입니까? 한생각을 잘하면 그게 인등을 백 번 천 번 켠 거 보다도 더 위력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을 냄으로써 그것은 마음의 인등입니다. 마음 냄으로써, 마음이 밝아짐으로써, 이건 자가발전소와 같은 겁니다. 그런 마음의 인등을 켜야 합니다. 그렇게 가깝게 내 보배를 두고도 써먹지 못하고 항상 바깥으로 끄달리니 외로운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 안에 소중한 보배가 있음을 믿고 이 마음공부를 해 보십시오. 극락과 지옥이 내 한생각에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육신의 병을 마음의 힘으로…

문) 요즘은 마음의 힘을 강조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우리 육신의 병을 마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 예를 들어 소 떼가 강을 건너는데 악어들이 욱시글득시글하니까 앞서, 즉 말하자면 소 떼의 왕초가 먼저 건너가야 이게 딴 소 떼도 들어설 텐데 물에 들어서질 않으면 못 들어가죠. 뒤로 물러섭니다. 근데 왕초가 딱 물에 들어가니까, 그냥 전부 소 떼가 다 그냥 물에 들어서 그저 악어 잔뎅이고 머리고 다 딛고 그냥 비호같이 그냥 건넜답니다. 그거와 같이 내 마음도 어떠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때에 '아이구, 이런 건 도저히 못하겠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되고…." 이런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그러거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조그만 걸 가지고도 그래요. 그리고 싸우고요. 그런데 거기다 놓고 일임하고 관하면 싱글싱글 웃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몸뚱이를 외려 혹사를 시키면서 병을 들게 하면서 이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죠, 듣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움

이 세상은 철저하게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질서정연합니다.
내가 해야 내가 갖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행복한 거지
남이 행복한 걸 갖다 주거나 뺏어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배부르게 밥 먹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아파 주고 죽어 주고 깨달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홀로 와서
홀로 해야만 할 문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거리는 것도 자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했다는 얘깁니다. 고가 붙을 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한 백지장 사이와 같이 확 이렇게 그 도리를 알면 고가 따로 있나요? 내가 고라고 생각하니깐 고(苦)지, 고가 없다면, 고라는 이름이 없다면 집착도 없을 겁니다. 고라, 고라, 고가 있다더라 이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이름 그걸 가지고서 집착을 하니까 진짜 고가 되죠. 그게 집착만 벗어지면, 그 이름을 가지고 탓을 안 하면 그냥 멸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뭐 고다, 멸한다 이런 게 없어요. 없고 그냥 여여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군요. 내 자성이 말입니다, '내 자성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하는 얘기죠. '정신계의 내 정신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 소리에요. '내 자성으로 하여 내가 여여하게 삶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거예요. 또 내 불성으로 하여금, 내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그럼. '주인공으로 하여금 내가 일체 만법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자성으로 하여금 자유자재하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정된 것도 없고 찰나찰나 그냥 화해서 돌아가고 나투면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고가 붙을 자리가 있고 병이 붙을 자리가 있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가 망가지면 폐차시키고 다시 차를 꺼내면 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깐 오직 자기가 그냥 자신을 믿고 밀고 넘어가는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너무 미워요

문) 제가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 저의 직속 상관이 다른 동료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는데 저에겐 직접적으로 그러진 않지만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정말 미워집니다. 한마음으로 돌려보려 하지만 막상 보면 그 마음은 십만팔천 리 달아나 버립니다. 어떻게 마음을 돌려야 할까요?

답) 우리가 뿌리는 한 뿌리지만 모습은 다 각각이죠. 나무 이름이 다 각각이듯이 말입니다. 근본은 둘이 아니지만 그 모습은 제각기 천차만별이다 이겁니다, 마음 씀씀이가. 상사가 그런다면 직원들에게 이익이 없죠.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은 이거다 이거다 하고 전기가 가설이 돼 있듯이 그 마음과 마음이, 나는 바로 이 회사의 직원이고 저 사람은 상사다,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설이 된 거다 이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가설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스위치를 누를 때에 '에이! 저기도 불 좀 들어오게, 한 불이 같이 들어오게끔 하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누를 때에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것대로 눌러서 오지마는 보이지 않는 데서 스위치 누르는 거는 보이지 않는 데서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저렇게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좀더 이게 다복하게 지내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 봐요. '주인공 당신밖에 없어.' 하고. 그리고 지켜봐 보세요. 차차 화목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아니 되는 게 없는데 그 집념 있게, 물러서지 않고 진짜로 믿어야 될 텐데 진짜로 믿지를 않아요. 안되면 '아이구! 이것도 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주인공이 뭐 말라빠진 주인공이야?'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이지 딴 놈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자 공했다 이거거든요. 몸과 정신과 둘이 아니게끔 돼 있는 자체가, 한 덩어리가 지금 자긴데, 자기를 무시하는 게 돼 버려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지 말고 물러서지 않고, 그냥 죽으나 사나 자기가 자기 아닙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자기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주인공 죽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 모두 그 보이지 않는 데 연결이 되고 가설이 되고 그랬으니까, 내가 한생각을 한다면 전파가 통해서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살아나가다 보면 가정에서나,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모두 사회로 나가도 그렇고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을 누가 해결해 주나요? 누가 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뺏어가는 일도 없고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자기만이 그걸 대치하고 나가야 됩니다. 길에 가다가도 누가 지독하게 싸우면 '저거 싸우지 않게끔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한생각 하고 가는 거죠.

그거를 내가 왜 얘길 하느냐 하면 모든 점에서 어떠한 거든지 용도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벌써 보는 순간 가설이 돼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듣는 순간. 그러니 한 사람이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내 몸 안에 있는 중생부터 조복을 받아야 모든 게 그 조복 받은 중생들이 전부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응신이 돼 버리죠. 그래서 모두 남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하고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생들도 구제하고 보이는 중생도 구제하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매장이 좋은지 화장이 좋은지…

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매장을 했는데요, 불교에서는 화장을 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느 방법이 더 좋다고 여기시는지요?

답)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여여함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법이라고 지금 가르치는데 아니,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하고 물어요? 아, 자유스럽게 하세요. 그게 법인데, 그냥. 지금 세상에 우리 한국 땅에는 땅이 좁아서 그 매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매장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이 몸뚱이는 사대로 흩어지게 마련인데 그게, 그게 있으면 뭘 하고 묻어 놓으면 뭘 합니까? 아주 불을 살라서 깨끗하게 치워 버리는 게 아주 깨끗하지. 매장을 하면 그 의식이 삼혼이 있다고 하죠. 삼혼이 있어서 묘지에 하나 있고 자기 집에 하나 있고 혼백이 또 딴 데로 천도돼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삼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두 여러분이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이 애착, 착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떠나지 못하고 묘지에서 자기 몸을 떠나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 일가친척까지도 돌아다니면서 '내가 왔는데 너 아는 척 왜 안 하느냐.' 고 그러니 아니, 눈에 보여야 뭘 아는 척을 하죠. 들리길 해야 아는 척을 하죠. 그러니까 산 사람 귀찮게만 하고 다닌단 얘기죠.

그러니 살아서나 죽어서나 왜 그렇게 남을 귀찮게 굴게끔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매장이고 뭐 화장이고 난 모릅니다. 지금 우리도 그 탑을 해 놓고, 하도 매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불교 믿는 우리 신도들만 글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탑을요. 탑 하나만 사면 3대를 항상 넣어서 이렇게 돌려 가니까 대대손손이 그 탑 하나 가지면 뭐 땅 또 만들 것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탑 하나만 하면 산소 걱정할 게 없죠. 그냥 화장시켜서 그냥 다라니에다 이렇게 싸서 거기에다 위패하고 갖다가 모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위 3대만 넘으면 또 소지해 버리고 말입니다.

어때요? 땅도 좁은데. 사람이 상황대로 사는 거지, 억지로 끼어 올라가려고 그러고 억지로 내려가려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산자리가 나쁘고 좋고 이런 걸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ϕ×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ϕ× 34㎝


육각초 7.0ϕ× 34


연화 大 9.5ϕ× 11㎝, 연화 中 9ϕ× 10㎝, 연화 小 7ϕ× 6.5㎝


밀납연화 小 7ϕ× 6.5㎝

New 신제품 흑룡초


크기 ϕ7.5 × 29cm

흑 임진년은 흑룡의 해 입니다
룡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 하십시오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백목향,목향




향수림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불자 세상보기

'다르면서도 같음' 알자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선거가 끝났다. 선거란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인 법. 승자의 기쁨과 패자의 슬픔이 교차하는 마당이다. 그러나 단지 기뻐하기만 하고 또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기쁨과 슬픔 속에는 반드시 반성이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핸드폰으로 전송되어 오는 문자 메시지들…. 그 속에는 패자들로 부터 오는 문자들이 더 눈에 띄었다. 패했음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며 다음에는 더욱 선전할 것을 다짐하는 그 메지지들 속에서 조그만 희망을 발견했다면 좀 지나친 일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패배는 앞으로의 승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될 것이다. 패자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승자들도 또한 한 때의 승리에 도취해서 무분별한 폭주를 하지는 않으리라.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절감하는 선거를 겪은 뒤이기에 더더욱 다음의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세를 갖추리라. 이런 기대를 해 보게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마음의 장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태도일 것이다. 북한이라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또 완전히 없애야 될 적으로 설정된 존재와 대치한 긴 세월…. 그 세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자신과 다른 존재는 무조건 악이고 없애야 될 존재라는 사고방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것이 정치에도 반영되어 가장 저열한 수준의 정치판을 만들어 낸 세월이 또 길다. 이제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한번 한 번의 선거를 치뤄 갈 때마다 그러한 희망적인 모습이 드러나야만 한다. 앞에서 조그만 일들을 빌미로 하여 희망을 이야기 한 것은 그러한 바램에서이다.

〈주역〉에 보면 '다르면서도 같음'과 '같으면서도 다름'의 도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서로 전혀 입장이 다르면서도 결국은 하나의 같음을 지향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너와 내가 서로 크게 다르고 그래서 다투지만, 결국은 하나의 큰 같음을 지향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말살하려는 식의 투쟁이 지양되고, 투쟁을 하되 서로 배우고 또 서로 보완하는 동행이 가능해진다. 그러한 투쟁이야말로 서로를 발전시키는 투쟁이다. 그렇게 다투면 그 다툼이야말로 올바른 성장을 위한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 이제는 우리의 정치인들이 그러한 다툼의 도리를 기본 자세로 바로 삼아야 할 때이다.

식민지 지배와 민족분단이라는 아픈 역사를 딛고 세계에 손꼽이는 경제대국이 된 나라.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그 저력의 바탕은 국민일 것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깨에 힘을 주어도 충분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힘을 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일 것이다. 이러한 저력이 있는 국민에 정치만 한걸음 더 높은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인 것이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국민의 안타까움을 바로 보아야 한다.

원효 스님은 모든 종파의 이론들이 각각 달라도 부처님의 한 뜻으로 귀일한다고 하지 않으셨던가? 오늘의 정치인들이 꼭 귀기울여야 할 말이다.

각각의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우리나라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라는 큰 목적에 귀일한다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 물론 그 그리는 목적의 그림이 서로 다를 수도 있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동지라는 의식이 바탕이 된다면, 서로의 그림을 비교해가면서 보다 온전한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의 다툼이야 아무리 격렬한들 어떠랴. 동지라는 의식 속에서, 반칙을 하지 않고 비열한 수단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서면 함께 발전하는 계기인 것을…. 그런 의식의 기반이 있어야만 이 땅의 정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 아니겠는가? 이긴 자는 이긴 자대로, 진 자는 진자대로 함께 반성하여 한 차원 높은 정치를 이루어 나가는 앞날을 기대한다.

사부대중 칼럼

연등회를 세계의 자비 축제로



김용덕
한양대 교수
조계종 성보 보존위원

연등회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한국 문화가 자존심을 자각한 문화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다. 사건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체로 일상에서 벗어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날 때 쓰이는 말인데 여기서는 역설적인 의미로 표현됐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연등회가 이제야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사건이라는 말이다. 그동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여러 종목들 가운데 연등회만큼 확실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가 1975년경에 시작됐으니 거의 40여년 동안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그 1차 책임은 불교계와 종단에 있다. 문화재 지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시대상황이 변해 배타적 종교의 위협이 끊임없이 가해지니까 제도의 힘을 빌어서 전승하려고 한 것이다. 물론 현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여기서 불교계의 책임론을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왜냐하면 연등회 말고도 불교의 무형문화 가운데는 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듬어서 등록해야할 불교 문화재로는 언뜻 생각나는 것만 들어도 다비장, 탑돌이, 지화장, 사찰음식, 점안과 복장의례 등이 있다. 연등회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기회로 숨어있는 문화재를 조사하고 학술적으로 분석해 복원 전승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등회의 내용은 부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관불(욕불)의례, 부처님 말씀을 듣는 법요식, 부처님 탄생을 다함께 축하하고 한 마음이 되는 연등행렬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관불과 법요식이 종교 본연의 의식이라면 제등행렬은 축제적 성격이 강한 행사의 모습을 띤다. 연등회가 잔치의 성격을 갖는 것은 신라 때부터의 일이다.

〈삼국사기〉에 경문왕 (866)과 진성왕(890)은 황룡사에서 연등을 관람하고 백관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에는 왕건이 '훈요십조'에서 불교를 국가의례로 시행한 이후 역대 왕들이 연등회에 참석하고 백성들과 함께 즐긴 기록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오늘의 연등회를 소연등회와 대연등회로 나누어 시행하는 구성도 이미 고려 때부터 있어온 전통이다. 소연등회날 왕이 개성 봉은사나 흥왕사로 행차했다가 돌아올 때는 날이 어두웠으므로 이때 제등행렬이 있었을 것은 당연하다. 왕궁에서 절문까지 요즘 줄에 등을 매달 듯 채붕을 얽어 꾸미고 채산(등으로 장식한 산)과 화수(등을 매단 나무)를 설치하여 길을 밝혔다. 거리가 대낮처럼 밝고 행렬 중에는 백희잡기(다양한 놀이)가 행해졌다. 백성들이 길에 쏟아져 나와 함께 이 광경을 보면서 즐기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 이러한 모습은 '관경변상도'나 '낙성연도' 같은 불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등회가 잔치로서 기능하고 온 나라 백성을 하나로 엮어 주는 끈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조선조는 억불숭유 정책을 펼쳤으나 이미 세시풍속으로 굳어진 연등회는 왕실과 유학자들도 함께 즐겼다. 서거정, 성임, 맹사성 같은 유학자들이 종로 거리에 밝힌 연등과 남산에 올라 서울 장안에 호화롭게 수놓은 등을 보고 읊은 시들이 전하고 있다. 조선후기 18세기 무렵의 〈동국세시기〉에 보면 초파일 전날부터 아이들이 깃발을 들고 마을을 싸돌아 다니는 '호기놀이'부터 종로 일원에 장식한 수박등 팔모등 봉황등 주마등 같은 온갖 등을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나온 모습에서 오늘날 제등행렬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연등회는 그 역사가 천년이 넘는 가장 오래된 불교 의례이면서 우리 민족과 함께 자라온 축제 마당이었다. 일각에서 연등회가 일제의 잔재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제 역사를 말살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아니면 역사공부를 하지 않은 무지의 소치다.

해를 거듭할수록 연등회에 참석하는 외국 관광객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유럽의 관광객 중에는 해마다 가족 단위로 연등회에 맞추어 한국을 방문하는 가족도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연등회가 불교의 의례를 넘어 온 나라가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국가의 축제가 되고 세계의 자비 축제가 되도록 가꾸는 일이다.

지방은 지방대로 연등회가 고유한 색깔로 전승되도록 연등회 보존회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이미 다른 문화재의 경우 어떤 하나를 문화재로 지정하게 되면 유사한 다른 문화재는 설 곳을 잃어 소멸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꼭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社說

조계종 '50년 얼룩' 교훈 삼자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정통성을 간직한 조계종이 4월 11일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10일 조계사 법당에서 열린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법회는 조촐했다.

정화의 주역으로 대법원장 앞에서 할복했던 6비구 가운데 한분인 원로의원 월탄 스님이 50년 영욕의 조계종사를 생생히 전달해 줘 그나마 다행스러웠다.

1700년 역사에 대한 자부심 때문일까. 과거 50주년을 통해 미래 50주년을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임에도 프로그램도 홍보도 너무 부족했다.

4~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록물 전시회에 이어 25일에는 불교사회연구소 주관으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가을에 있을 결집대회와 조계사 육조혜능 대사 좌상 봉안을 빼면 조계종은 종단출범을 즈음한 상반기를 너무나도 조용히 보낸다. 일반기업은 20주년, 30주년만 되도 중견기업에 들어간다. 사람의 나이 50이면 중년이다. 지천명(知天命)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알아 그에 순응하거나, 하늘이 만물에 부여한 원리를 안다고 한다. 조계종이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대중의 바람을 아는지는 지나봐야 알 일이다.

선가에서는 날마다 좋은날이라 매일이 같다고 했지만, 세속에 사는 불자들로서는 50주년 기념일이 조촐한 것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

정화·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얼룩진 조계종의 과거를 되짚어 보는 올해가 글로벌 한국불교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불자국회의원에 바란다

4·11 총선이 끝났다. 300명의 당선자가 금뱃지를 새로 달고 국회로 입성하게 됐다. 이들 가운데 불자는 단 40명, 비율로 따지면 13.3%이다.

선거가 아무리 투표자 개개인의 이념의 기울기와 인물의 호불호에 따라 갈릴 일이라고 하지만, 불자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은 한국불교의 현실을 말하는것 같아 씁쓰름하다.

흔히 2000만 불자라고 말한다. 불자수는 인구대비 절반인데, 왜 국회의원은 소수에 머무는지 불교계는 대책을 세워야한다.

일이 터지고 나면, 문제가 제기되면 불교계는 입버릇처럼 '인재불사'를 말한다. 그러나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은 단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그때뿐이다. 습관 같은 말은 흡사 틱증후군 환자처럼 순간 터져 나오기만 할 뿐 만성화 되어 이젠 그 심각성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래서는 안된다. 다종교사회 이웃종교의 선교 공세에서 불교가 살아남으려면 자생과 자위력을 갖춰야 한다. 불교를 알고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호법신장들이 재가자의 모습으로 사회 곳곳에 있어야 한다. 불교계부터 변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이 바로 클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불자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단지 소수라는 핑계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정책 입안을 태만히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불자국회의원 40명 개개인의 건승을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종 정 홍산 현불
총무원장 자 량
입종안내
◆ 입종구비서류
○ 승려, 법사, 사암등록 신청서 1부
○ 주민증 앞 뒤 복사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암 사진 (안·밖)
○ 총본산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 수월사
○ 종정스님 주석 사찰 :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567-1 관음사
○ 총무원 : 전화 063)583-8807 / 팩스 063-584-4153 / Mobile 010)6478-1569
종정 큰스님의
법성게 친필휘호 보급 안내
사업장이나 집안에 법성게를 걸어두고 해인도를 소지하고 있으면 일체만법이 성취되고 모든 장애가 소멸되며 일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신묘한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큰 스님의 달마도가 들어 있는 법성게 휘호는 신묘한 氣가 있습니다.
○ 보급가 15만원 (해인도 2매+족자 1매)
○ 계좌 : 농협 351-0247-1334-03 (예금주 : 우리불교조계종)
○ H·P 010-6478-1569
〈족자〉

법성게 38×145cm


해인도 10.5×17.5cm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옻가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피를 맑게, 아침을 생기있게…"참옻 덕 봤죠"

옻은 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무력증 · 위하수증세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자궁근종 · 생리불순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 해소와 정력 강화, 어혈제거,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산 성분이 강한 항암 · 항산화 및 항균활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아토피와 당뇨에도 좋다고 조사됐다. 다슬기는 칼륨 · 나트륨 · 아연 · 망간 등 성분이 들어 있어 간에 좋은 작용을 한다. 조상들은 예부터 시름시름 기운을 못차리면 다슬기를 달여 간의 조직 원료가 되는 청색소를 공급해줘 간기능을 회복시켰다.



토종 참옻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지용우 옻가네 대표

피로 회복 · 혈액 순환에 좋은 참옻 옻가네, 식품의약안전청 승인 받아 믿고 먹는 현대인의 건강 지킴이

옻추출물은 류머티즘관절염 치료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희대 척추관절센터팀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머티즘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옻의 효능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한방치료는 순환기능을 개선해 어혈을 제거한다"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에게 많은 류머티즘관절염도 옻을 이용하면 어혈 제거를 통해서 염증이 자연스레 소멸된다.

· 참옻다슬기진액

옻가네에서는 옻이 오르는 것을 극복하여 옻오름 염려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참옻제품을 선보였다. 국내에서 옻오르는 성분을 제거하고 옻의 유효성분만 그대로 유지되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옻가네가 유일하다.

몸에 좋은 참옻과 다슬기의 영양을 더한 옻가네의 '참옻다슬기진액'은 해독작용, 간기능 회복, 피로회복, 혈액순환, 노폐물 제거 등 다양한 기능으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옻가네에서는 옻나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순수 국내산 참옻만을 사용하여 '참옻 발효진액'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참옻발효진액

옻나무는 세계적으로 600여 종 존재하는데 이중 한국 · 중국 · 일본 등 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들만이 약재로 사용된다.

한국의 옻나무 수액은 우루시올 함량이 60%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옻나무에 비해 함량이 10%정도 많고 약효도 뛰어나다. 특히 강원도에서 나는 옻이 유명하다.

· 홍삼참옻 위간보

옻의 효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바로 옻가네의 홍삼참옻 위간보다. 위간보는 만성적인 속병을 다스리는데 효험이 뛰어난 참옻진액에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있는 마카 성분과 유황오리를 함께 달여낸 고농축액으로 휴대용으로 간편한 파우치 포장제품으로 만들었다.

위간보의 주성분 옻은 만성 속병(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부인병(자궁근종 · 생리통 · 냉증)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에 좋고 정력강화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속이 아프거나 숙취가 심한 경우, 멍이 잘 들고 뼈속이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 입냄새, 생리불순, 생리통이 심한 사람, 소변량이 적고 잔뇨감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더욱 좋다.

옻 산성분이 항암 · 항산화 · 항균활성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 옻나무의 수피 및 목질부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억제하고 정상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한다. 아토피 치료, 당뇨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좋다.

또 옻은 노폐물, 나쁜 피를 삭히는 살균작용으로 혈액 · 체액 순환을 돕고, 몸 안팎의 상처 · 염증이나 장부 · 혈관의 만성 질병을 낫게 한다. 여성 갱년기 증상 자궁건강에 좋고, 어혈을 풀고 강장효과가 있어 임산부들의 산후 관절시림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보았다.

· 식품의약청에서도 인정한 옻가네

옻가네 제품은 특허청의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미국 FDA의 승인은 물론 최근에는 옻 안타는 참옻개발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대통령포장을 수상했기에 믿을 수 있다. 휴대용으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우치 제품으로 출시돼 더욱 편리해졌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르시올에서 추출한 MU2성분이 혈액암과 폐암, 위암 세포 등에 강한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MU2성분은 항산화 기능도 있어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산 옻나무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후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이나 전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옻은 어혈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고, 만성위염과 지방간 등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참옻을 이용해 옻닭 조리용, 한의원 치료용,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농업법인이다. 대부분의 제품을 식약청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지적재산권 9건을 확보했다.

· 옻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우루시올(옻의 주성분)은 대부분 옻나무껍질 주변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옻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수피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일부 제품은 물이 아닌 고형분 함량이 낮은 경우도 있다. 옻 제품을 구입할 때는 고형분 함량이 높은 지, 수피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옻진액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옻을 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자주 먹는 것도 위험하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성을 제거한 옻의 경우는 간에도 좋은 약이 된다. FDA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옻가네의 제품은 독을 제거하면서도 약효는 그대로 지니고 있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사단법인 한국대체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 · 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 은상 수상



ISO 9001 인증서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국식품안전청 FCS/SID제조업체등록, 공정개정등록 · 특허청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봄 경인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멸가루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째 부터 변이 원활하게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입맛또한 좋아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서서히 없어지고 3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꺽인 수면제도 먹지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아래는 고기나 멸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피로도 확 풀려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이와 좋은 제품은 만나기 힘들어 모든 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장님에서 어혈이 잘 풀린다는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여기 시작했습니다. 7년전 대형교통사고와 4년전, 11년전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큰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가네 참옻제품을 먹으면서 운동이 서서히게 몸이 돌고 서서히 쑤시고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통주사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꾸준히 한달을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아직 정액이 있어 좋은 정액이 튀어 나왔고 심폐기능이 소생게 여겨졌는데 10일 정도 복용하면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필요하시면 궁금한 분들에게 직접 확인해 드릴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참옻 상품화 성공 옻가네,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농업법인 옻가네는 지난 11월13일 제 14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상인 산업포장을 받았다.

지용우 대표는 옻 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했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 및 옻을 이용한 옻된장, 옻고추장 등의 개발과 옻순채취, 옻나무 재배보급으로 농촌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옻나무추출물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해주는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카티스관절염 예방 및 치료 등에 효능을 밝힌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염증성질환에 옻을 이용하면 어혈제거를 통해서 염증도 자연스레 소멸된다. 이밖에 농업법인옻가네는 지난해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하며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콩을 발효시켜서 청국장 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 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훨씬 더 이롭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다.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지방을 녹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고기맛을 더욱 좋게 한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을 창업전문컨설팅 회사와 손을 잡아 전 제품을 무점포 50곳(중 · 소형 마트, 편의점, 건강식품판매점, 음식점 등)에 오픈하여 사업주 분들은 부담없는 금액으로 많은 시간의 투자없이 부업 및 투잡으로 최고의 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독성만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 무과당
100% 국내산

고급형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6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16 16th Anniversary 옻가네16주년기념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환을 옻가네 16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옻가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 080-838-25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